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현대불교신문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대표 (02)2004-8211~2

현대불교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0년 (서기 2006년) 2월 15일(음력 1월 18일) 수요일 (주간) 제 565 호

종무기관 · 각 단체들의 고문 · 자문위원회

내실 위한 새틀짜기 분주

"위촉만 있고 활용은 없다" 지적 꾸준히 대두
분야별 전문성 강화 · 위촉 구조 단일화 등 모색

불교계 종무기관과 주요 단체들이 구색 갖추기용에 불과했던 고문단이나 자문위원회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부 기관과 단체는 이미 인력개편 작업을 진행하면서 인재활용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태며, 나머지 기관과 단체들도 활로 찾기에 나섰다.

특히 사회가 다변화되고 불교계가 대처해야 할 분야와 사안의 폭이 확대됨에 따라 이 같은 형태의 자문그룹이 계속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런 움직임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비판받는 관리부재 현실

사실 불교계 종무기관과 각 단체 고문단이나 자문위원회를 두고 "위촉만 있고 관리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 것은 꽤 오래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불교여성개발원이 여성불자 108인을 선정해 발표하자, 선정 목적과 기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 같은 지적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됐다. 이름만 올려놓고 실질적인 활용을 하지 못할 바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조계종 종책자문위원회의 경우 사회 각계 전문가들에게 종단과 불교발전을 위한 자문을 구해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펴겠다는 목적으로 2003년 8월 발족됐지만 이후 이렇다할 활동도 하지 못한 채 유명무실해졌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역시 제대로 운영되지 않다가 사라졌고, 지금은 꼭 필요한 자문위원 2명을 위촉해 활용하고 있다.

조계종 국제교류위원회 역시 발족한 지 5년이 넘었지만 지금까지 세미나 한 차례 연 것 외에는 실질적인 활동이 없는 상황이고, 조계종 중앙신도회의 각 분야 전문가와 명망가 51명으로 구성된 지도위원 역시 '관리부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불교환경연대의 경우 고문, 지도위원, 중앙위원, 전문위원 등으로 150여명의 많은 인사들이 위촉돼 있지만 실질적인 활동은 거의 없는 편이다.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역시 15명의 중앙위원을 자문단으로 위촉해 놓고 있지만 활동은 미미한 상태다.

●인력활용 시스템의 '차이'

자문단 위촉은 '인재 풀(pool)'을 구축해 사안발생시 각계 전문가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골격을 갖춘다는 의미와 함께 상시 활동을 통한 실질적 운영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뤄진다.

그러나 '인재 풀' 형태는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고, 또 실제로도 이런 의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상시 활동을 통한 실질적 운영 역시 자문위원들의 개인 여건과 활용 시스템 부재로 인해 구두선에 그쳐왔음을 종무기관과 단체 관계자들도 인정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재가연대의 인력활용은 눈여겨볼 만하다. 재가연대는 상임고문, 상임지도위원 운영위원들이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서 자문역할을 넘어선 단체의 일원으로 자리 잡도록 했다.

조계종 포교원의 국제사이트 자문단과 인드라망생명공동체의 지도위원과 전문위원단 역시 실질적인 기능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케이스다.

재가연대 윤남진 사무처장은 "참여시스템을 갖추는 것과 함께 활동 성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외부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관건"이라고 말했다.

●기관 · 단체들 재편작업 나서

이 같은 한계와 모순을 인식한 기관과 단체들은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인력재편 작업에 나서고 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2월 17일 집행위원회를 열고 24명의 고문단과 51명의 지도위원 중 활동 가능한 인사와 새로 발굴한 인물을 한데 묶어 지도위원으로 통합하고, 이들을 복지통일 신행 등 분야별 위원회 또는 포럼에 포진시켜 정기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불교환경연대 역시 2월 23일 총회를 열어 150여 명에 달하는 고문, 지도위원, 중앙위원, 전문위원 가운데 활동 가능한 인사 40명을 선별해 지도위원으로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7~8명의 자문위원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2월 23일 공식 출범하는 복지재단 연구소에 자문위원과 연구위원을 포진시켜 연구작업을 진행할 방침이고, 파라미타는 중앙위원과 집행위원의 이원적 구조를 단일화해 효율을 꾀한다는 방침아래 재가연대와 중앙신도회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1 · 2차 두 차례에 걸쳐 선정된 여성불자 108인을 대상으로 3월 이후 워크숍을 열고 앞으로의 활동방향과 역할을 모색할 예정이며, 조계종 국제교류위원회도 올해 자문위원 세미나를 열고 활성화 방안을 탐색한다.

올해 들어 첫 가동되는 위원회들도 형식보다는 내실을 꾀하고 있다. 13인의 변호사로 구성된 조계종 법률자문단은 경력 10년 이상 된 변호사들을 중앙종무기관 각 부서 위원회에 배치할 방침이며, 10년 미만의 변호사들은 3월부터 조계사에서 불자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다.

또 3월초 발족할 조계종 생명윤리위원회도 자문역할 외에 정책 및 현안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방안을 찾고 있으며, 외부의 언론인으로 구성되고 있는 조계종 미디어위원회 역시 실질적인 기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별취재팀
한명우 · 여수령 · 노병철 · 유철주 기자

해인사 비로자나불상에
노무현 대통령 발원문 봉안

노무현 대통령은 2월 7일 합천 해인사에서 거행된 '해인사 비로자나불 복장의식 법회'에 국태민안발원문을 보냈다.

노대통령은 발원문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 냈다"며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국난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강조했다.

또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특권과 차별이 발붙이지 못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이 한층더 나아지기를 발원했다.

이외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개혁과 통합을 통해 묵은 과제 극복,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건설, 공존과 협력의 문화 정착, 과학기술혁신과 인재양성, 시장개혁을 통해 경제 성장, 남북 협력 평화 정착 등을 발원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번 국태민안발원문은 다른 복장 유물과 함께 비로자나불상에 영구 봉안됐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국제신문 김광삼 사장 취임

김윤환씨 부사장에 … 이사진도 개편





7일 열린 국제신문 임시주주총회에서 신임 사장으로 선임된 김광삼(65 · 前 현대불교신문 사장 · 사진 왼쪽) 대표이사 사장이 2월 9일 오후 5시 국제신문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취임식에서는 김광삼 사장과 함께 김윤환(57) 영광도서 대표가 부사장으로 취임했다.

김광삼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경영정상화, 유상증자 등에 최선을 다해 60년 역사의 국제신문의 영광을 되찾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환 부사장(사진 오른쪽)도 취임사에서 "새로운 각오로 국제신문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삼 사장은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 매일경제신문 편집국장과 논설주간, 신문편집인협회 운영위원 등을 지냈으며 현재 (재)불교문화산업기획단 상임이사, '불교와 사회 포럼' 공동대표, 한민족 클럽 회장 등을 맡고 있다.

김윤환 부사장은 JC전국부회장을 역임했고 1968년 영광도서를 창업,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점경영인상 대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부산불교실업인회 회장을 맡고 있다. 한편 국제신문은 이사진도 개편, 이웅환 전무이사, 정영원, 권명보 이사를 새로 선임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재)보덕학회(이사장 류홍우 · 앞줄 왼쪽에서 세번째)와 (주)금영(대표이사 김승영)이 2월 9일 국방부 호국원광사에서 찬불가 노래방기기 6대를 군종특별교구 주지 일면 스님(사진 앞줄 왼쪽에서 네번째)에게 전달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군법당에 노래방기기 … "찬불가 힘차게 불러요"

보덕학회 · (주)금영 '군포교합시다' 캠페인 동참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와 본사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2006년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에 (재)보덕학회(이사장 류홍우)와 (주)금영(대표이사 김승영)이 찬불가 노래방기기 6대를 보시했다. 찬불가 노래방기기는 법회의 식곡, 창작 찬불가 등 120여곡의 찬불가와 일반 가요가 삽입돼 있다.

이번에 기증된 찬불가 노래방기기 6대는 보덕학회에서 구매했고 풍경소리는 금영이 찬불가를 프로그램화 할 수 있도록 협조했다. 금영은 찬불가 120여편을 풍경소리의 도움을 받아 노래방 음원으로 일일이 변경 찬불가 노래방기기에서 찬불가를 연주하고 부를 수 있도록 지원했다. 관련기사 8면

김두식 기자

총지종 16일 효강 종령 추대 축하연

불교총지종은 2월 16일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하림각에서 '제 10대 종령 효강 대종사 추대 축하 만찬연'을 연다.

효강 대종사는 2004년 5월 총지종 9대 종령으로 추대됐으나 열반한 록정 대종사의 잔여임기를 마치고 이번에 재추대됐다.

임기는 6년. (02)552-1080

김주일 기자

동안거 해제법어 2면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24~25면
조계종 원로의원 도원 스님
수진사 수행환경 훼손 3면
동국대 불교학 박사 7명 13면



산문밖의 선 17면
설치미술가 임충섭 화백
차와 다구도 '궁합' 26면
소금섭취 줄입시다 27면

Since 1991 KASAN INSTITUTE OF BUDDHIST CULTURE 늘 푸른 청진도량 가산불교문화연구원
5대 사업 ■「불교대백과사전」편찬사업 ■불교전문교육사업: 불교원전전문학림 "三學院" ■학술연구사업: 삼학총서 간행/전국연구자결성 '가산학회'/수행결사 '동행포럼' 운영 ■문화교화사업: 정기 '수행문화포럼' 진행 ■전문출판사업 : 4대사업 성과물 및 기획출간사업
"사부대중의 끊임없는 지원과 격려로 뜻깊은 열다섯해 새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연구원가족 恒心으로 精進하며 이 모든 功德을 大衆에게 回向합니다"
가산불교대사림 8권 근간!

한국불교 중흥의 초석이 될 "가산불교대사림 예약회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산불교대사림 예약 및 후원회원
• 현재 1·2·3·4·5·6·7권 출간. 8권 근간, 전15권 년차 속간 예정입니다.
• 전권금액 2,180,000원, 예약회원은 20% 할인하여 1,750,000(우편료 포함)원입니다.
• 예약회원은 『가산불교대사림』 전권 구입을 희망하는 분으로 위의 금액을 3~60개월 분할입금하시면 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4가 206-6
TEL.765-9602~3 FAX.765-5673

각 총림 율유년 동안거 해제법어(요약)

법어 전문은 buddhanews.com

유언 무언의 차별을 벗어나 대의를…

법전 스님(조계종 종정)



풍혈연소 선사에게 어떤 납자가 물었습니다.

"말을 하면 용(用)이 되고 말을 하지 않으면 체(體)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체와 용으로부터 모두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에 선사가 대답하였습니다.

"항상 강남의 3월 풍경을 생각하니 새가 우는 곳에 온갖 꽃이 향기로우리라"

봄을 눈앞에 두고 있는 동안거를 마치는 이때 쯤 주고 받았을 선문답입니다. 안거는 무언(無言)입니다. 해제는 유언(有言)입니다. 침묵인 무언은 체요 법을 전하는 유언은 용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체와 용이라는 차별경계마저 떠날 수 있겠습니까? 즉 유언 무언의 차별을 벗어나 불법의 대의를 제시해달라는 말입니다.

이자리에서 우리는 다시한번 공안을 통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공부를 챙겨야 할 것입니다.

강남가경성합여지
(江南佳景誠合如之)
강남의 아름다운 경치가 진실로 그러해도

천재관광첨인성조
(千載觀光添人性躁)
천년의 구경거리에 조급함만 보탠 것이니라.

당성불이래년신조
(儻成不爾來年新條)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년에 새 가지가 돋더라도

뇌란춘풍졸미휴혜
(惱亂春風卒未休兮)
봄바람에 어지럽기는 끝이 없으리라.

마음을 물처럼 고요히

보성 스님(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오늘 해제하여 여러분들이 세간을 두루 돌아다니다 보면

옳으니 그르니 고우니 미우니 놀리고 헐뜯고 기리는 온갖 폐단이 간곳마다 번거로이 생길 것이다.

바로 이럴 때는 어떻게 이를 무사히 면할 수 있겠는가?

많이 애쓸 것 없이 다만 잠들지 말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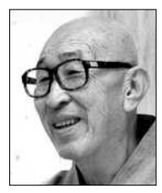
잠들지 않으면 꿈이 없을 것이요, 꿈이 없으면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세간의 일체 고통이 모두 마음이 만들어 내는 것이니, 그래서 말하기를 "꿈속에서는 시끄럽다가 깨고 나면 고요하여 일이 없다"고 하였느니라.

일난풍화태평춘(日暖風和太平春)
따뜻한 바람 부는 태평스런 봄날에
남북만행무사인(南北萬行無事人)
남북으로 만행하는 일없는 사람이여!
도로유재잔춘설(道路猶在殘春雪)
가는 길엔 아직도 잔설이 남았으니
지행이보불이신(只行移步不移身)
걸음은 옮기어도 몸은 가지 말지어다.

삼동안거 흔적 싹 쓸어라

수산 스님(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오늘은 삼동안거(三冬安居) 해제일이라.

무엇을 묶어 놓았기에 해제한단 말인가.

삼계삼세가 모두 인연의 그림자로다.

그림자를 쫓으면 묶인 것이요,

그림자 본래 없음을 간파하면 해제한 것이니,

오늘 모인 대중들 해제하려면 삼동안거(三冬安居)의

자취 흔적을 싹 쓸어버려라.

그런 연후에 환한 대낮에 대로행(大路行) 할지니라.

혹명심역혹명성
(或名心亦或名性)
심성원래시연영
(心性元來是緣影)
약인어차즉무의
(若人於此卽無疑)
자기영광상경경
(自己靈光常冏冏)

쇠소가 산문밖 나서니

혜초 스님(태고총림 선암사 방장)



담화일타재봉춘
(曇華一朶再逢春)
우담바라 한 그루가 다시 봄을 만났는데,

산승부해수갑자
(山僧不解數甲子)
산에 사는 이 중은 세월 가는 줄 몰랐구나.

무각철우출소굴
(無角鐵牛出巢窟)
뿔 없는 쇠소가 산문 밖을 나섰으니,

형극황야종공덕
(荊棘荒野種功德)
가시밭 거친 세상 교화공덕 지으시오.

청산불동백운류
(靑山不動白雲流)
청산은 잠잠하고 백운은 흘러가는데,

족하계성최세월
(足下溪聲催歲月)
발아래 시냇물소리 세월을 재촉하는구나.

"'태고종사' 관련 화해한 적 없다"

지관 스님, 본지 기사 '사실과 다르다' 지적

조계종은, 태고종의 <태고종사> 발간과 관련해 본지 564호 2면(2월 8일자) 기사에 게재된 내용인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그런 목적이라면 이해하겠고 어쨌든 앞으로 조계종과 태고종이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지관 스님은 2월 10일 총무원장 접견실에서 위영란 본지편집국장 등과 만나 해당기사가 당사자 확인없이 쓰여진 점을 지적하고 "운산 총무원장 스님이 새해 인사차 경국사를 찾아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발전방안을 논의한 뒤, <태고종사> 발간은 조계종을 폄하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을 했다"며 "이에 대해 아직 책을 읽어본 상태도 아니고 또 이 자리가 그런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식적인 자리도 아니므로 지금 뭐라 얘기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지관 스님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본 결과 <태고종사>에는 청담 스님 등 조계종 선지식들을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내용들이 많아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며 "종단 차원에서 검토해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7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근현대 수좌들 안거기록 '생생'

조계종 교육원 '근대선원 방함록' 출간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현종)는 2월 6일 근현대 선원 수좌들의 안거 기록을 담은 〈근대 선원 방함록〉을 출간했다. 방함록은 선원의 안거 수행 기록을 일컫는 말로, 안거 년도와 선원, 법호, 법명, 나이, 출가본사 등이 수록돼 있다.

이번 방함록은 1899년 동안거부터 1967년 하안거까지 해인사 퇴설선원(1899년 동안거~), 수덕사 능인선원(1910년 동안거~) · 견성암선원(1927년 동안거~), 범어사 금어선원(1909년 하안거~), 직지사 천불선원(1940년 하안거~), 도리사 태조선원(1930년 동안거~) 등 총 6개 선원의 방함록을 모은 것이다.

<근대선원 방함록>에 수록된 스님은 약 1만여명으로 1940년대에는 재가자도 다수 결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불학연구소장 현종 스님은 "간화선을 중심으로 형성된 조계종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데 중요한 역사적 자료를 제공하며 나아가 선풍, 선사상을 중심으로 접근된 기존의 선 분야 연구를 다각도로 접근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며 "근현대 불교 및 선 연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간의의를 밝혔다. 남동우 기자

교구본사 사회국장 첫회의

조계종 교구본사 사회국장 스님들이 각종 현안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 모색에 나선다.

조계종 사회부(부장 지원)는 2월 22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1차 교구본사 사회국장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경의제21 실천사업, 금강산 신계사 복원불사, 스리랑카 조계종복지타운 건립사업, 봉축 자비나눔기금 모금사업 등 각종 현안과 사회국장단 연수, 지역사회 활동, 사회복지사업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교구본사 사회국장회의는 사찰의 지역활동을 강화하고 총무원과 교구본사, 교구본사간 연대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박봉영 기자

조계종 국제사이트 오픈

'간화선' 등 다양한 콘텐츠

조계종 포교원이 전 세계에 한국불교와 간화선 수행법 위상을 높이고 종단차원의 해외포교를 직접 수행하기 위해 국제사이트(www.koreanbuddhism.net)를 2월 7일 오픈했다.

국제사이트에는 수행법 해설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수행지도를 위해 외국인들이 원어로 수행할 수 있는 한국사찰 및 선원 정보제공과 온라인상의 수행문답도 실시된다. 이 밖에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사 26분의 행장과 법어 및 법문 등 선수행의 진수를 보여준다. 남동우 기자

유진룡 문광부 차관 지관 스님 예방



신임 유진룡(사진) 문화관광부 차관이 2월 9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지관 스님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충효사상을 권장하고 도심 사찰을 종교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용수 기자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임원진 지관스님 방문 신년인사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성 스님을 비롯한 임원진이 2월 10일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하고 신년 인사를 올렸다.

지관 스님은 이 자리에서 "올해도 비구니회가 종단의 발전을 위해 수행과 포교 현장에서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예방에는 비구니회 운영위원장 수현, 총무부장 운달, 재무부장 명수, 사회부장 광옥, 교무부장 일법 스님 등이 배석했다. 글 · 사진=조용수 기자

강제 징용자유골 환송 불교계 적극 나선다

일제하 강제징용자 유골송환문제에 불교가가 적극 나설 전망이다. 정부 총리실 산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전기호 위원장은 2월 9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하고 일본에 보관돼 있는 한인 유골 반환에 불교계가 적극 나서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지관 스님은 "조만간 종단협의회를 통해 불교계의 역할을 논의하겠다"며 지원을 약속하고 "징용 한인들은 일제가 강제로 끌고 간 사람들이다. 당연히 일본 정부가 나서서 유골의 반환에 나서야 한다. 우리가 마치 애걸하듯 해서는 안된다"며 정부가 당당하게 대일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조용수 기자

불광불교대학 · 대학원 신입생 모집

불광불교대학은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인가한 불교전문교육기관입니다. 2004년에는 조계종에서 선정한 우수교육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체계적인 교리와 신행학습을 통하여 불교를 폭넓게 이해하고자 하는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불광불교대학(2년제)

1. 교과과정 (2년제 4학기)

	1학기	2학기
1학년	근본불교, 불교 경전과 신앙 불교문화, 바라밀수행법	대승불교, 정토와 밀교 불광운동, 계율(범망경)
2학년	금강경, 포교 및 사회복지 불교사, 비교종교론	선불교, 보현행원품 불교상담, 불교음악

2. 모집 부문
▶ 아침 반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12시
▶ 저녁 반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 일요 반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3시

3. 관련사항
▶ 지원자격 : 조계종 신도증 소지자 · 불교기본교육 수료자
▶ 등 록 금 : 학기당 20만원
▶ 특 전 : 조계종 포교사 고시 응시자격 · 불광법회 명교사 자격 부여



일 정
▶ 모집기간 : 2006. 1. 1 – 2006. 2. 19
▶ 합격자 발표 : 2006. 2. 20 (서류전형을 통하여 인터넷 발표)
▶ 등록기간 : 2006. 2. 20 – 2006. 2. 28
▶ 입 학 식 : 2006년 3월 5일

● 불광사 불교대학원(2년제)

1. 교과과정 (2년제 4학기)

불교 내전	1학기 : 반야사상 · 유식사상 2학기 : 법화사상 · 화엄사상 3학기 : 능엄경 · 선어록 강독 4학기 : 정토경전 · 초기불교
응용 불교	불교근현대사, 비교종교론, 과학과 불교, 불교와 생태윤리 등

2. 모집 부문
▶ 아침 반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 12시
▶ 저녁 반 :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3. 관련사항
▶ 지원자격 : 불교대학 졸업자 · 조계종 포교사
▶ 등 록 금 : 학기당 25만원
▶ 특 전 : 불광법회 전문포교사 자격 부여

불광교육원 02)417-2551 www.bulkwangsa.org

수진사 수행환경 훼손

부동산업자 개발금지지역 무차별 벌목

행정당국에 수차례 진정
여론 확산 실태파악나서

총화종 총무원이 소재한 남양주 수진사가 수년째 심각한 수행환경 훼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천마산군립공원지역과 인접한 지역인데도 불법적인 산림 훼손과 개발이 수년째 진행돼 행정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요구된다.

총화종 총무원장 남정 스님은 "부동산개발업자 K씨가 공원보존녹지인 수진사 뒤편 산림을 수년째 무차별적으로 벌목하고 별장으로 조성하는 등 불법적인 자연환경 훼손을 자행하고 있다"며 "수차례 행정당국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원상복구되기는커녕 수행환경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2월 10일 밝혔다.

수진사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자 K씨는 자신 소유의 남양주시 호평동 산57-12호와 산57-13호 임야를 10여년 동안 무허가로 개발해왔다. 이 과정에서 K씨는 불법적인 나무 벌목은 물론 석축공사와 축대공사 등을 통해 연못과 잔디밭, 시멘트 포장도로, 조형물 등을 조성해 별장처럼 꾸몄다. 그러나 이 지역은 천마산군립공원에 걸쳐 있는 보존녹지 지역으로 자연공원법에 따라 개발이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수진사는 K씨의 불법행위에 대해 남양주시청에 수차례 진정을 제기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K씨는 지난해 12월 수진사를 상대로 수진사를 통과하는 도로의 폭을 넓혀달라는 통행권확인 소송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제기하는 등 수진사에 대해 감정적인 대응을 일삼고 있다.



부동산 개발업자 K씨가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조성한 별장 모습. 멀리 수진사(점선안)가 보인다.

이 도로는 최초 수진사 소유였다가 1995년 수진사와 K씨가 각각의 소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해 K씨 소유로 바뀐 뒤 1998년 K씨의 요청으로 조성됐다.

그러나 1999년 K씨의 계약불이행으로 도로로 바뀐 이 토지의 소유가 다시 수진사로 바뀌었으며, 수진사가 받았던 토지는 K씨에게 환원됐다.

결과적으로 수진사 소유의 토지가 도로로 지목변경되고 K씨는 진입로를 확보하게 됐다. 이에 대해 수진사측 박주환 변호사는 "교환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불이행한 K씨의 행위는 수진사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건이 공론화되자 남양주시청측은 측량 조사, 현지 답사 등 환경훼손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양측에 그간 취해진 행정조치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남양주시청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K씨의 개발행위나 수진사 경내지 도로 소송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해 2월말까지 조사와 자료검토를 통해 현황을 파악한 뒤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나가겠다"고 말했다.

글 · 사진/남양주=박봉영 기자

공공기관 입사시 '종교 검열'

종자연, 10개 기관 15건 확인
"종교자유 침해" 시정 촉구

정부 중앙부처와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이 종교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준비위원장 박광서)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1월 27일까지 22개부처와 16청, 174개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 입사지원서를 검토한 결과 '종교'란 항목을 기재토록 요구한 사례는 10개 기관에서 15건이 파악됐다"고 2월 7일 밝혔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밝힌 10개 기관은 행정자치부 산하 국가기록원,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재정경제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소방방재청, 농촌진흥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이었으며, 재경경제부가 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 협약기관 굿네이버스 사원채용, 교육인적자원부 재외동포학교 교사채용, 외교통상부 산하 국제협력단의 지원을 받는 월드비전, 선한사람들 등의 입사지원서에서도 '종교' 항목 기재를 요구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2003년 일반 기업에서도 사라진 입사지원서의 '종교' 항목 표기가 정부기관에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사례"라며 정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해 시정을 촉구했다.

또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지원을 받는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 및 검토를 권고했다.

박봉영 기자

범어사 조계문 보물 지정

부산 범어사 일주문이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2월 7일 부산 범어사 경내에 있는 '범어사 조계문'을 보물 제1461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범어사 조계문'은 그동안 '범어사 일주문'이란 명칭으로 1972년 부산시 유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 관리돼 왔으나 이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어사 조계문'으로 이름도 변경됐다.

'범어사 조계문'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은 전각 중앙어간에 조계문이라는 편액이 있고 <범어사조계문중창양문록(1718년)> 등 문헌에 '조계문'이란 명칭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범어사 조계문'은 둥글고 긴 석조기둥과 짧은 목조기둥 4주를 세워 3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포계 공포 위에 맞배 지붕으로 독특한 건축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범어사 조계문'은 1993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실측조사 당시 어칸 종도리에서 발견된 묵서명에 의하면 숙종 20년(1694)에 중창된 것으로 추정되며, 1983년 해체보수 등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김두식 기자

봉은사 선지식 초청법회
3월 5일부터 8회 열려

서울 봉은사(주지 원혜)가 선지식 초청법회를 연다. 법회 주제는 '심검(尋劍)에서 올리는 사자후'이며, 3월 5일~4월 23일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봉은사 법왕루에서 열린다.

3월 5일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대원 스님의 법문을 시작으로, 3월 12일 화엄사 선등선원 선원장 현산, 3월 19일 월명암 선원장 일오, 3월 26일 봉은사 봉은선원 명진, 4월 2일 송광사 前 주지 현봉, 4월 9일 축서사 선원장 무여, 4월 16일 조계종 기본선원장 지환, 4월 23일 법인정사 선원장 설우 스님의 법석이 이어진다.(02)3218-4823

이은비 기자

능인선원 청년불교대학
3월 6일 개강, 선착순 모집

서울 능인선원(주지 지광)이 3월 6일부터 6월 12일까지 14주간 불교와 수행에 관심 있는 20세 이상 40세 이하의 젊은이들을 위해 '제1기 청년불교대학'을 개강한다.

능인선원 청년교육관 5층 청년법당에서 매주 월 · 목요일 저녁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총 28회에 걸쳐 진행되는 청년불교대학은 △부처님의 일생 △초기불교/대승불교의 기본교학 △참선 기도 염불 등 기초수행법 △현대를 살아가는 불자의 태도 등 크게 네 주제를 기본 교육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강사진은 능인선원 지광 · 탄경 스님, 능인불교연구소 방기연 법사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능인선원 홈페이지(www.gotobuddha.org)나 능인불교연구소(02-6414-1034)를 통해 알 수 있다.

김강진 기자

불교환경연대 임원 절반 축소

대대적 조직개편 단행

불교환경연대가 200여명에 달하는 임원을 100여명으로 축소하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불교환경연대는 명단에 올라있으면서도 활동이 없는 임원들을 정리하고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으로 임원을 구성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고문과 중앙위원, 지도위원 가운데 활동의지가 없거나 참여가 없는 이들을 정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1인으로 구성된 고문단은 6인으로, 120여명 규모의 중앙위원 및 지도위원은 30여명 규모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번 조직개편은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기하는 한편 재도약을 위한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01년 출범 이후 추구해온 성장 위주의 운영에서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안정과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중대한 시도이기 때문이다.

불교환경연대는 2월 23일 조계사 교육관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조직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봉영 기자

황우석 후원 범불교연대 출범

'황우석 연구팀 후원을 위한 범불교국민연대'가 2월 6일 서울 송현클럽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동산반야회 김재일 이사장은 출범선언을 통해 "황 교수 지지자들이 1인당 1만원씩 10개월간 10만명이 참여해 100억을 만드는 모금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후원회는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사무총장 하에 생명과학팀, 법률지원팀, 시민참여팀 등을 조직할 예정이며, 해외지부도 설립할 계획이다. 또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한편, 황 교수팀을 위한 100일 기도회와 난자 기증운동을 전개하고 촛불기도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은해사 주지 법타,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 김재일 동산반야회 이사장, 김이현 황우석 난자기증모임 대표 등이 상임공동대표를 맡았으며 조계종 제2~25교구 본사 주지 스님들이 공동대표에 위촉됐다.

이은비 기자

대구 '황 · 국 · 연' 촛불집회

'황우석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국민연합(황 · 국 · 연)'은 2월 4일 대구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에서 황우석 박사에 대한 사실보도와 진실규명, 연구재개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황 · 국 · 연은 대구 집회를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전국 순회 집회를 열고, 3월 1일 서울에서 대규모 행사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배지선 기자

노인문제 연구소 개소등 비전 마련

서울노인복지센터 5주년 맞아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지완)가 개관 5주년을 맞아 기념축제와 자체평가 심포지엄을 열고 센터의 운영방향을 수립할 연구소를 개소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4월부터 5월까지 '5주년 기념 등축제'를 개최하고 어버이 날인 5월 8일에는 어르신과 함께하는 '어버이날 큰 잔치'를 연다. 6월 중에는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자체평가 심포지엄을 개최해, 5주년을 맞는 센터의 역할을 점검한다.

노인문제 해결방안을 연구하고 센터 발전방향을 수립해나갈 '활기찬미래연구소'도 4월 중에 문을 연다. 연구진은 서울노인복지센터 자문교수 10여명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은퇴한 노인의 사회적응, 임종준비 사례 등을 조사해 이를 토대로 연구자료집, 문화복지백서를 4~5월에 발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연구소는 사회복지사를 위한 철학 · 상담 · 지역복지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노인복지프로그램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은비 기자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동국대 이사회

동국대 이사회는 2월 8일 동국대 본관에서 제215차 이사회를 열고 사립학교법 제58조 2항과 학교 정관 제48조 3항에 따라 "6.25 전쟁은 통일전쟁" 등의 발언을 한 강 교수를 직위해제키로 결정했다.

215차 이사회에서는 또 31명의 교수를 신규임용했으며 △추가경정예산 승인 △경주캠퍼스 본관 건립 승인 △서울캠퍼스 산학협력관(가칭), 일산강의동 및 민자유치기숙사 사업승인 등의 안건을 논의한 뒤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남동우 기자

"수행과 포교에 매진"
조계종 중신회 신년법회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는 2월 9일 서울 송현클럽에서 '불기2550년 재가자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포교원장 도영 스님, 행정자치부 오영교 · 건설교통부 추병직 · 기획예산처 변양균 · 환경부 이재용 장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불교의 근본인 '수행과 포교'를 염두에 두고 정진하자"고 법문했다. 김의정 회장은 "올해를 '인재양성의 해'로 정해, 능력 있고 불심 깊은 인재 육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강진 기자

2006학년도
대한불교 조계종 조계사 불교대학 · 대학원 신입생모집

한국 불교 1번지 조계사에서는 2006학년도 불교대학, 불교대학원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조계사불교대학 · 대학원에서는 중앙승가대학교 · 동국대학교 · 사찰 강원 등 에서 강론을 펼치시는 교수님, 스님들을 모시고 체계적인 불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교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불자님들에게는 수행 실천하는 불자로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불교대학

교육과정(2년 4학기제)
1학년 1학기 : 아함경, 불전개설, 불교윤리, 불교문화 2학기 : 금강경, 인도중국불교사, 대승불교
2학년 1학기 : 선불교, 한국불교사, 불교사회복지 2학기 : 화엄경, 포교방법론, 불교와 사회

모집분야
주간반 : 월 · 화 오전 10:30~ 12:30 / 모집정원 60명
야간반 : 월 · 화 오후 7:00 ~ 9:00 / 모집정원 60명
토요반 : 토요일 오후 3:00 ~ 6:00 / 모집정원 60명

입시요강
응시자격 : 조계종 사찰 신도
조계종 사찰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 이수자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 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2매, 기본교육 수료증 사본 1부
접수기간 : 1월 9일(월) ~ 2월 24일(금)
면 접 : 추후 개별 통보
개 강 일 : 3월초

불교대학원

교육과정(2년 4학기제)
1학기 : 여래장사상, 비교종교학 2학기 : 중관사상, 불전 성립사
3학기 : 유식학, 한국불교사상사 4학기 : 법화사상, 현대사회와 불교윤리

모집분야
주간반 : 월요일 오후 2:00 ~ 5:00 / 모집정원 40명
야간반 : 월요일 오후 7:00 ~ 10:00 / 모집정원 40명
토요반 : 토요일 오후 3:00 ~ 6:00 / 모집정원 40명

입시요강
응시자격 : 조계종 사찰 신도
조계종 1년제 이상 불교대학 졸업자 및 이와 동일한 학력 이수자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 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2매, 불교대학 졸업증 사본1부
접수기간 : 1월 9일(월) ~ 2월 24일(금)
면 접 : 추후 개별 통보
개 강 일 : 3월초

대한불교 조계종 조계사 교무국 전화 02)720-1390 팩스 02)720-1391

실참 경험 풍부한 지도자 확보가 관건

조계종 '간화선 기본수행 프로그램' 성공 열쇠는?

조계종이 2002년부터 준비해온 '간화선 기본수행 프로그램'(이하 간화선 프로그램)이 조만간 베일을 벗는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은 서울 불광사, 봉은사와 함께 3월부터 간화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조계종 중앙신도회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간화선 프로그램이 알차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선결돼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 특히 간화선 프로그램의 성패(成敗)를 좌우할 수 있는 '지도자'의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간화선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수행해온 지도자만이 '초보' 수행자에게도 올바르게 간화선 수행체계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기존에 참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민선원과의 정보 교류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간화선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점검해본다.



지난해 3월 서울 금강선원에서 진행된 '간화선 프로그램' 시범 운영 모습. 참가자들이 '수행담 나누기' 시간에 수행 경험을 토론하고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3월부터 불광사 봉은사에서 본격 실시 … 이론과 실참 병행

지도자 양성기관 설립 · 자격요건 정립해야

참선 지도해온 시민선원과의 교류도 과제

▮가장 하고 싶은 수행 '참선'

조계종 포교원이 2004년 1월 발표한 '신도수행의식 설문조사 보고서'를 보면 흥미로운 내용이 눈에 띈다.

현직 포교사와 신도전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신도 19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현재 각자가 실천하고 있는 수행법은 참회기도 32%, 염불 26%, 참선 17% 등 이지만, 가장 배워보고 싶은 수행법은 참선 59%, 염불 12%, 참회기도 10% 순이었다. 이 설문은 "불자들이 참선을 해보고는 싶지만, 현실적으로 직접 하기에는 난관이 많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다. 또 참선(간화선)을 배워 실생활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불자들의 요구가 계속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조사결과라고 볼 수 있다.

조계종 포교원 고명석 포교연구팀장은 "이미 수 년 전부터 불자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의 수행 열기는 높아지고 있다"며 "종단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간화선을 보급해 시민들이 어렵지 않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프로그램을 운영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대중들의 수행 열기를 반영해 마련된 것이 바로 간화선 프로그램이다. 이번 간화선 프로그램은 그동안 산중에만 머물러왔던 간화선을 일반 불자와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불교계 안팎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총 11주에 걸쳐 간화선 공부

간화선 프로그램은 모두 11회에 걸쳐 진행된다. 불교대학 등 종단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간화선에 입문한 불자 각 42명을 대상으로 불광사와 봉은사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왜 수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으로 문을 열어 '선으로의 초대' '양변을 여읜 자유로운 삶-간화선과 중도, 연기' '지혜의 길, 자비의 길-간화선과 무아, 공' '간화선과 무한향상의 길' '간화선 이해하기' 등으로 진행된다. 기초 불교교리와 간화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과정이다.

이어 간화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화두'를 들고 직접 실참(實參)하는 과정이 계속된다. '화두 알기와 들어보기' '화두 속으로' '간화선 수행체계 이해하기' '생활 속의 화두' '수행공동체의 길' 등이 바로 그것이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소장 현종 스님은 "짧은 시간에 쉽게 간화선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일부의 지적이 있긴 하지만, 11주 동안 간화선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와 같은 간화선 프로그램은 일반 불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등에게 적용되는 프로그램은 해당 계층 불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존의 간화선 프로그램을 응용할 예정이다.

3~4월 중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는 청소년 간화선 프로그램은 집중력 향상과 학습효과 증대는 물론 불교적인 심성과 인성을 계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영화 등의 각종 시청각 자료와 상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간화선에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대학생 간화선 프로그램 역시 학생들에게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용어를 순화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게임을 활용해 간화선에 대한 이해를 높일 방침이다.

청소년 간화선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있는 동대사대부속여고 박영동 교법사는 "학생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간화선 용어를 쉽게 풀이한 자료집을 만들 예정"이라며 "학생들이 보다 쉽게 간화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연구자를 지도자로?

그러나 이러한 간화선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은 간화선 프로그램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확보하는 문제다.

옛 선사들의 여러 일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간화선은 스승의 올바른 지도 속에서 꽃을 피울 수 있기 때문이다.

조계종은 우선 올해 시작되는 간화선 프로그램 지도는 기존에 프로그램을 연구해온 조계종 소임자와 관련학자 등 10여명의 관계자들에게 맡길 방침이다. 당장 프로그램 운영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다.

조계종 포교원의 한 관계자는 "정형화된 프로그램 교안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간화선 프로그램 연구자들이 올바르게 프로그램을 지도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계층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간화선 프로그램 교안에 지도자 지침을 정리해 놓긴 했지만 상황에 따른 대처 요령 이상은 아닌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동국대 선학과 교수 법산 스님도 "지도자는 간화선 수행관과 정체성이 명확한 사람으로 출재가를 막론하고 수년간 수행해온 사람이어야 한다"며 "간화선 실참보다 교학적 연구를 주로 해온 사람들이 지도자로 나서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화두를 들고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오랫동안 수행을 해온 사람들이 지도자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으로의 지도자 확보와 양성도 중요하다. 조계종 교육원은 지난해 10월 18~19일 대구 동화사 비로암에서 열린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토론회' 결의를 받아 가칭 '간화선 지도자 양성 교육기관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을 서두르고 있다. 선원장스님들과 학자, 종무기관 소임자, 재가자 등으로 구성될 추진위원회는 간화선 지도자 양성에 관한 실무를 담당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적절한 간화선 프로그램 지도자 요건은 무엇일까? 조계종 교육원의 한 관계자는 "스님은 4안거 이상, 재가자는 실참 경력 3년 이상 정도로 우선 자격을 잡아놓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깊이 있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 이상 실참을 해온 스님과 재가자들이 지도자로 나서야 한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이론과 실참'을 겸비한 수행자들이 지도자로 나서느냐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선원장회의와 수좌회도 프로그램 준비를 같이 해온 만큼 내년부터는 적절한 스님들을 추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원철 스님은 "대중화에 매몰돼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선 안 된다"며 "선원장회의나 수좌회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사람들을 우선 지도자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영 노하우 공유로 시너지 효과

지도자 문제와 함께 전문가들은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프로그램이 '간화선'에 근거해 정립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앞서 정리한 것처럼 현재 각 계층별 프로그램은 '눈높이' 운영을 지향하며 각각의 연구팀이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간화선의 이해를 돕는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상담'이나 '놀이' 등의 부수적인 측면만을 강조해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자칫 '달'이 아닌 '손가락'에 집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생 간화선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있는 성천문화재단 김홍근 연구실장은 "간화선 체계를 이해하고 정견(正見)을 세우는 것이 선행돼야 할지,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통해 간화선에 다가가게 해야 할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 문제 역시 만만치 않은 과제임을 내비쳤다.

또 참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민선원과 사찰과의 지속적인 교류도 중요하다. 간화선 또는 조사선 수행을 주창하며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시민선원은 전국에 약 50여개에 이르고 있다.

특정 수행법을 놓고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닌 각 선원별로 수년전부터 계속해온 수행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질 수 있다. 부산 무심선원 김태완 원장은 "조계종의 간화선 프로그램이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큰 틀에서 공통적인 수행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영 노하우를 공유한다면 적지 않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지난해 서울 조계사와 금강선원에서 2차례에 걸쳐 시행된 시범 운영을 발판으로 진행되는 간화선 프로그램은 조계종이 올해 10대 핵심사업과 21개 주요사업중 하나로 꼽을 만큼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에 그 성공여부에 불교계 안팎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기획취재팀=한명우 · 노병철 · 유철주 기자

http://cce.khu.ac.kr 열린 대학교육 · 평생교육

경희대학교 사회교육원 학생모집

기문명리학	사주, 작명, 택일, 양택, 단시 등을 기문역학으로 파악하고 실생활에 응용하는 과정 홍국수의 기본바탕 오행의 원리와 기문으로 풀이하는 개인 유형별 사주해단 방법 ● 수 19:00 ~ 21:00 (2학기과정) 학기당 200,000원 ● 60세 이상 수강자에게 수강료 50%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웰빙관상학	우리 얼굴, 신체 모든 부위의 형태와 기색을 살펴 운명 변화, 풍수 등 웰빙법 연구 골격과 살집의 미학, 십이궁과 십삼부위, 성형미학과 출세, 얼굴의 색깔과 운명교정 학습 ● 월 10:00 ~ 12:00 (2학기과정) 학기당 200,000원
한국전통 민속문화	한국인의 전통무속신앙, 자연숭배사상, 풍수지리를 연구, 현장답사 및 실습체험 ● 금 19:00 ~ 21:00 (2학기과정) 학기당 200,000원
한문해석법	체계적인 한문해석법 습득과 「명심보감」「동몽선습」「계몽편」독해, 중국시, 한국시 감상 ● 월 14:00 ~ 16:00 (15주과정) 200,000원 ● 60세 이상 수강자에게 수강료 50%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한시창작	한시의 역사와 작법을 습득하고 고문 이해, 명시 감상 및 창작을 통한 한시장르 연구 ● 목 10:00 ~ 12:00 (15주과정) 200,000원

▶ 특전 : 경희대학교 총장명의의 수료증, 도서관 이용 ▶ 접수기간 : 2006년 2월 24일(금)까지 (방문접수 : 평일)

■ 개 강 : 2006년 3월 2일(목)부터 각 강좌 해당 요일
■ 접 수 처 : 동대문구 회기동1 경희대학교 사회교육원(네오르네상스관 2층)
■ 문 의 처 : Tel (02) 961-0870~2 홈페이지 http://cce.khu.ac.kr
(홈페이지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며, 자세한 교육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교통안내 : 지하철 1호선 회기역 하차 1번출구(마을버스 경희대학교 정문 하차)

바른불교 쉬운불교 생활불교

정토불교대학

바른불교, 쉬운불교, 생활불교를 지향하는 정토불교대학이 2006년 2월 28일(화) 전국 13개 지역에서 동시 개강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단지 지식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불자님들의 삶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게 될 정토불교대학에서 법륜스님의 살아있는 영상법문을 만나보십시오.

▶ 2월 28일 - 12월 12일 매주화요일 1년 과정으로 진행합니다.

지역법당	문의처	교육시간	교육내용
서울 정토불교대학 (주/야)	02)587-8993	오전 11시 오후 7시 30분	• 실천적불교사상 - 바로 지금 여기에서 부처되는 길 • 부처님의일생 - 인간붓다 그 위대한삶 • 근본불교 - 괴로움의 뿌리를 완전히 소멸하는길 • 불교변천사 - 불교사 ,사회 역사 변화와 불교변천
부산동래 정토불교대학 (주/야)	051)557-2746		
부산해운대 정토불교대학 (주/야)	051)747-9997		
대구 정토불교대학 (주/야)	053)744-3025		
마산 정토불교대학 (주/야)	055)247-8991		
울산 정토불교대학 (주/야)	052)245-8995		
대전 정토불교대학 (주/야)	042)253-8990		
청주 정토불교대학 (주/야)	043)284-5951		
광주 정토불교대학 (주/야)	062)511-8990		
정읍 정토불교대학 (주간)	019-308-2731	오전 11시	
김천 정토불교대학 (야간)	017-530-4311	오후 8시	
제천 정토불교대학 (야간)	043)648-0083	오후 6시 30분	
제주 정토불교대학 (야간)	016-739-7885	오후 7시	

● 정토불교대학 특전
◇ 초심자 입문교육 ◇ 기도정진 및 나누기
◇ 야외법회 실시 - 사찰순례 ◇ 수행점검 및 법사님 상담
◇ 특강수련 실시 ◇ 졸업수련실시
◇ 봉사활동 및 환경 · 통일 · 복지특강

● 모집안내
◇ 접수기간 : 2006. 3. 31일 까지
◇ 대 상 : 바른불교를 찾고자하는 모든 사람
◇ 구비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사진2매
◇ 동 참 비 : 12만원(1년제) ◇ 문 의 : 각 지역법당 www.jungto.org

정토회 정토불교대학 JungTo Society

부산 불교계 첫 노인전문복지관 수탁

혜원, 2월부터 영도구노인복지관 운영

부산시에서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영도구에 불교계에서 위탁 운영하는 노인전문복지관이 생겼다.

사회복지법인 혜원(대표이사 원허)이 2월부터 위탁 운영하게 된 영도구노인복지관(관장 선공)을 수탁운영한다. 부산 불교계가 노인전문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영도구노인복지관의 위탁 결정은 불교계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 가능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음을 가늠하는 척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01년 지어진 영도구노인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에 식당, 물리치료실, 오락실, 프로그램실, 주간보호실, 강당, 영도구노인지회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다형복지관이다. 사회복지법인 혜원이 수탁받으면서 우선 시설 확충부터 시작했다. 시설을 보완해 나형복지관으로 규모를 넓히는 한편 발 빠르게 노인들의 욕구 파악에 돌입했다. 이는 보다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기 위한 사전 욕구 파악으로 '언제든 찾아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불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노인복지프로그램'으로 학위를 받은 선공 스님의 남다른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도 변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의 복지관은 '공간'만을 제공하는 경로당 수준에 머물고 있고 있다고 진단, 단순히 이용만 하는 복지관이 아니라 지역 어르신들이 살아온 연륜을 적극적으로 회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데 역점을 둘 예정이다.

어르신들 참여 기회 제공
지역 네트워크 구성 방침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 어르신들이 직접 서예교실을 열거나 어르신들이 직접 지도하는 예절교실 등도 구상 중이다. 또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노인들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알선함으로써 사회 참여의 기회를 열어주게 된다.



사회복지법인 혜원이 영도구로부터 수탁 운영하는 영도구 노인복지회관.

노인복지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건강관리 프로그램. 노인성 질환을 가진 가족들을 위한 전문 교육과 주기적인 건강강좌를 실시하고 현대적 시설을 갖춘 물리치료실도 운영한다. 이 밖에도 지역민과의 연계를 위해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는 인적, 물적 자원을 발굴, 복지관 운영위원회를 꾸리고 지역 네트워크를 구성해 나갈 방침이다. 홈페이지 업데이트 및 복지관 소식지 발간 등 준비에 한창인 영도구노인복지관은 2월 22일 오후 2시 개원식과 관장 취임식을 함께 갖는다.

선공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생로병사를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으로 긍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몸이 늙었을 뿐 마음은 그대로인 어르신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삶을 돌아보고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051)417-6344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휠체어 타고 공양 대접 "신나요"

통영 미래사 '선열당' 완공, 문턱없어 장애인 이용 수월



통영 미래사(주지 여진)엔 여느 사찰에선 보기 힘든 것이 몇 가지가 있다. 사찰 입구에 비치된 휠체어, 장애인용 화장실, 대웅전까지 이어지는 휠체어로가 그것이다. 그런 미래사에 장애인들의 출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계단이 없이 휠체어로 드나들 수 있는 식당이 하나 더 생겨났다.

2월 4일 미래사는 장애인들과 일반 불자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식당인 '선열당' 완공을 기념하며 통영시내의 장애인들을 초대해 공양을 대접했다(사진).

이날 공양에 초대된 장애인들은 모두 100여명. 통영시보건소 내 정신보건센터와 자생원 원생들과 장애인협회 후원회 관계자들이 미래사를 찾았다.

70여 평의 선열당에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탄 채 음식상을 받았다. 미래사 신도회에서 맛깔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장애인들의 구미를 당겼다. 그러나 무엇보다 장애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한 것은 언제든 식당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이전 미래사의 공양간은 마루를 올라, 제법 높은 문턱을 지나야 했기에 장애인들이 쉽사리 접근할 수 없는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이날 공양을 마친 장애인들은 한결 같이 주지 여진 스님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특히 5년 전부터 미래사와 인연을 이어온 통영시보건소 정신보건센터의 정신지체 장애인들은 직접 마련한 선물까지 여진스님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미래사에서 열렸던 장애인과 함께 하는 음악회에서 휠체어 댄스를 선보였던 박화석(38)씨는 "음악회를 통해 미래사에 온 이후로 몇 번 다녀갔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공룡엑스포와 템플스테이가 만나면?

고성 옥천사 · 보현사 1박2일 프로그램 운영

고성 옥천사(주지 성윤)와 보현사(주지 월정)는 공룡세계엑스포가 열리는 기간(4월 14일~6월 4일)에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고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고성군의 요청으로 운영되는 산사체험 프로그램은 공룡세계엑스포 관람객과 불교문화 체험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제1기(4월 13~14일)부터 14기(6월 3~4일)까지 1박2일 일정이다. 체험일정은 저녁 예불 · 법문 · 절 · 염불 등의 자율적인 수행과 새벽예불, 참선 혹은 해돋이 등반, 엑스포 행사장 관람 등으로 짜여 있다.

옥천사에는 '임자명반자'를 비롯한 보물과 도지정문화재 및 소장품 119점과 찰피나무 등 많은 볼거리가 있으며 숲으로 터널을 이룬 절 뒤편의 산책길은 삼림욕장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또 보현사는 문수암 불상과 함께 한려수도의 절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참가신청은 오는 3월말까지. 군 문화관광과(055-670-2221)나 옥천사(055-672-0100), 보현사(055-672-5347)로 하면 된다. 참가비는 1인 1회(1박 2일)에 1만 5천원이다.

천미희 기자

보광선원 선지식 초청법회

부산 보광선원(주지 황백)은 2월 9일 새해맞이 선지식 초청 입재 법회를 봉행했다.

보광선원 신도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법회에는 2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으며 대흥사 조실 천운 스님이 법문했다.

천운 스님은 법어에서 "우리는 매일 삼업을 지으며 살고 있다. 삼업을 짓지 않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부처님의 뜻대로 행동해야 한다"며 "그렇게 정진할 때 삼업이 청정해지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법문했다.

보광선원이 마련한 선지식 초청법회는 3월 5일까지 영주암 조실 정관 스님, 선학원 이사장 도형 스님, 쌍계사 조실 고산 스님을 법사로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051)973-7158

이은아 기자

지역불교 일구는 우바새



김종간

김해향토문화연구소 소장

지금은 김해를 대표하는 상징어가 돼 버린 '가야'. '가야사'니 '가야불교'니 하는 말조차 드물었던 1985년 5월, 뜬금없이 가야문화운동을 제창한 사람이 있었다. '뜬금없는' 일을 넘어 손가락질을 받아가며 뭇 사람들의 무관심속에 묻혀있던 가야사를 발굴하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김해향토문화연구소 김종간(55) 소장이다.

11대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내던 시절, 가야사에 대한 글을 청탁받으면서 김수로왕의 후손이면서도 가야사를 너무나 모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온 김 소장의 가야사 연구에는 역사학자의 연구를 뛰어넘는 열정이 가득하다.

김해농고가 최종 학력인 그였지만 한문으로 된 역사서를 독학, 삼국유사, 고려사 등 관련 서적들을 독파하기 시작했고 김해가야문화연구회를 만들어 김해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1987년 김해향토문화연구소를 개소했고 1989년에는 가야사 국제학술대회를 최초로 개최하기도 했다.

"처음엔 미쳤다는 소리도 들었다"는 김 소장은 "가야사를 연구하면 할수록 김해의 정체성은 가야사에서 찾아야한다는 확신이 깊어졌다"고 말했다.

특히 "48년 허황후에 의해 전래된 가야불교는 김해 지역 모든 사찰의 근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앞으로 스님들을 중심으로 가야불교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설 혹은 신화적 이야기로만 치부되던 가야사에 매달려온 김 소장이 있었기에 지금의 김해는 가야사가 시민들의 가슴 가슴에 자긍심으로 살아 꿈틀거리는 문화도시로 탈바꿈 중이다. 가야불교도 한반도에 불교가 전해진 시점을 고구려 소수림왕 전래설보다 370여년이나 앞당기며 새로운 황금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제1회 가야세계문화축전의 주제공연으로 뮤지컬 '가락국기'가 무대에 오르면서 김 소장의 20여년 연구와 노력은 서포터라이트를 받았다. 불교계에선 스님들과 불자들의 뜻을 모아 가야불교문화원이 완공돼 가야불교를 알리는 공간이 마련됐다.

그러나 김 소장은 아직도 가야사는 미완의 역사라고 말한다. "허황후가 백성들을 자식처럼 사랑했고 존경을 받았다는 기록을 보면서 가야사의 진정한 복원은 그 정신의 복원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기록 중심의 역사를 넘어 사회 문화 경제 전반을 관통하며 삶을 바르게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역사로 거듭나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김 소장의 바람은 역사 바로 찾기와 올바른 역사 인식에 가닿는다. 중국이 고구려 역사를 넘보고, 일본이 독도를 넘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바르게 알고 찾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자각이 필요하다는 것. 가락국기 우리말 번역과 향토사 자료집 을 발간하고 4만 3000부를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보급한 것도 그 때문이다.

'김해만을 위해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김 소장은 가야대 겸임교수,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가야세계문화축전 감사 등으로 활동하며 '김해전문가'로 통한다.

'아름다움'으로 대변되는 문화로 세상을 바꾸기 위한 김 소장의 행보는 가야사를 역사교과서에 포함시키기 위한 서명운동, 가야사 관련 유물 반환 운동 등으로 더욱 더 바빠지고 있다.

천미희 기자

김해가야문화연구회 조직 정체성 찾기 노력
가락국기 · 향토사 자료집 발간 보급에도 앞장

광주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2006학년도 일반전형 모집
세계에서 제일 큰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2006년 의료시장 개방 / 한국 개원 가능
중국 남경 한의과대학 학생모집
www.njutcm.edu.cn

1. 모집요강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20명 (내신 80점 이상)	· 건강진단서 1통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 (영문)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사과정	3년	5명 (평점3.5이상)	
박사과정	3년	2명	

2. 학교 소개
· 세계 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특징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한국식사 제공
· 군입대 연기가능
· 현지 생활 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주지스님 추천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건강진단서)
· 접수마감 : 2006년 2월 17일까지

5. 문의처
· 주 소 : 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 전 화 : 25-86322539 / 팩스 : 25-8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 조계종 삼화불교대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1080 / 팩스 : 02)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 남경중의약대학 자매대학
원광대 한의대학
대전대 한의대학
삼화불교대학 분교

한국 총장 손 혜 인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

"일할수록 자신감 생겨요"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카페 '행복이 가득한 공간' 열어



지체장애인 교육생 허해영씨가 커피와 과자를 손님에게 대접하고 있다.

"어서오세요~. 뭘 도와 드릴까요?"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3층 로비에 들어서자 경쾌한 음악이 흐르고 은은한 원두커피향이 마음까지 설레게 한다. 볕이 잘 드는 창가에 놓인 3개의 탁자에는 점심공양을 마친 장애인들과 직원들이 올라와 이야기꽃을 피우고, 벽에는 복지관 서예교실 회원들의 작품이 전시돼 있다. 손님이 들어서자 작은 카운터에서는 하얀 셔츠에 남색 앞치마를 단정히 두른 두 명의 정신지체 장애인과 지도 선생님 한 명이 반갑게 맞는다.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종광)이 1월 23일 문을 연 카페 겸 매점, '행복이 가득한 공간'이다. 직업재활팀이 정신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영역에 대한 직종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개점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한 직업훈련 공간을 넘어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가족, 직원들에게 더없이 포근한 휴식 공간이 되고 있다. 또 모든 지체장

정신지체장애인 대상 직종훈련
가능성 열고 성취감 심어줘

애인들에게는 나도 언젠가 저렇게 유니폼을 입고 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자심감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원두커피 세 잔 주세요."

손님이 커피를 주문하자 지체장애인 교육생 박미정(31)씨가 계산을 한 뒤 일일매출 장부에 체크하고, 허해영(24)씨는 원두커피를 잔에 따르고 설탕과 비스켓 한 조각을 접시에 놓은 후 조심스럽게 손님에게 가져다 준다.

카페가 문을 연지 2주 남짓, 물건을 팔고 계산하고 서빙하는 일이 이들에게는 아직 힘겹기만 하다. 잔뜩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지만 선생님에게 배운 대로 하나하나 차분히 일을 수행했다.

박미정씨는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하기 때문에 전혀 어려움이 없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또 무엇보다 "일이 즐겁고 기쁘다"며 방긋 웃었다.

직업재활훈련의 가장 이상적인 목적은 장애인들이 일반사회에서 일을 갖고 일반인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쉬운 일은 아니라고 정성훈 직업재활팀장은 말한다.

'행복이 가득한 공간' 역시 일반사회에서의 취업이라는 막연한 목적만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신지체장애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일반인들의 편견으로 평생 무기력하게 살아온 이들에게 가능성을 열어주고 자신감과 성취감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임선옥 카페운영프로그램 담당 복지사는 이런 작은 성공과 희망으로 언제가 도심 가운데 장애인들이 경영하는 카페를 열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정부에서 혹은 시에서 카페를 마련해 준다면 복지사 한명과 교육받은 장애인들이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정신지체 장애인이지만 단순한 업무수행은 수많은 반복훈련으로 일반인보다 더 잘하게 된다는 것이다.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매년 자판기 관리, 비디오 대여, 손세차, 자동차부품 조립 등의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직종을 개발해왔으며, 현재 50여명의 정신지체장애인들이 다양한 분야의 직업재활훈련을 받고 있다.

매점 운영은 직업재활교육 등록 장애인 중 매월 2명을 선발해 돌아가면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수익금은 모두 정신지체장애인들의 훈련수당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054)776-7522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의성 고운사 국장 인사

조계종 제16교구본사 의성 고운사가 최근 7국장 스님들의 인사개편을 단행했다.

기획국장에는 청량사 지현 스님, 재무국장에는 비로사 성공 스님, 포교국장에는 관음사 해각 스님, 사회국장은 범룡사 현봉 스님, 호법국장에는 안동 대원사 정우 스님이 각각 임명됐고, 총무국장 호성 스님과 교무국장 비로사 성공 스님은 유임됐다. 또 고운사가 운영하는 영주장애인종합복지관장에는 도륜 스님(유석사 주지)이 2월 1일자로 임명됐다.

배지선 기자

신라문화유산해설사 모집
경주시니어클럽, 60세 이상

(사)신라문화원 산하 경주시니어클럽(관장 진병길)은 어르신 일거리 창출의 일환으로 '제 5기 신라문화유산해설사' 및 '제 3기 숲생태해설가'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어르신을 모집한다. 교육기간은 3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 약 3개월간이며, 주 2회 교육으로 진행된다. 모집정원은 각 50명. 경주 및 인근지역 거주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월 20일까지 모집한다.

신라문화유산해설사는 남산일원 유적지를 비롯해 신라 왕경의 성립, 능묘, 불국사, 석굴암 등에 대한 전문이론과 문화유산 해설사로서의 자세 등을 교육받고 문화유적지에 대한 현장답사와 현장실습을 하게 된다. 교육 후에는 6주의 심화과정을 거쳐 문화유산해설사로 경주의 각 문화유적지에 배치된다.

숲 생태 해설가 또한 대학교수 및 전문강사를 모시고 숲, 나무, 곤충, 조류 등 자연환경과 생태에 관한 이론 교육과 현장답사 실습을 하게 된다. 교육 후에는 숲 해설 사업단을 구성해 남산 경북산림환경연구소나 황성숲 등 다양한 자연생태 관련 장소에서 자연생태체험을 오는 학생과 가족들에게 숲 해설과 생태 체험을 지도하게 된다. (054)775-1950 배지선 기자

지역불교현장을 찾아서

부처님 품에서 행복한 가정을…

대구 관오사 일요 가족법회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눈꺼풀과 팔 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니 우리는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면 박수치고 가족끼리 인사해 보십시오."

2월 5일, 참 행복이 멀리 있지 않음을 상기시키는 사회자 김창규 거사의 멘트에 대구 남구 관오사 법당이 웃음과 박수소리로 가득 찼다. 4번째 가족법회가 열린 것.



관오사(주지 지도)는 급변하는 현대사회, 가족문화의 가치관 변화가 심각할수록 가족간의 정신세계 공유가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지난해 11월부터 매월 첫째주 일요일마다 가족법회를 열고 있다. 그런데 온 가족이 모여 법회를 보고 헤어지는 여느 사찰의 가족법회와는 사뭇 다르다.

유명인사 초청 매월 첫째 일요일 법회 봉행
연령별 신행회 활동 가족간 화합 이끌어

온 가족이 함께 상단불공에는 동참하되 법문시간에는 어린이들만의 체험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회 또한 목정배, 박완일 교수 등 전국 유명강사와 스님을 초빙해 다양한 주제로 진행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후 시간 연령별 신행회로 이어진다는 것. 가족법회로 가족화합을 꾀하고 거사, 보살, 청년, 어린이회로 구성된 신행활동까지 이으며 실천하도록 이끌고 있는데 불자들의 호응과 참여가 크다. 이날 법회에도 약 300여 명의 불자들이 법당을 빼곡히 채웠다.

상단불공 시간, 선생님과 함께 참석한 어린이들의 태도가 어린이들만의 법회 때와는 달리 진지하다.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참 불자의 행을 보고 익히는 것이다. 예불을 마치고 이어진 찬불가 시간, '공심공체 둘 아닌 노래'를 부르는 거사님의 표정이 진지하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나가 놀아라~"

찬불가 시간이 끝나자 어린이들이 퇴장하고, 사회자는 코미디언 김병조씨의 유행어를 상기시키며 오늘의 법사 김병조씨를 소개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날이 아니고 '배추님' 오신 날입니다."

김병조씨는 특유의 재담으로 불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불자의 삶은 아름답다'는 주제로 법문했다. 진실한 삶의 이야기를 통해 마음을 강조한 김병조씨는 "진정 성공한 사람은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며, 아이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마무리했다. 법문이 끝나자 2시간동안 울고 웃었던 불자들이 숙연하다. 과연 나는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듯. 배지선 기자



매주 주말 오후 이색 포교 카퍼레이드에 나서는 영남불교대 경산법당 불자들이 부처님 법을 널리 알린다는 기쁨에 활기가 넘친다.

도심 한복판 포교 카퍼레이드

영남불교대학 경산법당, 매주 토요일 홍보 나서

"포교도 좀 더 적극적이어야죠. 이런 포교 어떠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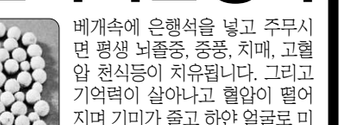
경북 경산 도심 한복판, 수많은 상업적 광고가 난무하는 가운데 매주 토요일 오후면 '참 좋은 인연'을 알리는 이색 포교 카퍼레이드가 펼쳐진다. 영남불교대학 경산법당(주지 도륜) 동문들이 신입생모집을 알리는 노란색 현수막과 대형 포스터로 차량을 장식하고 도로에 나선 것. 차량이 한 두 대가 아니다. 12기 야간반 학생들의 제안으로 시작해 여건이 되는 동문들의 차량 10여 대가 매주 꽃단장에 나섰다. 지난달 11일 발대식도 거창하게 치렀다.

2인 또는 3인 1조. 경산시내를 누비는 포교차량은 계양동, 옥산동, 정평지구 등 대형 아파트 촌을 비롯해 골목골목까지 못 갈 곳이 없다. (053)811-03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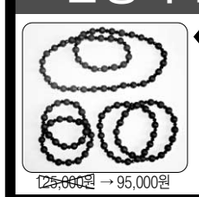
배지선 기자

건국 어느곳에서도 일등할 수 있는 교육장소
범음·범패 (梵音·梵唄) 평염불 상주권공, 각배, 영산, 짓소리까지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2006년 제8기 신입생 모집
◆ 지원자격 : 스님, 포교사, 교임법사, 각 종단을 초월하여 절을 이어갈 후계자 (유발자도 가능)
◆ 과 목 : 범패 상주권공의식, 각배의식, 교양과목
– 안채비 : 각종불공의식, 49재의식, 천도재, 신중작법의식, 각종 소, 낭독하는 법
– 겉채비 : 바라춤, 도량게작법, 다게작법(나비춤), 사물 다루는법, 화청(회심곡)
◆ 과 정 : 2년(4학기), 1년과정(상주권공, 간단한 불공)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학교에 비치), 반명함판 사진3장, 주민등록등본 2통
◆ 원서마감 : 2006년 3월 6일 월요일 오후3시 ◆ 입학식 : 2006년 3월 8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
◆ 수업시간 : 첫째주 토요일 – 2학년 (오후 3시부터 – 5시 30분까지)
둘째주 토요일 – 1학년 (오후 3시부터 – 6시까지), 통신생 포함
특수 상좌들 각배, 영상반 목요일 (오후 3시 부터 – 5시 30분까지)
◆ 통신생 출석교육 : 매월 둘째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 다음 일요일 12까지
◆ 전화번호 : 062)362-8604 / 011-624-8604 / Fax 062)372-8604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2동 759-14 (우 502-242)
◆ 학 장 : 혜공스님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이수평가자)
◆ 계좌번호 : 농협 641010-56-000296 (예금주 : 노연숙)
한국불교의식대학 신입생모집 교육기간
◇ 교육기간 : 2006년 2월 22일 – 2월 25일 (3박 4일)
● 내용 : 2월 23일 오후 2시 : 입회식 및 시련절차 실기, 대령관욕 보소청진언, 화청(회심곡), 원아계 교육
저녁시간 : 사물 다루는 법 – 북, 태징, 목탁, 요령
2월 23일 9시 : 점안의식, 가사이운식(짓소리 녹음), 화청(회심곡), (전편)교육
2월 24일 9시 : 상주권공, 지장불공, 관음시식, 상용영반, 화청(회심곡), 상축하는 법
2월 25일 9시 : 용왕불공 및 방생의식교육, 소창불, 39위 신중작법, 종사영반 종사관욕
● 준비물 : 가사장삼(스님일 경우), 필기도구, 녹음기, 일반 불자 평상복
▷ 숙식제공 포함 교육비 25만원 ▷ 모든 교육교재는 본 대학에 있음 (교재비 별도) ▷ 이번 교육을 받으실 분은 미리 전화주시고 송금요
한국불교 광주·전남 종무원 의전국장으로서 이번 교육을 태고종 스님들에 한해서 특별 무료

중요무형문화재 혜공스님의 영산의식 시리즈 (비디오, DVD출시)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이신 혜고 스님께서 불교의식을 비디오와 컴퓨터 등에서 볼 수 있는 DVD를 따라하기 쉽게 학습용으로 촬영, 아래와 같이 제작출시 하였기에 필요한 제품이 있으면 주문바랍니다.
아 래
1.대령/관욕 2.상주권공 지장불교의식 3.상용영반 4.회심곡(화청)1 5.회심곡(화청)2 6.구병시식 7.관음시식 8.점안의식 9.방생의식 10.사물 다루는 법 11.안택 12.시다림 13.산신불공 14.미타불공 15.신중불공 16.관음불공 17.지장불공 18.삼대화상증명불공 19.종사관욕 20.종사영반 21.가사불사의식 22.신중작법39위 23.간단한 신중작법 24.전통조석예불 25.천수경/장엄염불 26.상주권공/각배/영산염불 27.사시상단불공 28.작법무(복청게전수) 29.작법무(시방찬소리도량게) 30.작법무(욕건만다라선송다게작법) 31.작법무(향수나열사다라니) 32.삼보통청 33.아침저녁종성 34.향수해례예불 35.혼자서 하는 민관욕(간단한 관욕) 36.생일불공 37.상주권공49제의식1 38.상주권공49제의식2 39.상주권공49제의식3 40.상주권공49제의식4 41.제사불공 42.삼신이운 43.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1 44.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2 45.화엄시식 46.약사여래불공 47.교재2권 100,000원
◆ 비디오 반이상 구입시, 5일간 교육테이프 14개 증정합니다.
◆ 비디오 각 25,000원 / DVD 각 30,000원
◆ 농협계좌 641010-56-000296(노연숙)
◆ 제품구입처 : 종무소 062)362-8604
혜공 스님 011-624-8604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 혜공 스님



베개속에 넣고 평생 사용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상쾌한숙면 건강한하루 신비의은행석

베개속에 은행석을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천식등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아침에 가볍게 일어납니다.
배개볼 1인용 ~~55,000원~~ → 45,000원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선물"
죽어가는 것도 살리는 은행석
북한에서온 은행석은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을 받아 붕어를 넣으면 붕어는 배를 뒤집고 헐떡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붕어는 씽씽하게 살아납니다. 고급난, 분재 등 죽어가는 것도 살릴 수 있어요.
생명의 빛! 생명의 기!
북한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며 저를 믿고 주무시며 건강하게 장수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심하게 코를 골거나 기침을 하시는 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손발이 자주 붓거나 저린 분은 은행석 목걸이, 팔찌와 같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음이온을 첨가하여 어깨 통증완화 및 각세포의 기능 향상
건강도 지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은행석 안심목걸이, 팔찌

◆목걸이,팔찌 : 머리를 맑게 함, 손발저림, 어깨결림해소, 혈압조절, 혈압상승억제, 전신에 氣를 고루 전달 기력회복, 심장박동이 원활하여 마음을 안정 시킴,신진대사촉진, 피가 맑게 하며, 다이어트에도 효과
~~125,000원~~ → 95,000원
은행석 108염주, 손목압장주도 제조 판매합니다
금강닥터 문의전화 (02)723-9184 www.dk21.net
◆ 입금계좌: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송광사, 야생차 체험단지 조성

생산 불교로 사찰-주민-관광객 이익 도모

순천 서부지역 문화관광 중심허브 역할 기대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이 송광사 인근에 자생하고 있는 야생차를 살펴보고 있다.

'생산 불교'가 한국불교의 새로운 신행형태로 떠오르는 가운데, 야생차를 활용한 포교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승보종찰 조계총림 송광사(주지 영조)는 '전통 불교 야생차 체험단지 조성'을 위한 기획안을 확정하고 2월 3일 순청시청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광사와 전라남도, 순천시 관계자들이 모여 송광사 권역의 야생차체험단지 조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영조 스님은 "불교 전통과 자연의 특성을 살린 야생차 체험단지는 특화된 관광,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며 "송광사는 물론 순천시, 관광객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WIN)사업이다"고 제안했다.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허갑중 박사도 "송광사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은 연간 30만 명으로 야생차 체험단지는 고인돌공원-낙안읍성으로 이어지는 순천 서부지역 문화관광축의 중심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고 사업안을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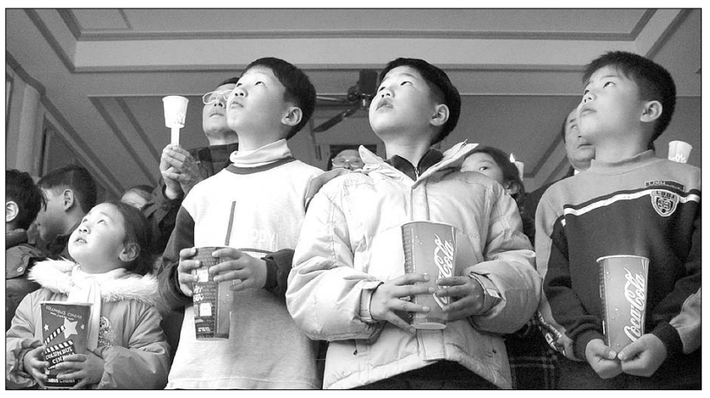
송광사가 마련한 야생차 체험단지는 조계산에 자생하는 야생차를 보호 관리하며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야생차 재배농원 조성 △제다공장 △불교전통다도 체험관 △세계야생차갤러리 △사찰음식점 △야생차 시음장 설립 등 기반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현재 송광사는 해마다 200여통의 야생차를 생산해 강원과 선원 등 사중스님들이 음용하고 있다. 또한 송광사 인근 230여 농가가 300만평의 야생차 농원를 관리하며 자체 상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특화 가능한 사업으로 관광 경쟁력이 있으나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다"며 "관련법규를 검토해 사업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비 2억 7천여만원을 확보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 영조 스님은 "더 이상 앉아서 포교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사찰이 가지고 있는 문화, 역사, 환경을 적극 활용해 '찾아오는 불교'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 · 사진=이준엽 기자



한마음선원 본·지원 새해맞이 촛불재 봉행

한마음선원 안양본원과 전국 15개 지원은 2월 2일부터 일제히 새해맞이 촛불재를 봉행했다.

촛불재는 새해를 맞아 산자나 죽은 자 모두 마음을 밝히고 복을 지으며 살자는 의미의 행사로 촛불을 들고 도량을 돌며 자성본래의 밝음을 되새기는 시간이다. 사진은 광주지원이 2월 4일 열린 촛불재 회향식에서 초·중·고·대학생 4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하는 모습. 이준엽 기자

충북 불자예술인협회 첫 법회 봉행 활동 시작

지난해 12월 1일 창립된 충북불자예술인협회(회장 지순애)가 2월 8일 청주 관음사에서 첫 정기법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지역 불자 예술인 50여명이 "신행과 포교에 앞장 선다"는 원력을 모아 발족한 예술인협회는 가수, 연주, 농악, 민요 등 9개 분과를 구성하고 매월 한 차례씩 정기법회를 봉행하기로 했다.

지순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큰 원력으로 모인 불자 예술인 답게 교도소 군부대 경로시설 등에 대한 위문활동도 꾸준히 전개할 것"이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혜철 대전 충북 지사장



청주 불교단체 대표 화합다짐 신년 교례회

청주지역 불교단체 대표들이 2월 7일 충북불교문화회관에서 신년 교례회를 갖고 지역불교발전을 위해 더욱 화합할 것을 다짐했다. 청주불교단체협의회(회장 민병국)가 주최하고 청주불교금강회가 주관한 이날 교례회에는 지역 불교계 스님들과 이원종 충북지사, 오제세 국회의원 등 지역 인사 1000여명이 참석했다(사진).

한편 교례회에 앞서 청주신도연합회는 김현배씨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혜철 대전 충북 지사장

"빛고을, 으뜸가는 불교고을로"

광주전남 신도회, 신행단체장 초청 간담회 열어



광주전남불교신도회 초청으로 열린 '불교신행단체 및 교계지도자 간담회' 모습.

"호남을 불교 불모지라 하지만 토양은 건실하다. 단지 움직이지 않을 뿐이다." "자주 만나자, 신명나게 불교운동을 펼치자."

지난 2월 9일, 광주 전남 불교신도회(회장 이상진) 초청으로 열린 '불교신행단체 및 교계지도자 간담회'에서 모처럼 재가 불자들의 목소리가 울렸다.

신도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도제 스님(원각사 주지)과 전상선 화엄사 신도회장, 경철 광주불교대학 석좌교수, 해월성 여성불자회장 등 신행단체장, 임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부분 스스로를 '잠자는 신도회'임을 인정하고 이구동성으로 "이제 깨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훈 광주전남교사불자회장은 "신행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만으로도 의의가 크다"며 "빛고을을 으뜸가는 불교고을로 만들기 위해 먼저 단결, 화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경철 교수는 "이교도들이 사찰의 문화해설사로 들어와 활동하면서 은근히 불교를 비하하고 있다음"며 "신도회가 앞장서 불교 문화유산해설사 과정을 개설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이상진 회장은 "올해를 광주 전남 신도회 활성화 원년으로 선포한다"며 "종파를 초월해 수행과 포교, 지역발전에 적극 동참해 '움직이는 신도회'가 되도록 힘 쓰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한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 신도회 운영에 반영할 것"을 다짐하고 "올해 안에 신도회를 사단법인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엽 기자

승·속 함께 공부하는 도량

광주 학림사, 준공 마치고 천불 봉안불사

얼마전, 달동네로 불리던 광주 동구 학산 기슭에 풍채 당당한 사찰이 자태를 드러냈다. 중창불사를 펼치고 있는 학림사(주지 원명 · 사진)다.

산동네 끄트머리에 자리한 학림사는 창건 이래 40여년간 서민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왔다. 오래전부터 도량이 협소해 불사를 했어야 했지만 마을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우선이었다. 법당은 작고 퇴락했지만 마을사람들이 언제든 마음 편하게 찾아오도록 했던 것이다.



지난해부터 취락개선사업이 전개되면서 달동네에 대형 아파트가 건립중이다. 학림사도 새로운 단장을 시작했다.

"승속이 함께 공부하는 도량을 발원하며 불사에 앞서 백일기도를 했습니다. 불,보살의 가피로 공사하면서 손가락하나 다치지 않고 준공검사를 마쳤습니다"

태고종 광주 전남 종무원장을 맡아 지역불교를 이끌고 있는 주지 원명 스님은 "어린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함께 공부하는 도량이 되도록 설계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한다.

새롭게 모습을 드러낸 학림사는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도심사찰로 연건평 170평 2층 건물이다. 1층은 교육관, 공양간, 요사가 자리한 현대식 건물이고, 2층은 법당으로 3포 팔작지붕의 전통가람이다.

법당에는 지역에서 보기 드문 3층 닫집과 천불전이 조성되어 있으며, 금동천불 불사를 펼치고 있다. 교육관은 15년 전 창립한 '전통불교 영산회' 전용 교육장으로 활용해 스님들의 불교의식 교육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이 건물은 법당에서 각 사무실로 이동하기 편하게 설계되어 있다.

아직도 벽화, 단청, 천불봉안 등의 불사를 진행중인 원명 스님은 "진정한 불사는 건물이 아니라 인재불사라며 이제부터가 진짜 불사의 시작이다"고 말했다. 불교교육에 힘써 "생활 속에 불교가 자리잡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스님은 재일기도에 머물던 법회를 일요법회로 정례화하고 학생회, 청년회 법회를 시작할 예정이다. (062)222-4133 이준엽 기자

깨달음에 이르는 길

초발심에서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단계적 수행법의 결정판!!
세계에서 세 번째로 완역출간이며 한국 불교에 기념비적인 경론!!

교보문고 불교부분 1위

달라이 라마가 2005년 12월 〈한국인을 위한 법회〉에서 추천했던 바로 그 책!!

승속을 불문하고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읽고 눈물을 흘리며 환희심을 낼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 내가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가? "

저자는 이 책에서 법과 영적 스승에 귀의함으로써 누구에게나 필연적인 죽음,
인과법칙과 수많은 고통을 뛰어 넘어 사랑과 열정을 바탕에 둔 이타의 보리심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더 나아가 궁극적 진리인 자기도 없고 남도 없는 공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게 해준다.
결국 모든 인간에게 소중하게 부여된 궁극적 깨달음을 향한 자유의 길을 제시해준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대중적인 수행의 가르침이 주된 내용이며 좀 더 높은 차원의 티베트 불교의 독특한 수행단계도 소개한다.
이 책에서 다루는 진리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적 수행은 인위적으로 총카파가 창조해낸 것이 아니라
이천 년 동안 붓다와 그 제자들이 스스로 실천해 온 방식이기도 하다.

수행자들은 그들의 삶을 뒤흔드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을 때 압도당하면서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난다.
그럼으로써 수백 번, 수천 번 엎드려 절을 하며 자기들의 영혼을 정화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이제 당신도 세계 불교를 이끌고 있는 티베트 불교의 정수를 만나게 됩니다!



총카파 지음 / 청전 옮김
신국판 변형, 양장본 / 1008쪽 / 값 43,000원

지영사 Tel. 02) 747-6333

산중일지

늦깍이 수행자의 25년간의 진솔한 수행담!
이 책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극찬했던 바로 그 책!



저자는 우리 불교사의 중요한 시기에 수행했던 원로였다.
이 책은 수행자의 사표를 보여주는 참으로 귀한 책이며
당대 선지식인들의 면모를 후대인들에 의해
윤색되지 않은 생생한 일화로 만날 수 있다.
'활로'를 모색해가는 한 수좌의 평범한 일상과
철저하게 은둔속에 갇힌 수행자의 길과 그 길 속에서
수없이 만나는 의문의 물음들에 대해
너무도 진솔하게 보여주는 책이다.

현칙 지음 / 신국판 변형 / 값 10,000원

동국대 역경원장 월운 스님이 옮기고 해설한

부모은중경



부모는
인간 존재의 근원으로 자식의 삶에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를 베푸는
아주 특별한 존재이다.
잊고 사는 부모의 은혜가
왜 소중한지, 왜 다 갚을 수 없는지
가슴 깊이 알게 해주는 책이다.

신국판 변형, 양장본 / 값 8,000원

관음종 올해사업 발표

美서 세계평화기원법회

中·러·미얀마 등과 문화교류·지원
종무행정 전산화·사이버 포교 진력



관음종(총무원장 홍파 · 사진)은 올해 해외포교에 전력을 쏟는다.

관음종은 3월 8일부터 2박3일간 미국 해병대 사령부가 있는 샌디아고에서 '세계평화기원대법회 및 영산재'를 봉행한다. 9 · 11 테러 및 이라크 전쟁에서 순직한 영령들을 위로하는 천도재 형식으로 봉행되는 이번 법회에서는 총무원장 홍파 스님의 법문과 영산재 공연이 진행된다. 법회가 끝난뒤에는 희생자 유족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한다.

러시아 카르미카공화국 불교계와의 불교문화 교류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불사가 완공된 중국 장안사의 정부승인을 상반기 중으로 마쳐 중국 교포들이 신행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쓸 방침이다.

한 · 미얀마교류협의회를 통해 미얀마 양곤에 기술학교를 세워 미얀마 불자 청소년들이 직업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종무행정의 전산화와 사이버 포교에도 진력을 다할 예정이다. 우선 상반기 중으로 기존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보완해 총무원과 전국 관음종 사찰들간의 종무행정을 네트워크화한다. 새로 개편되는 홈페이지에는 생활속에서 유익하게 실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법문과 교리를 대폭 실어 사이버상에서 종도들이 종단의 방침과 교육체계를 유기적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8월에는 총본산내에 관음종 개산조인 태허흥선 스님의 부도탑을 건립한다. 이외에도 관음종은 의정부 소재 홍법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이전문제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적극 협조하되, 사찰 본연의 환경이 조성될 수 없는 이전 조치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세워 놓았다.

교육분야에서는 종단내 교육기관 설립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홍보분야에서도 7년전 중단됐던 관음종 신문의 재발간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찬불가 노래방 기기 군법당에 첫 보급



찬불가를 연주할 수 있는 노래방 기기가 국내 최초로 군법당에 보급된다. 이에 따라 불자장병들이 여가시간에 노래를 부르며 흥겨운 시간을 갖는 것은 물론 찬불가까지 배우게 돼 군생활이 한층 활기차고 찬불가의 대중화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재)보덕학회(이사장 류홍우)와 (주)금영(대표이사 김승영)은 2월 9일 국방부 호국 원광사에서 '찬불가 노래방기기 전달식'을 갖고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와 본사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2006년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에 노래방기기 6대를 보시했다.

찬불가 노래방기기는 엠프, 스피커 등 주변기기가 하나의 기기에 포함되어 있는 일체형 기기로 이동이 간편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법회시나 부대 위문 등에도 언제 언디서나 휴대할 수 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주지 일면 스님은 이날 전달식에서 "군법사가 활동한 지 40년이 돼지만 군종특별교구는 지난해 7월 설립되어 아직 부족한 것이 많다"며 "보덕학회, 금영, 풍경소리, 현대불교신문사가 좋은 인연을 지어주었으니 더 분발해서 군 포교에 전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덕학회 류홍우 이사장도 "입춘에도 강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군법사님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성을 쏟겠다"고 인사말을 했다.



강원도 전방부대에 전달된 찬불가 노래방기기.

이번에 전달된 찬불가 노래방기기 6대는 보덕학회에서 전액 지원했다.

1993년 설립된 보덕학회는 불광사 광덕 스님이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불교와 인연이 깊고 그동안 어린이 포교, 문서 포교, 청소년 포교 등에 후원을 주로 해왔다. 정기적이지는 않았지만 군법당 위문 등도 꾸준히 해온 보덕학회는 향후 군 포교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보덕학회 이사 윤용숙 불이회 명예회장은 "그동안 불교의 미래를 위해 어린이, 청소년 포교 등에 후원했지만 이사장님이 직접 나오신 적은 한번도 없었다"며 "그만큼 군포교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후원을 약속했다.

노래방기기에 찬불가를 삽입하는 일은 금영이 맡았다. 풍경소리에서 제작한 창작 찬불가와 법회 의식곡 등 120여곡을 선정해 노래방 프로그램에 삽입할 수 있도록 디지털 음원으로 제작했다.

이번에 찬불가 노래방기기에 처음으로 120여곡의 찬불가를 삽입했으며 향후 전국의 노래방기기에 모두 찬불가를 보급할 계획이다.

김영환 금영 음향연구소장은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는 찬불가를 지속적으로 디지털 음원으로 변경하고 있다"며 "향후 노래방기기 업데이트를 통해 노래방에서도 찬불가를 부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영의 노래방기기에 찬불가가 삽입될 수 있었던 것은 좋은벗 풍경소리의 역할이 컸다. 창립 10주년을 맞아 노래방기기에서 찬불가를 부를수 있도록 하자는 계획을 세우고 금영과 공동으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했기 때문이다. 좋은벗 풍경소리는 그동안 21집의 앨범을 발매하며 500여곡의 찬불가를 창작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에서는 이번에 전달받은 찬불가 노래방기기를 2월 말 군종법사의 활동이 가장 열악한 연대 법당인 강원도 지역 2사단 쌍호정사, 7사단 연승사, 12사단 향로암, 15사단 보현사, 21사단 장안사, 27사 관음사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추가 지원이 있을 경우 연대급 군법사 제직 부대, 격오지, 교육부대, 일반부대 순으로 보급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군종특별교구 주지 일면, 부주지 계성 스님을 비롯해 현대불교신문사 위영란 국장, 교구 임원 현직 군법사 10여명과 보덕학회 이사장 류홍우, 불이회 윤용숙 명예회장, 금영 음향연구소 김명환 소장, 풍경소리 이종만 실장 등이 동참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와 본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2006년 군포교합시다' 캠페인에서는 지속적인 후원을 통해 향후 찬불가 노래방기기를 지속적으로 보급해 나갈 방침이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주지 일면 스님이 보덕학회 류홍우 이사장으로부터 찬불가 노래방기기 전달 증서를 받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재)보덕학회 전액 지원 6대 보시
(주)금영 노래방 기기에 찬불가 삽입
좋은벗 풍경소리 프로그램 제작 도와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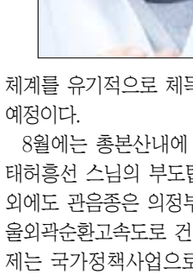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 · 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갖춤으로써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나

▷**결연** :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군법회 위문** : 소외된 군법회를 위문.
▷**군법당 건립 후원** : 낡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정기적 물품 전달** : 군법당, 군불자에 후원품 전달.
▷**법사 지원** :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동참 및 문의** : 조계종 군종교구 (02)749-8646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후원 계좌안내** :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미타종 2대 종정에 혜우 스님

"수행·포교에 전념…소외이웃과 함께 하자"



대한불교 미타종은 1월 21일 총무원에서 미타종 유지재단 이사회를 갖고 제 2대 종정으로 혜우 스님(광주 혜룡사 주지 · 사진)을 추대했다.

이날 만장일치로 종정에 추대된 혜우 스님은 종정 수락인사에서 "승, 속이 본분을 지켜 수행 포교에 전념할 때 미타종은 한국불교에 우뚝서는 종단이 될 것이다"며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며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자"고 말했다.

혜우 스님 종정 추대식은 3월경 열린다.

혜우 스님은 평소 "법당 불사보다 소외된 이웃에게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는것이 우선이다"며 교도소 군부대 위문, 경로잔치, 불우청소년 장학금 지급 등 자비행을 펼쳐 '아낌없이 주는 스님'으로 불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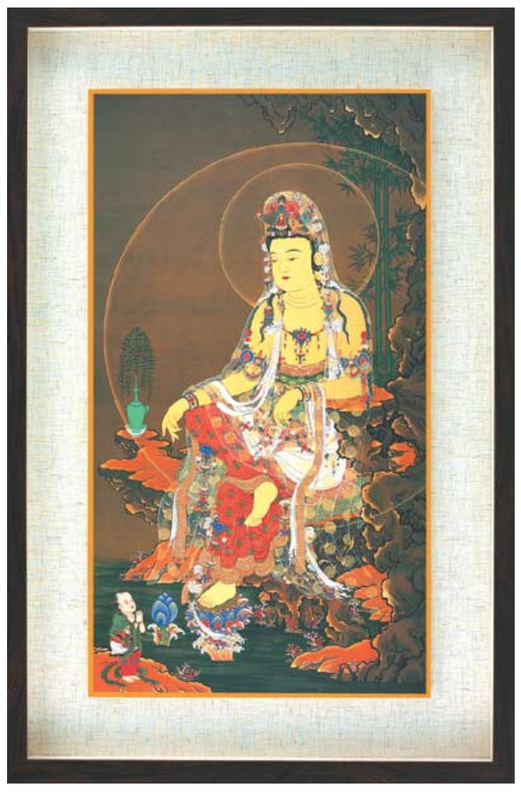
혜우 스님은 1937년 강원도 영월에서 태어나 1946년 단양 봉암사 일청 스님 은사로 입산했다. 1990년 연합종교신문사 사장 역임. 부산 백양사, 광주 천지사를 창건했으며 미타종 감찰원장, 중앙종회의장을 거쳐 1999년 미타종 부종정으로 추대. 1996년 광주 혜룡사를 창건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준엽 기자

수월관음도

불자 가정의 삼대 가보중 하나!

가정과 사업장의 번영의 수호신
가정에 1점씩 영험의 가보로!


높이 88cm, 폭58cm

만사형통의 영험!

점안불공과축원불공마치고 출시

수월관음도는 하늘에 뜬달이 물속에 밝게 비친달이라는 뜻으로 중생의 무병의 어둠을 밝히고 고통과 고뇌를 단념시키고, 재난을 없애며, 화를미리막고, 모든일을 성취시켜 주는 자비로은 구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험의 불화다.

불자가정에 꼭 있어야 할 3대 가보중 첫번째인 수월관음도는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대상, 전승공예 대전(불화)대통령상,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상을 수상한 대작이다. 수월관음도는 100%천연코튼 판화용지에 28도 판화인쇄와 베를린 왁시를 사용해 진품과 다름없이 수백년이 흘러도 변색되지 않게 특별제작했으며 영험의 고려 불화재현을 위해 30년이란 긴세월을 장인정신하나로 이 시대를 살아온 불화의 명장 法性 金義植 화백께서 기도와 영험으로 제작한 수월관음도는 집안에 모시는 순간부터 삼재를 소멸하고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며 가정과 사업장에 번영의 수호신으로 1점씩 꼭 있어야 할 영험의 불화로 축원불공을 마치고 보급하고 있다. 최고급 2단 돌출표구 제작과 모조품을 방지하기 위해 표구 뒷면에는 카필라불광사의 품질보증서와 후손에게 가보로 물려주는 소장인란도 들어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특급택배로 보내드리며 삼배한 후 거실 또는 사업장에 걸면된다. 가격195,000원

문의전화(02)735-6923
농협032-12-193445 이상하

평생부자

존경하는 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부자의 선물!


여성용銀나노장지갑 (진보라색)

남성용반지갑 (검정,밤색)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도 품격!

관세음영험 福 지갑

병술년 원하는 재물을 얻고 계획했던일 착착!!

60년만에 온 병술년은 재물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이 고통에서 해방되는 재운이 오는 좋은 해다. 세상사는동안 제일 큰 고통이 재물로 인한 고통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영험의 비방이 관세음보살 여의주수진언이다. 재물이 없어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이 관세음보살 여의주수진언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동서남북에서 재물이 들어오고 가지고 있는 재물이 헛되이 나가지 않는 영험을 담고있는 법구다. 법구제작전문 불광사에서 기도와 축원 불공속에 만든 관세음보살 복지갑은 지갑앞면에 **재물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는 영험의 여의주수진언**을 부착하고 내부에는 삼재를 소멸하고 악귀와 잡귀를 쫓고 승리하는 **금강저**를 순금도금해 넣어 소원을 이루게 했다. 고급 천연 銀나노 가죽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섬세하게 꾸며진 최고급지갑으로 안돼던 장사와 사업이 잘되고, 사업실패로 좌절하던분이 복권에 당첨되고, 포기했던 돈이 들어오고, 쌓여있던 재고가 팔리고 증권과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버는등 관세음보살의 영험이 나타나는 지갑이다. 여성용 銀나노 보라색은 여성이 항상 지니고 다니면 가정이 번영하고 사업장은 재물이 끊이지 않는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전화로 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병술년 소원성취를 위한 새벽축원불공**을 드려 드리며 복지갑은 바로 보내준다. 남성용65.000원 여성용95.000원

전화(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옴마니 반매훔 밸트

삼불의 성심과 음양의 조화로 소망이룩!



승리의 선물! 건강의 선물! 지혜의 선물!

세상사는 동안 중생마다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가 성취되기를 소망하고 살아간다.

사람에 따라 **합격의 소망, 승진의 소망, 사업성공의 소망, 연구성공의 소망, 주택소유의 소망, 취업의 소망, 건강회복의 소망, 결혼의 소망, 자녀를 갖고 싶은 소망**, 등 다양한 소망을 갖고 살지만 미련한 중생이 음양의 조화를 깨달지 못해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 **옴마니 반매훔**은 삼불의 지혜를 얻고,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져 처음 계획했던 뜻대로 소망이 이룩되는 진리의 뜻을 담은 밸트로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므로서 화를 미리막고 시작과 끝이 풍요롭게 되는 진리의 법구다. 고급천연가죽으로 제작된 **옴마니 반매훔자동밸트**는 밸트에서 원적외선과 멜토에너지가 발산되어 장과 간 허리를 튼튼하게 하는 고급밸트로 법구제작전문 불광사에서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고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택배로 보내준다. 가격75,000원

문의(02)741-4488

대구불교방송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주최 '행복나눔 스키캠프' 현장

"어서 스키타고 싶어요!" 스키장비를 대여받은 청소년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스키를 타러 달려나가고 있다.



"신나는 스키… 추워도 행복해요"

저소득 결손가정 청소년 200여명 초청
개신교 복지시설 아이들도 다수 참가
함께 어울리며 종교간 이해 폭 넓혀



전국적으로 눈이 내렸던 2월 7일, 강원도 홍천의 한 스키장에는 200여명의 청소년들이 추위도 잊은 채, 제동걸기와 방향 바꾸기 등 스키기술을 배우느라 여념이 없다. 몇 번이나 눈 위를 뒹굴면서도 아이들은 입을 모아 "너무너무 멋있어요.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스키장이 이렇게 멋진 곳인지 몰랐어요. 앞으로 평생 동안 추억을 간직 할래요!"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주최한 '행복나눔 스키캠프'에 참가한 아이들이다.

SK텔레콤이 후원한 이번 캠프는 결손가정 및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8일까지 1박2일간 열렸다. 과천, 궁동, 구로종합복지관, 혜명보육원, 둥지청소년의집 등 불교계 복지관과 보육원 외에도 기독교 부스러기사랑나눔회와 성공회, 한국기독교장로총회가 운영하는 타종교 복지시설 및 공부방 청소년들도 다수 참가했다.

각 종교계 복지시설 청소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사에 참가한 아이들은 자신을 위해 무료 스키캠프가 열린다는 사실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눈이 펑펑 쏟아지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난생 처음 스키를 탄다는 설레임에 한없이 밝고 환한 얼굴들이었다.

유난히 조용한 이재영군(중2)은 기대했다가 실망하기보다 먼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더 익숙한지 "스키장이 별 건 가요"라며 애써 덤덤한 투로 말했지만 동생 윤경이(초4)는 신나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전에 한 번 썰매 타러 간 적 있었는데 그때도 가족들은 못가고 저만 복지관 따라 다녀온 거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오빠랑 같이 스키장에 오게 되서 너무 좋아요!"

윤경이는 가족끼리 여행을 간 적은 한번도 없었다며, 부모님이 함께 오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스키장에 처음 오는 것은 이들 남매뿐만이 아니다. 이날 행사에 앞서 인사말을 건넨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지현 스님은 아이들에게 "스키 처음 타보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라고 질문했다. 다섯 명을 제외한 아이들이 전부 손을 들었다. 스키는커녕 가족끼리 소풍이나 근교 나들이를 간 경험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아이들은 대부분 집에서 TV를 보거나 컴퓨터로 게임하며 방학을 보낸다고 했다. 저녁에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에 가서 저녁을 때우거나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어울렸다.

보육원에서 5년째 생활하고 있는 한 아이는 보육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이런 캠프가 열리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비용이 많이 드는 스키캠프는 보육원에서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아이들다운 활기찬 모습으로 눈 세상에 빠져 들었다. 어린 나이에 가족과 뿔뿔이 흩어져 살아도, 보육원에서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엄마 아빠를 기다려도, 잠시나마 그들이 진 짐의 무게를 잊은 듯 했다. 완만하게 경사진 슬로프에서 스키를 신고 선 아이들은 주변에 눈꽃으로 뒤덮인 설경을 보고 연신 탄성을 지르며 좋아했다.

동안지역아동센터에서 참가한 서지은양(초4)은 스키장비를 지급받자 "학교 친구들이 방학 때 가족들끼리 스키장 다녀왔다고 자랑하면 너무너무 부러웠는데…나는 못 가볼 거라고 생각했던 스키장에 오게 돼서 신기하고 믿겨지지 않는다"며 환하게 웃었다.

"양발을 넓게 벌리고 스키 앞 쪽에 주먹이 하나 들어갈 정도로 벌리세요. 멈추고 싶을 땐 발 뒤꿈치를 넓히고 엄지발가락 끝에 힘을 모으면 저절로 서게 되지요." 스키 강의가 시작되자, 아이들은 주의깊게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열심히 들어도 막상 직접 스키를 신고 실전에 들어가자 생각만큼 쉽지 않다. 아이들은 이리저리 부딪치고 즐거운 비명을 지르며 스키를 마음껏 즐겼다. 스키캠프는 다음날까지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각 종교단체 임직원들은 "종교 복지 분야에서 자발적으로 이 같은 협력차원의 행사를 시작함으로써 종교간 교류와 화합의 물꼬를 텄다"고 행사를 평가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서로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상대방 종교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손꼽았다. 한 개척교회 목사는 "돌아가는 길에 아이들에게 타종교와 더불어 사는 법과, 오늘 뜻 깊은 이 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설명해줄 생각"이라며 "다른 어떤 종교행사보다도 이 행사가 아이들의 가슴에 큰 울림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천/글=이은비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눈밭을 굴러도 마냥 즐거운 청소년들.



1박2일간의 '행복나눔스키캠프'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빙등축제의 얼음조각을 구경하며 탄성을 지르고 있다.

향(香)의 문화창조 선도하기 30년 만복향당

이제는 향을 피우시는 분들의 건강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희 만복향당과 진품의 향기를 만나는 소중한 경험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주)만복향당 임직원 일동

세계적 수준의 조향기술을 자랑하는 일본향당(Nippon Kodo)과 합작하여 만든 (주)만복향당이 엄선된 원료들로 만든 고급향으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한층 더 편안하게 해 드릴 것을 자신있게 약속드립니다

본 제품들은 자연과 생활속에 향기를 자연소재 그대로 충실하게 표현한 아로마테라피(향기치료)적인 향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향을 접하시는 동안 자연에 대한 감사와 자신만의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株)萬福香堂 www.mbhd.co.kr
◆ 본사 : 서울시 서초구 양재 2동 374-3 봉우시티 3층
대표전화 02)577-4155 / FAX 02)577-0746
◆ 공장 : 경남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447-2 전화 055)864-2432

대리점 및 판매점
부산 대리점 051)256-3353
광주(삼화불교사) 062)367-0652
대구(연꽃세상) 053)426-7300
전주(이화불교사) 063)251-7675
광주(불교서원) 062)226-3056
양산통도사(불연산방) 055)381-1060
익산(화엄불교사) 063)843-3220

침향(沈香-3종)
침향은 향기가 가라앉는다. 또는 물속에 잠긴 향이라는 뜻입니다. 침향이라함은 한 마디로 모든 향(香)의 제왕이며,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중에서 향균, 방충등의 거의 모든 면에서 최고인 고귀한 자연의 선물이며 특별한 분들께 제안하는 제품입니다.
침향수산 가라금강 가라대관

NATURENSE(네츄렌스-5종)
자연지향의 의식을 가진 분들께 권하고 싶은 향
① comfortable time(쾌적하게 지내고 싶을때)
② calm night(편안한 밤에)
③ refreshed time(상쾌한 시간을 가질때)
④ oriental mind(명상에 잠기고 싶을때)
⑤ inspired mind(건강한 기분을 유지하고 싶을때)

FREE PURE SPIRIT(3종)
파리, 뉴욕, 로스엔젤리스에서 발표되어 화제가 된 향으로 서양에서 향수가 아닌 향을 인정하게 만든 제품입니다. 현대적인 감성이 묻어나는 향기시리즈입니다.

MEDITATE(메디테이트-4종)
건강을 생각하며 만든 향입니다. 활력과 좋은 기분을 선사해 드릴 것입니다.

NK PURE(12종)
천연 농축향을 사용하여 향기가 풍부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라벤더, 로즈마리, 자스민, 유자, 녹차, 페퍼민트 등)

카유라기(8종)
그윽하게 퍼져나가는 카유라기의 향은 흔들의자에 앉아 느긋한 한때를 보내는 편안함을 줄 것입니다.

꿈의꿈세트(8종)
사시사철 24절기에 맞춘 소중한 꿈을 담아낸 향 시리즈입니다.

방생과 성지 순례의 도량
화마(火魔)도 비켜간 영험의 도량


천연기념물 223호 은행나무



영국사는 5점의 보물과 천연기념물(은행나무)등 많은 문화재를 품고있는 천년고찰로서 낙산사와 더불어 산불로 인하여 소실될 뻔 한 도량이었으나 다행히 불보살님의 가피력으로 화마가 도량을 비켜간 신비의 도량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천태산 영국사

충북 영동군 양산면 누교리 1397번지 종무소 043)743-8843



포항,흥해,칠포 대원사 성지순례

신비의 상징,
길상의 상징, 불법을 수호하는 신 용, 인도에 사는 용 종족들이 숭배하는 신화의 용 대한민국 최초로 거대한
용을 조성 하였습니다. 용의 배속에 천불전 일천불 부처님이 타고 계시며 용의 몸통속에 삼천불 부처님을 봉안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최대의 용이 탄생하였습니다. ◆ 이곳방생지 – 칠포해수욕장. 보경사는 15분거리

용의크기 : 넓이 2미터, 높이 2.5미터, 길이 108미터

「중국에 가서야면 탈 수 있는 용, 우리나라에서도 탈 수 있읍니다」

사바세계 일체중생은 신비의 용을 친견 함으로써 번뇌 망상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일체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관세음보살님 42수 진언의 소원 성취를 증득하실 길장이 바로 **칠포 대원사 성지순례**이옵니다.
전망은 푸른바다와 들판, 뒤로 수려한 명산이 병풍처럼 둘러 싸인 곳.
이곳이 바로 성지순례의 공덕, 길지라 하옵니다.... (용꿈 꾸세요)

문화관광부 사단법인 제141호 한불총02-44호 등재

대한불교 (禪)선종 총림, 포항칠포 대원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607번지 전화 : 054)261-7777 / 팩스 : 054)261-6119

정월 방생 및 삼사순례

각 사암 대덕큰스님께 아룁니다
본 성모암은 조선 명종때 창건된 사찰로서 동양의 소 석가의 칭호를 받으신 진묵대성사님의 모친 묘소가 있는 무자손 천년향화지지(無子孫 千年香火地之)입니다
진묵대사님께서 열반후 천년동안 향(香)불이 이어지는 명소이며 아울러 근처에 육신방생지가 위치하고 있어 방생 및 삼사순례의 적격지로, 근처 10분거리에 금산사와 망해사,귀신사등등 천년고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모암에 순례하시길 성모암 사부대중이 서원 합니다.

종무소 ☎063)544-0416 www.sungmoam.net
• 점심공양을 무료로 해 드립니다
• 대형주차장(50대 동시주차 가능)에서 평지로 100m이며 노인분들도 참배가 용이 합니다
• 방생물 준비 가능 • 반드시 사전예약만 가능합니다

(전통사찰111호) 성 모 암

오시는 길
◎ 호남고속도로 전주 IC에서 군산방면 - 대야검문소에서 김제방면으로 10분 거리
◎ 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 IC. 서김제 IC에서 5분거리



닫집 수미단 전문 조성

천불전,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인등, 현판, 주련 등 전문 제작

누리 불교 예술원

박 연호 합장

TEL:031)543-7073
H·P:011-703-9130
FAX:031)543-9162

www.nuribul.com

천안통. 천이통. 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린분으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빙의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약손을 만들어 드립니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법사대학 제4기 신입생 모집안내

1. 교육과목	교리, 학개론, 금강경, 초발심자경문, 의식 법사로써 갖추어야 할 소양교육 (관음시식, 49제 및 천도제 등 특강)
2. 교육시간	일년과정 1학기, 2학기
3.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본 대학 소정양식),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4. 입학자격	• 체계적인 불교교리와 의식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 • 포교원 및 사찰개원을 원하시는 분 • 현재 포교원이나 사찰을 운영하시는 분 • 법사로써 각종 포교활동을 원하시는 분(불심이 돈독 하신 분)
5. 특 전	• 법사법위 품수와 법사증 수여 • 포교원 및 사찰개원시 행사 지원 • 행자 교육 수료 인정 (사미, 사미니, 계를 받을 수 있음) • 본 종단에 포교원 및 사찰을 등록할 수 있음
6. 입학일시	**2006년 3월 5일 일요일 오후 2시 승가종 총무원 대법당**
7. 교육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 9시까지 (원서 접수중) ※ 문의하시면 안내서 보내드림
8. 본대학 사무국	부산 동래구 명륜 2동 113-1번지 전화 : 051)552-8554, 7706, 7779 전화 : 051)556-8551. 팩스 : 051)553-5921

사단법인 대한불교 승가종 법사대학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2004-8213~6, 732-1522
FAX 02)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금 용 사
된장 간장 판매
5년, 10년, 15년, 20년
1킬로당 1만 3천원
보살님 백일기도, 49일 기도,
21일 기도 원하시는 분 받습니다.
사랑골 절
011-261-4405

자연환경 · 수련지도법이 탁월한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홈페이지 : www.zenfast.com
◆안내 : 055)834-1115
016-849-3858

지금은 사람수명 팔만사천세의 시대!!!
우리곁에 오신 **미륵**
전국 유명서점에 있음
보급총판 운주사
02)3672-7181~5
010-3699-9120

임상비법전수

침술 한약	급소를 활용하라 ※ 치료, 처방, 진단에 통달할 분
사주 역학	핵심 및 통변의 달인이 되라 ※ 배워도 배워도 답답하신분
영가 빙의	전생을 보고 귀신을 부려라 ※ 천도방법과 치유능력을 원할분

011-1737-2882
충남당진토굴에서 광원합장

역학개인지도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개업 책임지도(고급반)
※ 스님. 특별우대 ※
반야선원. 혜공합장
02)421-8494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천도재, 점안식, 49재, 바라춤
학인스님, 행자모집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불교 범음 · 범패 교육도량
대구팔공산 구화사(한티재)
010-4816-6454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상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각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점	천도재	수	각	사	바라나비	경
안	49재	륙	시		춤	전
식	재	재	식	물		

학 인 행 자 모 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동자승 모집
◆대상 : 만 5~10세 미만의 남 · 여 아동
대한불교조계종 충효사
사회복지법인 충효자비원
◆연락(문의처)
054)338-1117

눈
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노환으로 작은글씨 안보이시는 분
눈흐림, 눈건조, 눈부심, 침침함, 눈빨빡함,
눈곱, 충혈, 시력강화, 렌즈착용 하신분
섭취하고, 반응 없을시 100% 환불
구입문의 (02)2631-2205,1305

사찰의 모든행사
지극정성으로 해드립니다
생전 예수재 49재 천도재
바라춤 나비춤 살풀이
산신재 용왕재 각종의식
010-8758-0606
월광 합장

모든 불공의식을 저렴한 보시금으로 지극정성껏 해드립니다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범음범패 성도합장
011-850-0176

역학 관상학 개인지도
"계절이 운명을 바꾼다"
저자 김창규 원장 직접 강의
◐ 적중률 높은 학설 쉽게 단기간 완성
◐ 공부를 하였으나 자신이 없는 분 비법전수
미래음양회 010-9959-8894
02-2231-8894
서울 지하철 2,4,5호 동대문운동장 해송빌딩3층

점안식, 천도재, 49재, 천수바라, 작법, 태평소, 사찰 재 · 의식
행사해 드립니다
010-9444-1608
무아 합장

마음을 읽는 비법사주전문반모집
포교와 회원관리의 첩경은
사람마음의 파악에서부터...
철학원개업에 필요한 통합강의
(사주학,상담요령, 대체의학,
처방법, 작명,궁합,택일..)
문의:010-2207-1638

통도 바라춤, 작법무(나비춤)
(살풀이, 승무, 지전춤 외 모든 한국무용)
각 사찰 행사에 정성으로 장엄해 드립니다
도림 불교 무용 예술원 부산지부
원장 연지심 합장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643-83 정원빌딩 內
051)515-7865
019-502-8868
통도 바라춤, 작법무 수강생 모집 中

특효!! 위장약 특별보시
오래된 위장병, 위염, 급체
복통, 변비, 구역질, 신트림
위가 더부룩하고 속이 쓰릴때
복용후 효과없을시 전액 환불
1개월분 3만5천원
대도한의원
농협계좌 187-02-274348 예금주 이양희
010-3121-4984

사찰(女)사무원 모십니다
(45세 이하)
041)673-2333
대한불교조계종사찰

조용한 산사에서 기도하며 평생 함께 할 비구니스님 및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17-569-3722

비구니 기도스님 모십니다
011-9491-9227

병술년 새해 조용한 산사에서 백일 다라니 용맹 기도 정진 하실 보살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54)534-5892
011-468-902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31)978-0530

비구니부전스님 모십니다
02)359-7766
02)353-3004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60대)
011-483-563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보시금 : 70만원)
▷울산 선암사
011-860-8793
052)282-8793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대구 팔공산
010-3189-8745

부전스님 모십니다
(50세 전후 비구스님으로 가족처럼 지내실 분 모십니다)
▷ 경기 이천시
031)641-6311

중고 승용차 보시 바랍니다
백초로 보답하겠습니다
010-7100-2443
055)673-5488

공양주 보조할 분
▷월 보시는 50만원
60~68세
마음착한 분만 전화주세요
054)452-0845
011-539-084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나이 50-60세)
02)932-2537

보시금없이 부전스님 필요한 사찰 연락바랍니다
011-850-0176

부전스님 자리 원합니다
▷법납 17년
100일 기도후 1000일 기도 가능
051)522-3198
010-7257-3198

봉은불교미술원 - 탱화 · 벽화
천불탱 괘불탱 팔상탱 후불탱 칠성탱 신중탱
지장탱 관음탱(천수천안) 감로탱 지옥탱 오백나한탱
산신탱 독성탱 종합탱 황탱화 먹탱화
충남 아산시 신창면 신달리 1구 493번지
041)541-3545, 3547 / 016-751-3545
홈페이지 www.bongen.pe.kr 불모 오 재 택
(300여개의 작품사진이 전시되 있습니다)

누구나 재식 염불을 쉽게 배울수있는 각단불공책
상단불공 · 신장불공 · 지장불공 · 산신불공법
용왕불공 · 조상천도 · 칠성불공 · 불명짓는법
책마다 순서대로 불공을 쉽게 할수있는 각각단권으로 맞춤형식 제작판매함

불공을 배우고자 하는분 초보스님 법사 철학사 보살님
기도하는 불자는 절대필요한 불공책 (역학.염불.배울학인모집)
대구시 서구 비산7동 1840-5 (농협) 743016-51-022866(정은정)
종단사찰등록 · 국제역술인협회 가입 환영 053)359-2225, 359-3644

氣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 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9년 동안 스님, 거사님, 보살님등 많은 분들이 배웠습니다.
• 동서양식 레이키 70만원 교육기간 2~3일 (단체교육 50만원)
카루나 레이키 40만원 교육기간 1일 (단체교육 30만원)
• 현대생활레이키 연구회 / www.reiki.co.kr (한글검색어 : 레이키)
전화:02)720-5719 / 02)720-5682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3월16일(목), 17일(금), 21일(화) 개강 /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동시강의
▶ 전국 제1의 불교대학 경전중심 체계적인 교육
• 3월16일(목), 3월17일(금) - 주간반, 3월21일(화) - 야간반, 각요일 선택, 주1회
• 회주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 직강 • 조계종 인가 신도교육 전문기관
• 인터넷반, 통신반, 도서관, 탁아방, 컴퓨터실 등 첨단시설
▶ 행자모집 문의 :011-9852-0075 (총무스님)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053)474-8228	053)811-0337	053)312-8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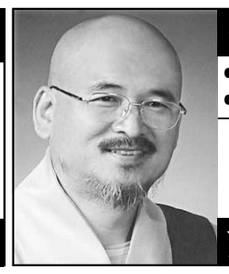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大관음사**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數(수)修理(수리) 사 주 팔 자
• 천체의 이동에 따른 지축의 정립으로 인해 1년이 360일이 되며 양력과 음력이 일치하니 기존의 달력이 새달력으로 바뀌며 周易(주역)
다음으로 제 3역인 正易(정역)으로 쓰인다. (일부김항선생의 정역편에서 발췌)
• 동서양을 통해 변하지 않는 근본(기본적)숫자를 통한 특유의 점술로그.
• 숫자가 사람 장소 사물에 대해 제공해줄 수 있는 숨겨진 의미를 찾아 운명해독의 비법전수
• 교재) 수수리수인작법서 무료증(시중에 절판된 책)
수강처 : 031)633-1517

사 주 특 별 개 인 지 도
• 사주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리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사주 운세 10초내 맞추면 입금
명리학질문 10초내 답변 / 사주 첩경 통달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혼사지연, 이혼, 부부갈등, 학업성적부진, 가출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드리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www.10cho-unse.com
24304-3396114 하나은행(예금주 : 김진동)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사주통달책임지도(성수철학원)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200명 왕성히 활동중)
• 지도교수 : 백운 성수 (회장) 부교수 약간명
완전초보자도 혜도 혜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한달만에 모든것 완전 통달됨. 교육 이수 후 월 250만원 보장
※전화 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 양성 교육기관임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제일약국 (2층) 봉산동 가구 네거리
053)255-4784, 256-4784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 사주, 작명, 궁합, 택일 • 기초부터 5개월
• 대상 : 누구나 가능 • 주4회, 1일 1시간씩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지하철 시청역 6번출구에 있는 골목 50m

제 1기생 모집
명리학 최고 지도자 과정

우리 이제 앉아서 말하는 이 시점에서 단연코 일어서서 가르치는 지도자로서 그 위상을 우리 스스로 높여 봅시다.

「최고 지도자로 다듬어가는 동방대학원대학교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앞길에 등불이 될 것이며 찬란하게 빛나는 여러분들의 명성 뒤에서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교육내용

1학기	2학기
명리학 핵심이론 정리	명리학 실전풀이
자미두수 기본이론	자미두수 격국과 실전풀이
육효 기초핵심이론	육효실천풀이와 내정법
타로 이론 및 실습	서양천문해석 강해
인상학 기본 이론	행운을 부르는 인상학 연구
음택 / 양택	풍수인테리어. 현공풍수 특강
길흉 방위 이용 개운법 특강	성명학 (주역작명법 포함)
교수법 기본 이론	교수법 실전 연습

입학안내
◆ 입학자격 : 역학분야 3년이상 연구자. 저명인사 및 교수 추천자 입학 특혜. 전문상담사, 권위있는 교육 강사 희망자 대환영.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이력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반명함판 사진 3매
◆ 입학정원 : 50명 선착순 마감
◆ 교육비 : 120만원(학기당)
◆ 과 정 : 1년(2학기제)

졸업 후 특전
◆ 동방대학원대학교 총장 명의 졸업증서 및 졸업패 수여
◆ 동방대학원대학교 총장 명의 '명리학 교육 강사' 자격증 취득
◆ 동방대학원대학교 명리학회 정회원 자격부여
◆ 한국 전통과학아카데미 학술위원 위촉 및 학술 위원증 수여
◆ 수료 후 문화센터 및 사회교육기간 강사로 활동

교육기간
◆ 입학식 : 2006년 2월 26일 일요일 (오후 2시)
◆ 개 강 : 2006년 3월 2일 목요일
◆ 교육기간 : 1년 (2학기)
◆ 교육시간 : A반 - 매주 수요일, 목요일 14:00-17:00
B반 - 매주 일요일 13:00-19:00

교 수 진
한중수 / 박영창 / 유방현 및 동방대학원대학교 전공 교수진

문 의 처
동방대학원대학교 문화교육원 교학과 ☎ 02)745-2140~3
유방현 011-9902-4640 / 박영창 011-730-7212

새로운 동방문화의 길잡이 www.dongbang.ac.kr
東方大學院大學校 DongBang University of Graduate School

기문명리학강의안내
(사주.단시.택일.작명.풍수.관상)
www.gimun.net

교육장소
•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문의:02)961-0871~2
매주 수요일(입문). 목요일(고급) 오후 7시 ~ 9시
•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 문의:031)201-3377
매주 화요일(고급). 수요일(입문) 오전 10시~12시

개강일시 2006년 3월부터

원서접수 2006년 2월 28일까지 선착순마감
(경희대학교방문접수 및 인터넷접수 가능)



◎ 담당 교수 : 손 혜림
(동국대학교불교대학원 6기)
민강 손혜림 기문명리원대표
(02-3476-3433)

기문명리학이란?
일반명리학이 단지 운명을 추측하여 추정하는 추명학이라면, 기문명리학은 정해진 운명의 바코드를 정확히 읽어내는 정명학(定命學)입니다. 본강의는 단군시대부터 전해오는 기문둔갑의 특수비법을 현재의 전맥자 이론에 의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전수해 드립니다. 카운슬링이나 심리요법을 하는분, 종교사업운영이나 철학상담원을 하는분, 특히 혼미한 세상의 등불이 되고자 하는 분들께는 참으로 필요한 진리의 학문입니다.

손혜림 원장 특별개인지도 016-9529-3433

살아있는 동충하초 추출액 100%

1. 동충하초 자실체만을 선별 · 추출하였으므로 동충하초 본래의 맛과 향이 살아있습니다.
2. 동충하초 성장주기 중 유용성분 함량이 가장 높은 시기의 개체만을 선별하여 추출하였습니다.
3. 살아있는 동충하초를 추출하여 함유성분의 파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4. 살아있는 동충하초 100%추출액입니다.
5. 본 제품은 생물자원개발연구소가 품질을 보증합니다.



◆ 용 량 : 100㎖×60 포
◆ 특별판매가 : 125,000원



• 연구개발자 : 생물자원개발 연구소 이학박사 김홍남 교수
• 식품 안전성 검사 : 시험번호 제 GO2128 호
• 성분검사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 3895 호
• 상표등록번호 : 40 - 2001- 0031242

※ 본 제품 판매의 수입금은 법당 조성 기금으로 사용되오니 두루 동참하시어 자손만대에 걸쳐 무한한 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구입문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산 60번지
정 토 사 063)255-0733
법연 스님 010-9282-0733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732-1522 (直), 02) 2004-8213~6
· 전송 : 02) 737-0696 · e-mail: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 법당 : 30평
• 요사 : 80평
• 부지 : 176평
• 가액 : 2억 (융자 7000포함)

• 위치 : 강원 동해안
• 법당 : 25평
• 요사 : 50평
• 부지 : 270평
• 가액 : 6억 (즉시법회가능)

• 위치 : 전남
• 법당 : 18평
• 요사 : 37평
• 부지 : 15600평
• 가액 : 6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미래공인중개소)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1.강원평창사찰3만평-6억
2.충청도사찰 3천평-8억
3.삼각산국유지사찰-7억
• 기도스님,노전,부전스님
• 공양주,법당,화주보살님
• 종무직,경리,사무장,처사
• 49재,천도재,점안식
※ 사찰일자리정보센터
현대불사 02)555-0575

사찰안내
• 위치 : 창녕읍에서 7분거리
• 평수 : 148평
• 산촌불, 탱화, 약사여래불 차진입가능, 요사채 3칸
• 답사후 가격 결정
※꼭 필요한 분만 연락바람
앞에 비구니스님이 살다간 공입
주거지역임, 비구니스님 환영
• 시내버스 100M 앞까지 옴
011-9502-3235

사찰안내
• 위치 : 마산시에서 15~20분거리
• 대웅전 25평 요사채 약 40평
• 대지 600평 신축건물, 고건축 경관수려함 경내까지 차량진입가
• 가액: 4억(절충가능)
011-530-1808
011-768-8744

사찰안내
• 위치 : 포천 송우리 의정부 근교
• 대지: 350평, 하천부지: 180평
• 건물 1층 50평
• 방 5개 공양실 화장실2개 휴계실大, 건물 2층 35평 대웅전(삼존불) 지장소불 108불
• 건물별채: 영단 및 위패단 1천기(80평)
• 가액: 13억5천만원(절충가능)
011-9757-7245

사찰 안내
• 위치: 가평
• 대지: 97평
• 법당: 30평
• 요사: 46평
• 가액: 1억9천

• 위치 : 경남
• 부지: 630평
• 법당: 20평
• 요사: 3동52평
• 가액: 2억5천

※ 전국사찰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주세요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안내
• 위치 : 경주시 양북면 권이리
• 대지 572평 건평 94평
• 황토요사채포함 건물 3동 심야전기 설치
• 요양원 기도원으로 사용가능 (방10개)
• 가액: 3억9천만원
011-561-3591
011-9518-9713

토굴안내
• 위치 : 충남
• 대지 320평 건물3동 있음
• 가액: 6천5백만원
※ 참선 기도처로 매우적합
016-9301-3575
042)585-3573

사찰부지안내
• 황금알땅 종교부지 3475평 1500평 개발 허가 완료
• 절 양로원 기도원 복지시설, 연수원 적지
• 대중교통 11개 노선버스 통과지역
•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옥계동
• 옥계동 재계발 예정지역 집값 상승 예정지역
• 풍남향 식장산 해돋이 보는 터
• 가액 : 16억
주인직 011-402-7818

사찰안내
• 위치: 경남 진주 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532평 법당: 25평, 요사채: 55평 천불전: 38평, 고시원: 45평 주지실: 10평, 주차시설 완비 건물일체 심야보일러 온수
• 건물: 5억3천만원 총공사비 10억 소요
010-9889-3188

• 위치 : 경기 양평
• 대지 : 약 2천평
• 법당 : 60평
• 요사채 : 200평 (3동)
• 가액 : 13억
• 교통 요지임

• 위치 : 대구 팔공산
• 부지 : 약 6천평
• 법당 : 50평
• 요사채 : 100평(신축중)
• 가격 : 가격절충
• 산세 계곡수려, 도로, 토목공사 완료
• 영남지역 대불사 하실분 답사 후 가격 절충

한 국 불 사 (한국 최고의 사찰 컨설팅)
연락처 : 02)6674-3535 / H.P 010-3154-3535
※전국 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급)밀양사찰 얼음골 부근
• 대지: 512평, 건평 100평 법당 뒤 대밭있고
• 대구 부산 고속도로 10분거리 언양 20분거리
• 대지전체 둘레 돌담 황토방처럼 전체 수리되있음
• 2층 법당 1층 요사채 산신각 실내 목욕탕 실외화장실2개 황토집 2채. 옛날 독 100점 포함
• 마을 앞뒤가 틔여서 전망좋음
※ 비구니, 보살님, 노스님 아주 적합
• 가액 : 3억 8천만원
010-5572-1501 / 011-9512-5118

포교원 안내
• 위치: 대구 북구 경대교부근 신축건물
• 평수 : 5층 건물 중 4,5층 사용
• 4층 법당 50평, 요사채 40평 (방4) 5층 스님실 25평(방2)
• 보증금 2000, 월170(전세가) 시설비 답사 후 절충
• 도심포교원 최적지 최고의 구조
011-820-4617

암자안내
• 위치: 옥천 (대전 20분거리)
• 평수: 250평중 100평 등기필
• 법당,산신각 요사채2동 주차장
• 가액: 1억5천만원
011-9405-8186

사찰안내
• 위치: 부산시내(해운대구)
• 대지: 2600평 법당 20평, 요사 30평
• 버스도로1분, 전철5분 도심 속 산사에 있는 사찰
• 가액: 2억6천만원
• 사찰 및 사찰부지 다량확보
사찰전문 부산연산부동산
051)863-6661
011-560-8522

포교원 안내
• 위치: 대구시
• 평수: 110평
• 가액: 보증금 6천만원(전세)
• 넓은 평수에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와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좋은 주변환경
• 전세를 월세로 바꿀 수도 있음
011-436-0097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 사거리
• 평수 : 50평(3층 건물중 3층). 옥상 50평 사용 가능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사 찰 안 내
• 황금알땅 종교부지 (5160평)
• 천하명당 화장터옆 납골당 터 민원없음. 국유지 몇백만평속 시유지한필지
• 관리지역 형질변경완료 토목공사중
• 매가 : 10억 투자자 모심

• 위치 : 경기도 광주 (서울에서 30분)
• 대지 : 290평 건평 110평
• 새건물 통나무기와집 2동, 대웅전 요사채 방10개
• 사찰투자하여 운영하실분 모심
011-9109-3660/011-9004-3613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대명동
• 대지 : 110평
• 건물 : 요사채, 법당 : 45평
• 특징 : 소원불, 800불 모셔져 있음
• 가액 : 3억 5천만원
011-9853-3843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성주군 수륜면
• 대지: 약 106평 (시멘트, 벽돌슬라브)
• 1층: 34평(요사채 방4개) 2층: 16평 법당
• 특징: 주위 경관 양호
• 가액: 9천만(절충가능)
011-506-4219

포교당(급)안내
• 위치: 부산시 사하구 장인동
• 건물 4층 건물 2층 30평
• 법당, 접견실, 공양간 원룸처럼 꾸며져 있음
• 시설 : 고급형 사존불 및 각단에 후불탱화, 지장단, 영가전 에어컨 및 엠프시설 완벽
• 집기일체, 즉시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500/월40만원 시설비 1400만원(절충가)
016-318-0269

토굴겸암자안내
• 위치: 경남 김해 한림면
• 삼존불등 시설완비 텃밭 단감 밭 900평
• 가액: 전세1천만원 월세 무 시설비 별도
011-9237-3079

사찰안내
• 위치: 경남 김해시 소재(장류)
• 부지: 140평 (종교용지)
• 법당: 30평(2층)요사 90평(1,2층)
• 가액: 3억3천9백만원(절충가능)
• 특징: 2개동 건물을 2층으로 신축한 사찰
011-9542-5726

포교당안내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 평수 : 50평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에 월 53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 지장소불 1천불 조성중
010-9390-3324

토굴안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지례면
• 25평, 인법당 정남향 현대식
• 삼존불, 108, 호신불
• 잔듸마당에 5대주차가능
• 가액 : 4천 5백만원
011-832-5074

포교당 안내
• 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2동
• 평수 : 40여평 (3층 건물중 2층)
• 내부시설완비 몸만오시면됨
• 보증금 일천만원에 월 25만원 시설비는 내원후 절충가능
062)433-0365
011-9611-9600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 법당: 20평 요사 2채, 방3개, 주지실
• 낙동강변 숲속
• 가액: 3천5백만원
018-683-3355

포교당안내
• 위치: 인천 서구 가정동
• 50평 옥상사용가능
• 창고2, 방3
• 가액: 보증금 5백만원 월 49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0-9790-176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거창군 웅양면 (일반주택사찰)
• 대지: 150평
• 건물: 30평(건물2동)
• 법당, 삼존불, 각단탱화
• 특징: 사찰내까지 차들어감
• 가액: 6500만원 (융자 2천만원 포함)
019-503-7959

토굴 안내
• 위치: 충남 청양군 대치면 개곡리
• 건물 39평, 심야전기보일러, 철근콘크리트 건물.
• 대지 400평, 전 300평, 임야 2천평 (준농림지 대지로 용도변경 가능함)
• 특징 : 칠갑산의 장곡사 인접지역과 행정복합도시 인접지역.
• 가액 : 2억
011-434-7209

포교당안내
• 위치: 부산 해운대 수비 4거리
• 최고 적지 지하철 1분 107평 옥상에 60여평의 법당
• 가액: 전세 5000만원 시설비 3000만원
011-500-1777

포교당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부근
• 2층, 건물 40평 중 법당 20평
• 시설비 : 300만원
• 가액 : 500만원 35만원
010-4633-48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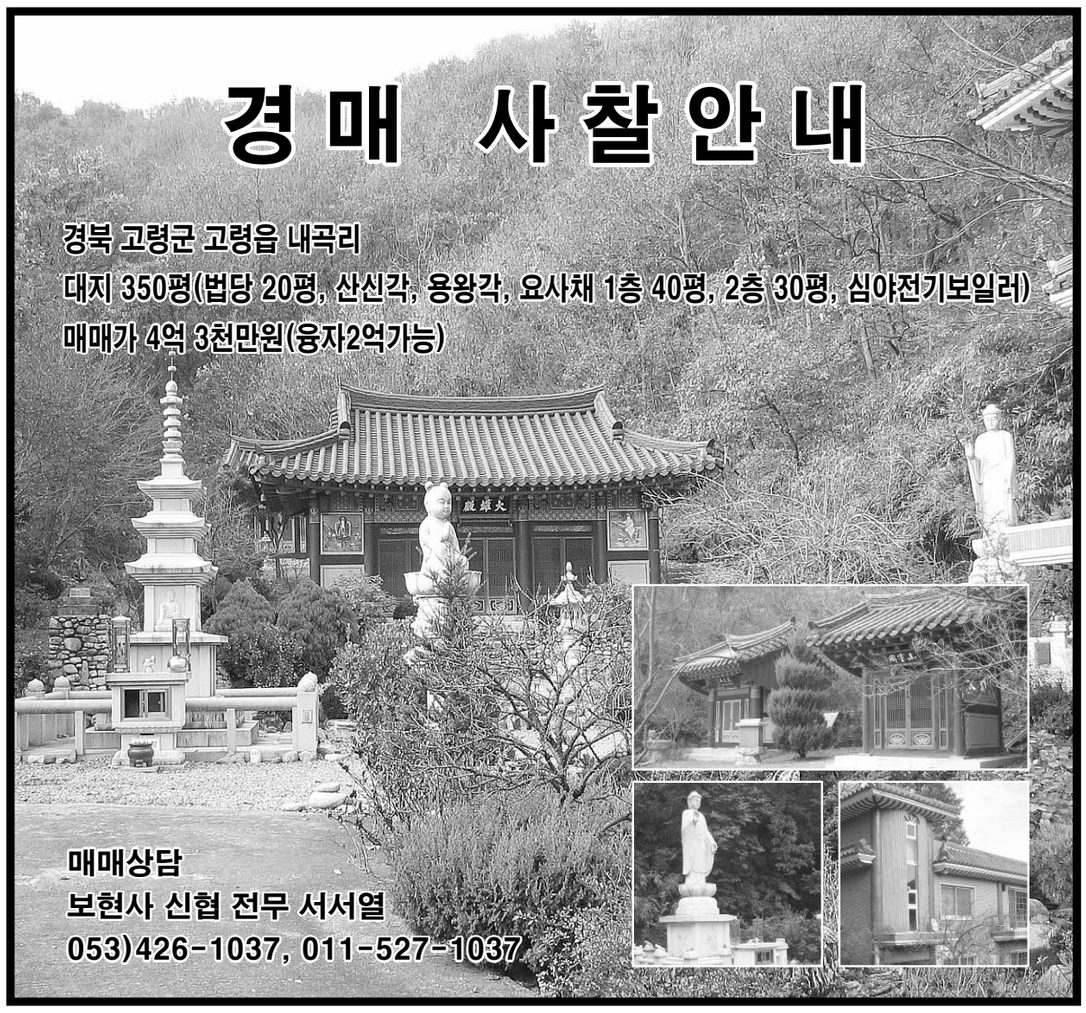
포교당 안내
• 위치 : 일산
• 평수 110평 (7층 중 3층)
• 법당 50평, 요사 60평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에 월 100만원 시설비 : 2,100만원
※ 최상의 포교당으로 사정상 안내함
011-9366-1129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장흥
• 대지 : 350평, 법당 : 20평
• 건물 총5동(약 70평),
• 전체기와, 전체 단청되어 있음, 석탑, 석불.
• 가액 : 답사후 절충(저렴)
016-9660-1348

포교당안내
• 위치: 대구 송현동
• 2층중 2층. 평수 : 75평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에 월 6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 즉시 법회 가능 대형 주차장 있음
011-450-5574

포교원 안내
• 위치: 용인 수지 아파트 촌
• 건평 : 65평(5층 건물중 5층) 옥상사용
• 시설 : 법당, 주방, 방3개, 욕실, 컴퓨터, 주차시설, 소각시설 완비
• 가액 : 보증금 3천만원에 월8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011-803-13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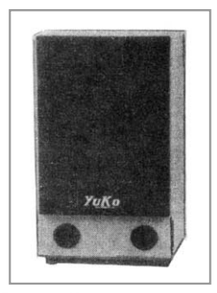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마산시 내서읍
• 대지 : 100평
• 삼존불, 16나한
• 즉시법회 가능
• 법당, 요사채, 주지실 3동
• 가액 : 8,500만원(융자 1천만원 별도)
010-8524-2253



사찰, 법당, 앰프 전문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기문 명리학
(특강 : 수지침, 관상, 풍수, 작명, 택일)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시접수
▶ 지선법사 직강 ◀
(현재 대학과 방송국에서 강의 중)
초단기 전문가 양성 시스템
완벽한 실제 감정 완전정복
(취업 보장)
사단법인 한국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88m
접수 연락처 02)454-3369
011-775-8709 (지선 법사)
지선법사의 운명 특별상담 접수 中
특별강의 : 사주학. 기문둔갑

동국대 불교학 박사 7명 배출

17일 학위 수여식 … 외국인 1명 포함 5명이 스님

2월 17일로 예정된 동국대 2005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에서는 불교학 분야 박사 스님이 대거 배출될 전망이다. 동국대 대학원 발표에 따르면 불교학과 · 선학과 · 인도철학과에서 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총 7편. 이 가운데 5편의 필자가 스님이다.

스님들의 논문 주제는 출가자로서의 위치를 반영하듯 '수행'이 주를 이루고 있다. 승원(중앙승가대수행관장 · 불교학과) 스님의 '지눌의 선수행 체계 연구', 난다라타나(불교학과) 스님의 '위빠사나와 간화선 수행체계 비교 연구', 혜선(선학과) 스님의 '한마음 사상과 선수행 체계 연구' 등 3편의 논문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성운 스님(인도철학과 · 삼천사 주지)의 '아쇼카왕의 복지사상 연구'와 정각 스님(불교학과 · 원각사 주지)의 '한국불교 경전신앙 연구'가 각각 불교사와 응용불교학적 성격을 띠고 있어 스님들의 관심사가 수행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재가자로는 남궁선(불교학과)씨가 '불교 업사상의 생태철학적 연구'로, 김미숙(인도철학과)씨가 '자이나교의 불살생론 연구'로 각각 박사학위를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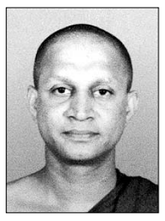
이들 논문은 생태와 생명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성운 스님


정각 스님


승원 스님


혜선 스님


난다라타나 스님


남궁선


김미숙

성운 스님 "아쇼카왕은 불교복지 선구자"

정각 스님 "경전조성 자체를 수행으로 이해 공경"

승원 스님 "지눌 세차례 깨달음 바탕 삼문수행 정립"

혜선 스님 "한마음은 '일심'의 현대적 번역어"

▥ 불교학의 영원한 화두 '수행'

승원 스님은 보조지눌(1158~1210)의 수행체계를 '삼문(三門)'을 중심으로 규명했다. 삼문이란 보조지눌이 수행지도를 위해 세운 과정으로, 성적등지문(惺寂等持門) 원돈신해문(圓頓信解門) 경절문(徑截門)으로 이뤄진다. 승원 스님은 성적등지문과 원돈신해문을 정혜수행으로, 경절문을 간화선 수행으로 이해했다는 점에서 기존 설과 차이를 보인다.

논문에 따르면 삼문의 수행은 △성적등지문과 원돈신해문으로 입문해서 정혜 수행을 닦고, 그 다음에도 남아있는 한계를 없애기 위해 경절문 간화선을 닦는 법 △경절문 간화선을 바로 익혀 활구를 공부하는 방법 등 두 가지 수행법으로 정리된다. 두 가지 수행법은 근기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나, 자신의 수행을 완성하고 이타행원을 닦는 점은 같다.

승원 스님은 "보조지눌이 자신의 세 차례 깨달음을 바탕으로 삼문 수행을 정립했으며, 돈오점수사상 실천을 주 내용으로 삼았다"고 설명하며 "삼문은 지눌의 체험과 사상을 바탕으로 이뤄진 선수행 체계"라고 주장했다.

스리랑카 출신인 난다라타나 스님은 간화선을 위빠사나와 비교한 국내 첫 박사 논문이라는 점에서 시선을 끈다. 특히 "중국 송대 발생한 수행법인 간화선이 부처님의 말씀과 얼마나 관계가 있으며, 간화선의 화두참구로 해탈열반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를 논문의 과제로 삼고 있어 흥미롭기까지 하다.

첫째 질문과 관련해서 난다라타나 스님은 "조사선이 인도 대승불교와 그 경전을 바탕으로 출발했다는 점에서 초기 <아함경> 등 부처님의 근본사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간화선으로 해탈열반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간화선의 목표인 '견성성불(見性成佛)'에서 '성(性)'을 '공성(空性)'으로 이해한다면 위빠사나와 마찬가지로 무아를 뜻하게 된다"며 "열반해탈과 성불은 말만 다를 뿐 그 결과는 사실상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혜선 스님은 한마음선원장 대행 스님의 한마음사상과 선수행 체계를 전통적인 교학과 선에서 논의된 일심(一心)과 견주어 고찰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의 천태종과 화엄종의 교의는 일심론(一心論)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천태와 화엄의 일심론을 수용한 선종 또한 같은 맥락에 있다. 대행 스님의 '한마음'은 불성 또는 진아(眞我)와 같은 의미로서, 전통적인 일심론의 연장선에 있다. 즉 "일체의 근원이 한마음이며 일체는 한마음의 나툼이다. 한마음의 본체와 묘용은 둘이 아니다. 본체로서의 한마음은 공(空)한 것이기에 그로부터 묘용이 일어난다"는 대행 스님의 설명은 일심론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

혜선 스님은 한마음사상을 전통적인 일심론의 현대적 변용으로 이해하며, 그 핵심을 5공(共)에서 찾았다. 5공은 모든 생명체와 함께 하는 삶(共生), 함께하는 마음(共心), 함께하는 작용(共用), 함께하는 근원(共體), 함께 하는 나눔(共食)을 뜻한다.

이 같은 한마음사상에 근거한 대행 스님 수행법의 요체는 주인공(主人空)관법이다. 주인공관법은 "각자가 자신의 근본이며 참나인 주인공을 믿으며, 일체를 그에 맡겨 놓고 오로지 지켜보는 것"으로, △참나를 발견하는 단계 △일체가 둘이 아닌 도리를 알게 되는 단계 △일체 만물 만생과 더불어 나툼을 할 수 있는 단계로 이뤄진다.

▥ 생태 · 생명 · 복지 등 관심 다양

성운 스님과 김미숙씨, 남궁선씨의 논문은 복지 · 생명 · 생태문제 등 현대사회의 문제를 불교적으로 조망했다.

우선 성운 스님은 전륜성왕으로 불리는 인도의 아쇼카왕(BC.268~232)이 추구한 불국정토에서 이상적인 복지사회의 모델을 모색했다. 성운 스님에 따르면 아쇼카왕은 현세와 내세에 있어서 일체 생명체의 이익과 안락을 최고 이념으로 삼았다. 그의 '다르마 정책'은 생명존중사상 · 연기사상 · 평등사상 · 자비사상 · 보시사상 · 관용사상 · 복전사상 등으로 요약된다.

성운 스님은 "아쇼카왕이 전제군주로서 백성 위에 군림하기보다 백성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자로 헌신했다"고 지적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상에 제도화한 그는 '불교복지의 선구자'"라고 강조했다.

김미숙씨의 논문은 불교와 더불어 대표적인 슈라마나 전통에 속하는 자이나교의 핵심교의인 불살생론을 조명했다. 불교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자이나교의 수행론과 철학적 이념 연구는 불교를 비롯한 인도종교 전통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씨는 "자이나교의 사상적 기초가 되는 불살생원리는 인간 중심주의가 아닌 모든 존재의 공존을 이상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 환경론적 관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실천원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남궁선씨는 불교의 업사상을 최근 관심이 고조된 생태철학적 관점에서 재조명했다. 남궁선씨는 현재의 생태파괴를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가 밖으로 표현된 것"으로 설명하며 "생태문제의 근원적인 해법은 마음속 탐진치를 소멸하고 자비심을 확산시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각 스님의 논문은 '경전을 바탕으로 한 신앙연구'가 아닌 '경전 자체에 대한 신앙연구'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논문에 따르면 인도와 중국 등에서 경전은 법사리(法舍利)로 인식돼 신앙의 대상으로 존중됐으며, 한국에서도 법사리 개념이 확산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정각 스님은 "불교가 전반적으로 쇠퇴한 조선시대조차도 <조상경>에 근거한 불복장 납입을 통해 불사리 개념은 존속했다"며 "전 시대를 거쳐 경전 조성 자체를 수행으로 이해하고 공경의 대상으로 삼아왔다"고 주장했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40>

가수 '비'

최근 한국의 가수 '비'가 록 음악의 본거지인 미국의 뉴욕에서 성공적인 공연을 마쳤다. '비'의 독특한 무대 장악 능력과 화려한 춤 솜씨가 아시아인을 넘어서, 미국 사람들에게 통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한류의 서구 진출의 시발점이 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다.

최근 외국, 특히 아시아권을 방문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드라마, 음악, 그리고 첨단 상품에 관심이 높아졌다는 사실에 놀라게 된다. 한국 사람들이 옛 동이족부터 가지고 있던 춤, 노래 솜씨 때문이기도 하고, 최근 놀랍게 성장한 IT,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에 대한 동경이기도 할 것이다. 어떤 사회학자는 한국의 드라마에서 아시아 특유의 따뜻한 가족관계

아시아 넘어 서구로 확산된 한류
행복한 삶 수출하는 나라 꿈꿔보자

를 발견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최근 일고 있는 궁극적인 행복에 대한 관심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100년 간, 인간은 극단적으로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 왔다. 반도체 칩을 기반으로 하는 IT기술, 레이저를 이용한 광섬유를 통한 통신 기술, 그리고 무선 통신 기술은 수많은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최근 생명 공학기술은 생명을 분자 수준에서 이해하고 조작하고 있다. 인간의 장기의 일부를 동물의 장기로 대체하는 것을 지나서, 세포핵에서 생명의 모습을 결정하는 DNA의 일부를 대체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람직하다고 믿는 형질들을 나타내도록 생명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이러스의 DNA를 이식해서 병충해에 강한 토마토를 생산한다든지, 저온에 강한 넙치의 유전자를 토마토에 이식해서 냉해에 강한 토마토를 생산한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생명공학은 행복을 느끼는 물질을 세포간의 전달 물질에서 찾으려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실제로 세로토닌과 같은 물질을 인간에게 주사해서 우울증을 치료하려고 하고 세로토닌을 만들 수 있는 음식을 찾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법이 기아를 해방시키고, 좀더 안전한 생활을 보장해 줄지는 몰라도 궁극적인 행복을 가져다줄 것 같지는 않다.

한발 물러서서 다시 생각해 보자. 지난 50년 간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동안에 첨단 과학기술에 기초한 산업화를 이룩했고, 또 가장 짧은 시간에 인구증가율도 감소시켰다. 필자는 앞으로 수명을 가장 빨리 증가시킨 나라 또한 한국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인구의 고령화가 미치는 사회의 비생산성을 걱정한다. 그러나 필자는 또한 행복지수를 늘임으로써, 외국사람들에게 행복을 가르쳐 주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방법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우주 만물의 존재의 모습을 '고(苦)'로 설명하고, 이를 벗어나는 궁극적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부처님의 말씀을 현대적 모습으로 보존하고 있는 한국의 불교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것이 궁극적인 한류의 모습이 될 것이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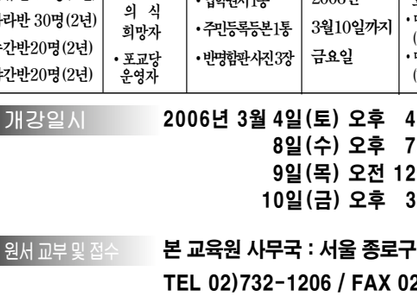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2006학년도 불교지도자 과정 제7기(3년) 신입생 모집
법사과정 불교대학원

과 목	일 시	개설경전	교 수
불교학과 (정규,통신 각30명) 근본불교학과(주간,통신 각20명)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화엄경 , 유식 30송 산스크리트본 금강경	활안스님, 묘주스님 최봉수 교수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강의 일시 및 장소
① 불교대학(정규)이수자 ② 불교교양대학(2년)이수자	① 입학원서 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반명함판 사진 3매 ④ 불교교양대학졸업증 1통 ⑤ 자기소개서 1통	2006년 2월 1일 ~3월 9일(목) [서류전형]	• 매주 월요일, 화요일 오후 7시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3. 개강일시 • 불교학과 : 2006년 3월 6일(월), 7일(화) 오후 7시
• 근본불교학과 : 2006년 3월 9일(목) 오후 4시

4. 졸업자격 3년 과정의 부처님 법음이 가득찬 경전(매주 2강좌)을 이수한 분에게 졸업장을 수여함.

5. 원서 교부 및 접수 본 대학원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8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 dongsanbud.net

2006년도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3년과정)3월 개강 신입생 모집
동산불교대학

※ 동산불교대학은 <불교학과>, <불교한문학과>, <불교다도학과>, <불교장례문화학과>, <불교미술학과>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 불교학과(200명) • 불교다도학과(50명) • 포교사과정 (50명) • 법사과정(30명) • 불교미술학과(30명) • 불교한문학과(50명) • 불교장례문화학과(3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장	2006년 2월 1일 ~3월 6일 입학금 200,000원

전형방법	강의개강일시
서류전형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불교학과정규반) : 2월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불교학과주간반) : 2월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다도학과,포교사과정) : 3월 7일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다도학과, 법사과정) : 3월 13일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장례문화학과) : 3월 7일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미술학과) : 3월 8일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한문학과) : 3월 9일

원서 교부 및 접수 본 연구원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8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 dongsanbud.net

2006학년도 불교의식법사과정(2년) 신입생 모집
불교한글의식교육원

과 정	기간	요 일	법 사	내 용
• 토요정규반	2년	매주 토요일(오후 3시~5시40분)	만춘스님,문종순법사	이론,실기
• 수요야간반	2년	매주 수요일(오후7시 ~ 9시)	양성도, 민병홍법사	실 기
• 목요주간반	2년	매주 목요일(오후12시 ~ 1시40분)	문종순 법사	실 기
• 바 라 반	2년	매주 금요일(오후 3 ~ 5시)	인각스님	실 기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 정규반 30명(2년) • 바라반 30명(2년) • 주간반20명(2년) • 야간반20명(2년)	• 한글불교의 식 희망자 • 포교당 운영자	• 입학원서1통 • 주민등록등본1통 • 반명함판사진3장	2006년 3월10일까지 금요일	• 매주 토요일(정규반) 오후 3:00 ~ 5:40 • 매주 수요일 오후 7:00 (야간반) • 매주 금요일오후 3:00 (바라반)

3. 개강일시 2006년 3월 4일(토) 오후 4시30분(정규반)
8일(수) 오후 7시 (야간반)
9일(목) 오전 12시 (주간반)
10일(금) 오후 3시 (바라반)

4. 원서 교부 및 접수 본 교육원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 dongsanbud.net

5. 특 전 수료자는 불교의식법사 수여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원 · 동산불교대학 · 동산불교의식교육원

일 주 문



재소자 떡국공양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회장 현성 스님은 1월 29일 안양교도소를 방문해 재소자 3500여명에게 떡국을 대중공양했다.



정월대보름 맞이 템플스테이

부산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은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범어사 설법전에서 정월대보름 맞이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취임법회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2월 23일 오후5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취임법회를 봉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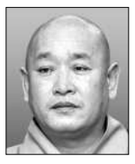
미국 송출기념법회

불교텔레비전 회장 성우 스님은 2월 15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문화공연장에서 미국 실시간 송출기념 대법회를 개최한다.



광덕 스님 7주기 추모법회

서울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은 2월 9일 불광사 보광당에서 불광회를 창립한 광덕 스님 7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불교사회복지연구소 발족식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지현 스님은 2월 23일 오후 1시30분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재단 창립11주년 기념법회 및 불교사회복지연구소 발족식을 봉행한다.



김포불교대학 졸업식

김포불교대학 학장 월우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은 2월 11일 김포 중앙승가대 대강당에서 김포불교대학 졸업식을 개최했다.



불교평화연대 공동대표

천태종 사회부장 무원 스님은 2월 7일 불교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신년하례식에서 불교평화연대 공동대표로 추대됐다.



예비역 장성 모임 '성불회' 회장에

박희도 前 육군참모총장은 2월 9일 서울 충정사에서 열린 예비역 장성 불자모임 성불회(星佛會) 임시총회에서 신임 회장에 추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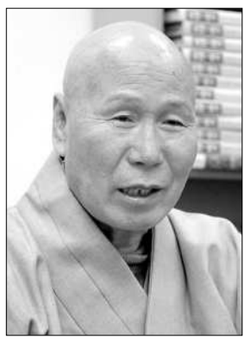
정년퇴임 기념 작품집 봉정식

前 불교여성개발원장 이인자 교수는 2월 17일 오후 6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정년퇴임 기념 작품집 봉정식을 봉행한다. (02)722-2101

"러시아에 한민족 자부심 · 불법 전할 터"

하바로프스키에 한인방송 개국 준비 도수 스님

1970년 '갓바위 부처님' 소유권 조계종 환수 장본인



"러시아 한인 동포들에게도 한국어 방송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또한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불법을 홍포할 수 있는 도량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월 1일 러시아 하바로프스키에서 개국하는 한인 방송국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도수 스님(서울 홍제동 백룡암 • 사진)은 "러시아 한인방송국 개국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불자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러시아 한인방송국은 현재 2005년 5월 발기인대회를 거쳐 2005년 12월 러시아 하바로프스키지역 2개 채널에 송출 계약을 맺고 올해 1월 26일부터 MBC 프로그램을 위성으로 받아 시험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올 5월 1일 본방송이 시작되면 KBS, MBC 프로그램은 물론 자체 편성 뉴스 등 다양한 영상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도수 스님이 활동하고 있는 러시아한인방송지원단이, 러시아에서는 (사)고려문화유산에서 주도적으로 개국 준비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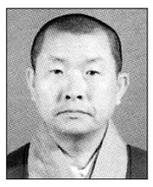
도수 스님은 "불교계 언론 기관들과 연계해 방송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궁극적으로는 현지에 처음으로 한국 사찰을 건립해 불교 포교에 전력하고 싶은 것이 원력"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수 스님은 1965년 대구 팔공산 선본사 주지 시절 '갓바위 부처'로 유명한 관봉석조여래좌상(보물 제431호)의 소유권을 조계종으로 반환 받은 장본인으로 유명하다.

갓바위 부처님은 달성군이 소유하고 있었으나 1965년 보물로 지정되면서 국가 소유로 바뀌었다. 그러나 도수 스님은 1968년 대구지방법원에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 역사적 기록과 현재 갓바위 부처님이 선본사 소유 임야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1970년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수덕사 승가대학장에 응각 스님



예산 수덕사 승가대학장에 前 불국사 승가대학 강주 응각 스님(사진)이 1월 28일자로 임명됐다.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지종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응각 스님은 1971년 백양사에서 서옹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4년 법주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78년 해인사 승가대학을 졸업한 응각 스님은 80년 3월 훈기 스님으로부터 강맥을 이었으며 1999년 은해사 승가대학원을 졸업했다. 1993년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2001년 동화사 교무국장을 역임한 스님은 2002년부터 불국사 승가대학 강주 소임을 맡아왔다.

김두식 기자

"만다라 의상디자인에 접목"

신진디자이너 공모전 은상 받은 강현정 씨



"만다라의 색채와 도상을 보면 아주 귀한 참고서를 읽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만다라를 통해 제 작업의 외연을 넓혀 갈 계획입니다."

최근 현대백화점 신촌점이 주관하는 제2회 신진디자이너 공모전에서 은상을 수상하며 국내 무대 활동을 시작한 불자 디자이너 강현정(29 • 사진)씨. 그녀의 관심은 만다라와 고려불화 그리고 <화엄경>과 <금강경> 등 경전의 세계다. 어려서부터 불교의 영향을 받고 자라온 강씨는 "체계적으로 불교 공부를 할 기회는 없었지만 늘 불화와 불서를 가까이 했다"며 "의상 디자인이란 분야에서 불교를 접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지금 불교 보다 소중한 참고서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 수도여고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의 '샹브르 샨디팔(의상조합)'에서 공부한 뒤 파리에서 활동해 온 강씨는 2003년 세계적인 보석디자인 회사인 스와로브스키가 주관하는 공모전에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당선의 영예를 안았었다. 강씨는 불교정신을 생활의상에 접목시키는 작업에 몰두할 계획이다.

임연태 기자

동국대 대학원서 특강

이어령 박사 '디지로그‥'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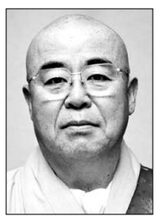
이어령 박사(문학평론가 • 사진)가 2월 22일 오후 1시 동국대 문화관 예술극장에서 '디지로그시대를 앞서가는 한국인'을 주제로 특강을 한다.

이번 특강은 동국대 대학원(학장 서윤길)이 개최하는 2006학년도 제1학기 명사초청특강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동국대 대학원은 대학원생들의 학술 및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지식인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 특강을 실시해오고 있다.

남동우 기자

구해 스님 기능보유자 지정후 첫 강의

옥천범음대 학장 일운 스님 1학년 직강



구해 스님



일운 스님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기능보유자 구해 스님이 보유자 지정 후 처음으로 후학양성을 위해 옥천범음대학에서 수업을 진행한다.

학장 일운 스님(전수교육조교)은 이례적으로 1학년 상주권공과(일용의식)를 전격적으로 맡아 수업에 나선다.

영산재 기능 전수를 위해 영산재보존회가 직접 운영하는 옥천범음대학이 새 단장을 마치고 2006년 전기 신(편)입학생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상주권공과(1학년) 50명, 각배과(2학년) 50명, 영산과(3학년) 50명, 불교무용 · 작법 50명, 불교의식 음악 · 무용 이론 약간명 등이다. 2월 1일~3월 5일 접수를 받아 3월 6일 개강할 예정이다.

졸업자에게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을 받을 수 있는 특전을 제공한다. 성적 우수자 장학금, 국내외 공연시 우선 선발 자격도 부여한다. (02)392-3234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혜안 스님 일획일각 불교서각전



혜안 스님 '일획일각' 전시회가 2월 9일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관장 보경)에서 개막됐다. 18일까지 열리는 전시회에서는 경판, 불교문양, 관세음보살 등이 새겨진 작품 80여 점을 선보인다. 이날 개막식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주한 노르웨이 · 칠레 · 필리핀 대사 등 사부대중 200명이 참석했다.

동산불교대 28기 신입생 입학식



동산불교대학은 2월 4일 동산불교회관에서 불교학과 제28기 신입생 입학식을 열었다. 동산불교대학은 또 3월 7~9일에 불교장례문화학과, 불교미술학과, 불교다도학과, 불교한문학과를 차례로 개강할 예정이다. 동산불교대학은 직장인 불자를 위해 2년 과정으로 운영한다.

연꽃마을 무의탁 노인 떡만두국 공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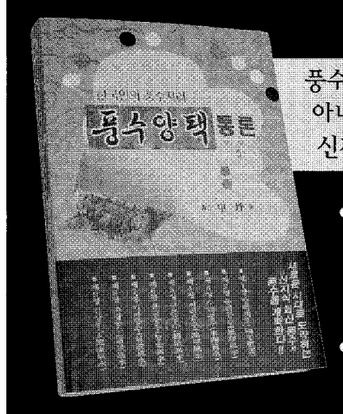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은 1월 31일 마포재가노인복지센터 무료경로식당에서 서울시 마포구 거주 65세 이상 무의탁 결식 어르신 262명을 대상으로 떡만두국 대중공양을 실시했다. 이번 대중공양은 지역사회 독거노인의 심리적 소외감을 해결하기 위해 연꽃마을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이다.

화제의 신간

한국인의 풍수지리

"풍수양택통론"



풍수를 바로 알자. 풍수는 미신이 아니고 신비의 과학이다.
신지식 혁신 풍수를 개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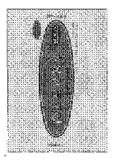
- 전통풍수를 현대학으로 접근코자 하였다. 바람과 물, 그리고 땅이 빚어내는 풍수를 지구과학과 더불어 풀어낸다. 풍수도형을 개발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풍수도형법칙을 세웠다.
- 조경풍수에서 소재를 음양과 오행으로 분류시켜 응용토록 하였으며 분금도형 적용과 조경의 법칙을 제시했다.
- 건강풍수에서 인상풍수를 개발하고 건강수행법을 창안하였으며 개운방법도 일러준다.
- 양택의 구조론에서 적정공간을 수치화하고 공간과 벽 문을 다양하게 논하였으며, 분금비를 적용하였다.
- 풍수분금도형을 개발하여 풍수의 근본 이치를 쉽게 일깨우도록 했으며 또한 분금비가 갖는 이치를 지구와 더불어 설명한다. 분금도형 법칙을 양택의 구조론과 조경에 적용하고 인사의 응용에까지 폭을 넓혀간다.

전국 사찰 판매중

青嵓 申坪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480쪽 / 정가 26,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값 50,000원

송월스님의 개정증보판 드디어 출간!

新사주학 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를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로써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감흥을 밝힐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송월 스님 지음 / 신국판/ 양장본 / 817쪽 / 정가 50,000원

미래 사주학 핵심정리 — 사륙배판/이선종 지음/25,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 4×6배판/이선암, 전호일 공저/25,000원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 신국판/양장본/김성진 지음/30,000원

적천수 형의(上·下) —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40,000원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390-04-150044 조흥은행 예금주(소광호)

출강 통신

법사학인 수강생 모집

한국불교법사대학에서

불교 법사로서 위의와 능력을 갖추어 보십시오.

15년의 역사와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로서
자격을 여법히 갖추시고 포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06학년도 제15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법사가 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①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법위증이 주어집니다.
②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③ 불교이론과 의식실기가 겸비됩니다.
④ 사찰 · 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입학안내 02)720-1836 733-1959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교육방법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 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1부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 (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법사과정 = 2년 (교과목 및 참구수행)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 부산 학습도량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06년 2월 23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우편 · 팩스 접수가능)
◆ 입학문의하시면 모집요강을 우송해 드립니다.

한국불교 법사 총 연합회 부설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번지(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 팩스 02)737-5305



불자 세상보기

허 남 결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교수

마호메트 풍자 만화

지난 해 9월 덴마크의 최대 일간지 <윌란스 포스텐>에 실린 12컷 짜리 마호메트 풍자만화 파문이 급기야 이슬람 세계와 유럽 여러 나라들 간의 문화충돌로 비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거기에는 이슬람의 예언자 마호메트가 심지에 불이 붙은 폭탄 모양의 터번을 두르고 있는 모습도 있고 자살폭탄 공격으로 죽은 순교자들이 천당을 방문하자 이제 더 이상 당신들에게 선물할 처녀들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캐리커처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적 신앙의 대상인 마호메트에 관한 초상이나 사진, 동상 등의 제작을 금지하고 있는 이슬람교도들에겐 대단히 모욕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종교적 금기에 유럽 언론이 표현의 자유를 들어 정면으로 도전한 셈이 되었고, 이것이 전 세계 무슬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표면상 이 사건은 언론의 자유라는 서구적 가치와 이슬람의 종교적 권위가 갈등을 빚고 있는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지만 <문명의 충돌>의 저자 새뮤얼 헌팅턴의 관점을 빌리면 그 이면에는 기독교문명과 이슬람문명 간의 해묵은 감정적 앙금이 도사리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 와중에 우리는 양 측이 서로 자신의 문화적 가치를 보편적인 것으로 확신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한편에서는 특정 종교의 금기사항을 다른 종교인들에게까지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한 번도 만든 적이 없는 예언자 마호메트의 얼굴을 제멋대로 그리고 조롱하는 것은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신성모독이라고 반발한다.

연일 대규모 규탄 집회가 이어지고 아랍국가 내의 유럽 대사관들이 불타는가 하면, 터키에서는 가톨릭 신부가 살해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란은 덴마크와의 통상관계를 중단하는 조치까지 단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표현의 자유가 지나쳤다는 서방 언론의 자성과 함께 무슬림들의 폭력적 시위도 자제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그나마 조금은 안심이 된다.

바티칸의 교황청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종교적 믿음을 손상시킬 권리까지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성명을 냈고, 이슬람권 언론에서도 '우리의 분노를 그런 방식으로 표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며 폭력 자제를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사소한 문화적 인식의 차이가 자칫 종교에 기반을 둔 문명적 충돌로까지 치닫는다면 이는 실로 인류 전체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관용의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우선적인 덕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본다.

여기서 우리 불자들은 새삼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절실히 깨닫게 된다. 내가 알고 있고 옳다고 믿는 것도 따지고 보면 아무런 실체가 없는 텅 빈 것에 불과하다는 깨우침과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인연으로 맺어진 연기의 다발일 뿐 결코 저 혼자 독립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부처님 법은 언제 들어도 진리 그 자체로 와 닿는 것이다.

그런 불교가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가장 큰 특징인 종교적 배타성을 거부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이처럼 불교는 그 본질상 다른 이웃 종교들을 적대시하지 않는다. 불교 또는 불교국가가 자신의 종교적 이념을 상대방에게 전파할 목적으로 전쟁을 일으킨 역사적 전례가 있는가? 단연코 없다고 기억한다. 이것은 실로 불교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도 불교인들은 다시 한 번 종교적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듯 싶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각 종단 복지사업 강화 '환영'

새해 들어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 각 종단이 사회복지사업 강화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배려인 사회복지 수준은 나라의 격(格)을 말하며, 한 사회의 양심수준을 드러내준다는 의미에서 이같은 불교계 움직임은 반가운 일로 받아들여진다.

곧 선진국 문턱을 넘게 된다는 한국이지만 복지문제는 아직 과도기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정부와 함께 복지수준을 높여가야 할 종교계 가운데 불교는 타 종교에 비해 그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러나 해마다 조금씩 개선의 노력을 해 왔고 이제 본격적인 수준향상을 위한 전기를 마련할 때도 되었다.

조계종은 올해 '사회복지진흥법'을 만들어 산하 단체 복지기관들을 종단이 통합관리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산하의 복지시설들을 한데 묶어 체계화하고 시설관리에 효용성을 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복지사업은 관심있는 스님들의 개인적인 활동과 사찰 단위 사업에 머물러 시설미비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했으며 운용에서의 일관성도 결여돼 있었다. 종단의 통합관리는 이런 단점들을 얼마간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못지않게 사회복지 사업을 펴 온 진각종에서는 '진각복지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노인시설과 미혼모시설 등 신규 시설 개원, 시설내 지도스승제 도입과 사회봉사단의 지역별 확충 등을 내세우고 있다.

천태종 역시 6월중 의료봉사 등 기능별 직능별 대규모 자원봉사단을 구성, 전국 사찰 단위로 본격적 봉사 및 복지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불자들의 실천 덕목인 육바라밀 가운데 으뜸이 보시바라밀이다.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복지문제는 그 보시바라밀의 실천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 그동안 교계의 실천 노력 덕분에 이제 복지문제 해결도 한단계 도약할 여건이 무르익었다. 각 종단들이 한층 복지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사업을 펴는 올해, 사부대중 모두가 참여해 높은 성과를 올리기를 바란다.

■김징자(칼럼니스트)

이렇게 들었다 "너나 잘하세요"

'불무관피 작여부작 상자성신 지정부정(不務觀彼 作與不作 常自省身 知正不正)' 다른 사람이 행했는지 행하지 않았는지 알아보려고 애쓰지 말고 항상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올바른지 그른지를 알라. <법구경 심의품>

최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신임장관들의 인사청문회로 나라 안이 시끄러웠다. 미국 의회에서 시작된 청문회가 한국에서는 1988년 11월 5공비리 청문회를 시작으로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 이후 수많은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20년 가까이 지속돼온 청문회 제도가 왠지 국민들의 귀만 어지럽히고 있는 느낌이다.

진실을 조사해 정치적 사회적 과오를 시정하고 정권 고위직 인사의 자질을 검증하는 순기능은 갈수록 퇴색되고 있기 때문이다. 차츰 정치적 공세로 상대에 대한 흠집 내기에만 열중하는 정치권의 정쟁이 반복되는데 대한 실망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일부는 청문절차를 통해 현 공직자들이나 앞으로 공직자가 되려는 사람들 모두 법을 지키고 자기관리를 좀 더 엄격하게 하는 사회적 문화가 만들어지는 긍정적 계기가 되겠지만 현재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한숨과 짜증만을 부를 뿐이다. 국민들을 짜증나게 할 것 같다.

자신에 대한 '돌아 봄'은 소위 '잘 난' 사람일수록 인색한 것 같다. 그래서 <금강경>의 중생이 버려야할 '수자상'에 대한 언급은 더 할 나위 없이 귀한 가르침이다. 불교에서 가장 경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오만함이다. 그러니 <법구경>에서는 다른 사람은 '어떤가'에 신경을 쓰지 말고, 본인이 '어찌하고 있나'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친절한 금자씨는 말했다. "너나 잘하세요."

■조용수(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e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004-8243
(담당: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2006년에도 단기출가 열풍은 계속되고 있다. 오대산 월정사에서 1월 5일~2월 3일까지 열린 올해 첫 단기출가에 동참했던 2명의 소감문을 요약해 싣는다.

절은 한가한 곳이 아니었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의 내 삶은 어찌하면 편하고 재미있냐에 몰두한 것에 다름아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보는 것, 여행하는 것 모두 그랬다.

오대산 월정사에서의 한 달 동안은 몸이 다소 고될지라도 그 가짐을 바로하는 훈련을 계속해 부처님 가르침에 가까이 가고, 그를 통해 해탈하는 기쁨의 단초를 배운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막연히 동경해 온 스님 생활의 일단을 엿본 것이며, 속가에서 바르게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은 시간이기도 하다.

웃되 헤프지 아니하고, 먹되 탐하지 아니하고, 말하되 생각을 거쳐하며, 놀되, 문란하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들을 몸과 머리로 배웠다. '세상이 고달플 때 머리 깎고 들어가면 되지' 하는 안일한 생각도 이번 수련회를 통해 떨쳐 버렸다. 절은 나같이 미욱한 인간이 머무를 한가한 곳이 아니며, 스님들이 아무일 않고 시주나 받는 불로소득자가 아니라는 것, 재가 신도로서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도 배웠다.

이렇게 배우고 깨달은 것만 가지고 올 한해를 산다면 내 한달 동안의 출가는 속세에서도 계속 풍요롭게 이어질 것 같다.

(법조)

목소리부터 달라진 내 생활

월정사에서 회향한 뒤 일상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아직도 단기출가의 흔적이 내 삶 곳곳에서 버젓이 나타나고 있다. 지하철에서, 식당에서, 직장에서 무의식적으로 차수를 하고, 발우공양 하듯 음식을 먹고, 채식만을 고집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습이란게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구나' 하고 새삼 깨달았다.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 인광 스님이 수업 첫머리에 작은 종을 울리며 하신 말씀이 가장 생각난다. "좋은 마음을 가집시다. 좋은 말을 합시다. 좋은 일을 합시다"라는. 오늘 아침도 이말을 되뇌이며 새벽 4시에 일어나 삼배 한뒤,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면서 108배를 했다. 마음이 맑아짐을 느꼈고, 한달동안의 출가 경험이 아직도 내 몸속에 습이 되어 면면히 흐르고 있는 것에 놀랐다.

수련생활이후 나는 크게 변했다. 우선 음성이 완전히 살아났고, 활기차 졌으며, 생활에 활력이 생겨났다. 그리고 오체투지하며 모든 것을 부처님전에 맡기겠다는 나의 서원이 헛되지 않았음에 감사한다.

이제는 내 삶을 사랑하며, 부처님 말씀을 충실히 이행하고 살아갈 것이다. 방황의 고비가 찾아올때는 항상 월정사 단기출가를 생각하면서 말이다.

(귀철)

불교 1번지 조계사 인근 제대로 육성해야

'현대불교' 564호 '불교 1번지 견지동 타운이 뜬다'는 기사를 읽으면서 이 일대에 대한 특성화 필요성을 새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제는 총무원이나 조계사를 중심으로 불교관련 업체나 기타 관련 사무실들이 기계적이 아닌 화학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어떻게 네트워크화 하느냐를 제안해야 한다고 본다.

단지 상업적 개인적 사무실로서만 존재 한다면 아파트형 공장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한 한국불교의 중심지로서 문화 클러스터로 발전하려면 견지동 인근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분야별 등)와 전문가의 연구를 통해 의제를 설정해야한다. 더불어 공청회 등을 열어 심도 깊은 토론과 발전방향이 설정돼야 한다.

또 이번 지방자치 선거에서 서울시장이나 종로구청장 후보에게 조계사 일대를 불교를 근간으로 하는 전통문화의 중심으로 전략적 육성을 요구해야 한다. 지역적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응집시키고 불교의 저력으로 키워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촌농부 (붓다뉴스)





불교는 스승이자 필드 동반자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에게 불교는…

어린시절 불교적 가르침 속 성장
명상통해 내면의 평화 · 안정 추구
평정심 집중력 탁월 '위대한 승부사'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 골프 해설가들은 골프선수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샷을 예측하는 것이 우즈에게는 통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CBS의 골프 해설가 데이비드 페허티는 "우즈를 보면 영화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인조인간이 연상될 정도"라면서 "가끔 내 예측이 완전 빗나가서 망신을 당해 직장을 그만둘 뻔한 적도 있었다"고 말한다.

2003 뷰익 인비테이셔널 대회는 그 대표적인 예다. 마지막 라운드에서 우즈의 샷은 깊은 러프에 빠졌고 그 앞은 큰 나무가 가로막고 있는데다가 200야드 거리의 그린 오른편에 벙커가 있어 어느 누가 보아도 여기서 우즈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러프에서 공을 빼내어 나무 옆으로 올려 그린을 공략하는 방법밖에 없어 보였다.

그러나 우즈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샷을 쳐내면서 직접 그린을 공략했다. 보통은 그런 상황이 닥치면 러프에서 공을 빼내느라 급급할텐데 우즈는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본 후 과감하게 선택했고 이는 전문가들의 찬사를 자아냈다.

불교적 가르침속에서 자라온 우즈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고민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면서 몰입하고 직관을 따른다"고 말한다.

모든 골퍼는 분석적일 수밖에 없으며 우즈도 예외가 아니지만, 샷을 앞두고 그 분석조차도 비울 수 있는 능력은 우즈만의 힘이기도 하다.

타이거 우즈는 "퍼팅을 할 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생각하기보다는 퍼팅을 성공시키는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리며 퍼팅을 할 뿐"이라고 말한다. 이 방법은 쉬워 보여도 훈련을 요하며 자신의 능력, 더 나아가 자신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야만 가능하다.

우즈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제다이 기사들의 포스와 같은 내면의 힘이 자신에게도 있음을 자각하면서 그 힘을 지키고 이용하는 능력을 키워갔다고 한다.

우즈의 아버지 얼 우즈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타이거에게 '진실로부터 나오는 힘'을 이끌어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힘을 끌어낼 수 있어야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치있는 인생을 살 수 있으니까요. 타이거는 자신에게 진실해지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합니다."

필드에 들어서면 내적인 평화를 느낀다는 타이거 우즈.

중요한 경기중에도 어떻게 감정을 철저하게 다스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즈는 "어린 시절부터 명상을 통해서 내면의 평화와 평정심을 취하는 방법을 배웠다.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명상법을 가르쳐 주셨다. 내가 그토록 높은 집중력을 발휘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이유는 그 때 배운 명상때문인 것 같다. 지금 따로 시간을 내어 명상을 하지는 않지만 특별히 생각치 않아도 매일 명상을 하는 셈이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그는 "불교를 좋아하는 이유는 삶과 생활전체를 아우르는 지혜와 방법이 불교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어린 시절부터 우즈에게 불교적 인생관을 심어준 태국인 어머니 티다 우즈는 1997년 일간지 '방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타이거는 샷이 아주 잘못되면 크게 화를 내기도 하지만 곧 그것을 떨쳐버리고 평정을 되찾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평정심과 놀라운 집중력이 우즈를 '골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부사'로 만든 이유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우즈의 정신적 스승인 어머니 티다는 결혼 전 얼 우즈와 첫 데이트 도중 절에 불공을 드리러 가야한다고 했을 정도로 신심 깊은 불자다.

티다 우즈는 타이거가 태어났을 때도 불교식으로 예를 지내며 아기의 탄생을 축복했고 매년 다가오는 생일 때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절에 가서 공양물을 올리고 스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다.

타이거 우즈와 불교. 최근 국내에 출간된 <타이거 우즈 성공철학>(북앤북스刊)에는 불교가 오늘의 우즈를 있게 해준 스승이자 필드 동반자임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인 스포츠 저널리스트 알렉스 트레스니오프스키는 이렇게 말한다.

"우즈가 퍼팅을 하기 위해 그린을 읽는 모습은 참선에 든 스님 모습과 비슷하다"고.

이은희 기자



이병두와 함께 읽는 **오늘의 세계불교**

발렌타인 데이와 청소년

서양 기념일에 요란스런 청소년 비판만 말고
태국서 추진중인 수행 확산 노력 벤치마킹을

해마다 2월이 되면 '발렌타인 데이(St. Valentine's Day)' 선물을 권하는 광고가 곳곳에 넘쳐난다. 우리나라에서 이 날을 요란스럽게 맞이하기 시작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하지만 '서양 것이면 좋은 것'이라는 시대 풍조에다, 일년에 몇 차례 '무슨 무슨 데이 특수(特需)'를 노리는 사업가들의 판촉 활동 때문에 청소년들에게는 짧은 기간에 '가장 중요한 명절'이 되어 버렸다.

대개 '얄팍한 상혼(商魂)'을 거론하며 이런 풍조의 책임을 상인들에게 떠넘기지만, '이익이 생기는 일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자본주의의 기본 속성을 이해한다면 상인들만 비판할 수도 없다.

되돌아보면, 내 자신도 청소년 관련 일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발렌타인 데이와 화이트 데이 때문에 요란스러운 광경을 보면 "저런 미친 짓"이라며 욕을 하기만 했다. 그러나 청소년 사업에 종사하게 되면서 '청소년의 시각에 맞추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한 때의 문화 현상'으로 편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 동안 청소년 관련 단체나 언론 등에서 "초콜릿 대신 책을 선물하자", "칠석(음력 7월 7일)을 청소년 축제의 날로 하자" 등등의 제안을 내놓고 도심에서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지만, TV 뉴스에 비치는 정도의 일회성 홍보 효과에 머물고 실제 효과를 거두며 지속된 적은 없다.

'발렌타인 데이'나 '화이트 데이' 같은 날에 대한 어른들의 시각은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서 비슷한 것 같다.

2월 1일 태국통신(Thai News Agency; TNA) 보도에 따르면, 태국 종교성의 프리챠 칸티야(Preecha Kanthiya) 국장이 "마카 부차 데이(Makha Bucha Day)에 전국의 사찰에서 학생들이 불교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청소년들 사이에서 주류문화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발렌타인 데이로부터 그들의 관심을 돌리게 하라"고 전국의 학교에 요청하였다고 한다.

이런 방침에 따라 종교성에서는 "2월 13일에서 15일 사이에 학생들이 스님의 법문을 듣게 하는 등의 종교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역 내 학교와 협력하라"고 전국의 문화 담당 공무원들에 요청했다.

마카 부차 데이는 세존께서 제자들에게 '근본 가르침(Ovadha Patimakkha)'을 설하신 날을 기념하는 태국 불교의 명절로, 태국 역법으로 음력 3월 보름날에 열리는데, 올해는 이 날이 발렌타인 데이 하루 전인 2월 13일이다.

태국 종교성은 이 정책을 통해 발렌타인 데이에 대한 젊은 세대의 열광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태국 정부의 이런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런 시도를 한국 불교계에서도 벤치마킹(benchmarking)해볼 만하지 않을까? 태국의 정책이 성공을 거둔다고 해도 그들의 현실이 우리와 크게 다르니 동일한 방식을 쓸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통문화를 청소년들에게 심어주고, 이를 통해 인성을 계발하려는 노력 그 자체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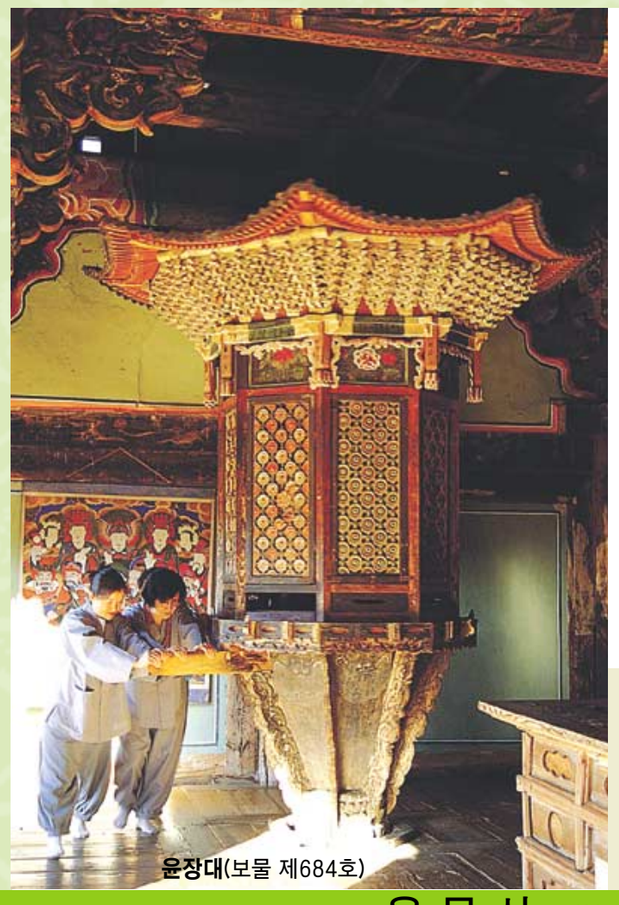
생각해보자. 우리는 그동안 "서양 문물에 무분별하게 물들었다"며 젊은이들을 탓하거나 아예 눈길도 주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

"요즘 아이들은 안 된다"며 미리 포기하지 말자. 심각한 고민을 한다면 '우리의 답'이 나온다. 그들을 포기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마당을 펼쳐주고 마음껏 젊음을 발산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벤치마킹은 기업 경영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불법(佛法)의 가르침으로 청소년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여, 그들이 도덕적 · 영적(靈的)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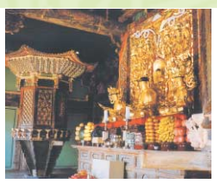
프리챠 칸티야 국장의 이 말은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 자유기고가

용문사 윤장대 윤전으로 모든 액을 소멸하자!



윤장대(보물 제684호)


용문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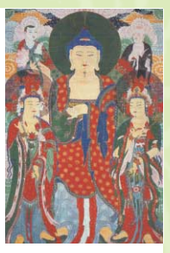

용문사 윤장대(보물 제684호)


용문사 교지(보물 제729호)


용문사 천불전


목각좌상 및 목각탱(보물 제989호)


용문사 만등불사


영산회 괘불탱(보물 제1445호)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윤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윤장대를 돌려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자

소백산 용문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천년고찰로서 한국불교 중흥과 호국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 및 대장전, 목각탱 · 목각 삼존불, 세조의 교지, 괘불탱, 팔상탱 등 약 315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호국을 기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윤장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이 땅의 수많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시는 자비롭고 영험하신 부처님 말씀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심각한 경제난과 사회 불안으로 점점 살기가 힘듭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건강을 기원하시는 분, 그리고 집안에 수험생이 있는 분, 새로 이사하는 분들 모두 윤장대를 돌리시어 업장소멸 하시고 사업성취, 병자쾌차, 학업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용문사에서는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전용 저수지가 있으며, 삼사순례를 할 수 있는 대승사, 김용사, 부석사, 청량사, 봉정사, 명봉사 등 전통있는 사찰들이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방생과 삼사순례로 한량없는 공덕 쌓으시고, 윤장대를 돌리시어 각자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바라는 바 모든소원을 성취하시길 다시한번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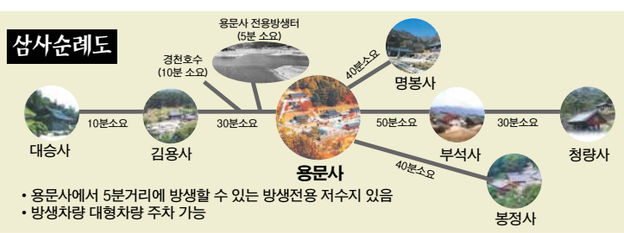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주지 벽담 청안 합장

용문사 오시는 길

버 스 : 동서울터미널 출발(06:10~6:30, 30분 간격) 3시간 소요 ⇒ 예천 하차 ⇒ 택시(용문사)20분
승용차(서울) : ①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② 영동고속도로 ⇒ 여주JC ⇒ 중부내륙고속도로(충주김천방향) ⇒ 점촌 · 함창IC
승용차(부산) : 경부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승용차(대구) : 중앙고속도로 ⇒ 안동 ⇒ 예천IC



삼사순례도



• 용문사에서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방생전용 저수지 있음
• 방생차량 대형차량 주차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 문 사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2리 391 (우)757-800 / 전화 : 054)655-1011, 011-336-4665 / 전송 : 054)655-8405 / www.yongmoonsa.com

아·름·다·운 삶·사람

/category/bosal.asp



서울 국제갤러리 2층 전시실에 가득 찬 작품 '소실점' 앞에 선 임충섭 화백. 이 작품은 황병기 교수(이화여대)의 가야금 산조가 들려오는 가운데 동양적 베틀의 정서를 드러낸다.

근본을 좇는 자유인

재미 설치미술가 임충섭 화백

2월 19일까지 서울 국제갤러리서 초대전
도미 후 30여 년 간 불교 주제 작품 제작
"예술은 자유입니다 해탈이자 견성이죠"
새로운 미디어로 불교 표현하는 것이 꿈



부처귀



결가부좌



분수



쌀

산문밖의 禪

충북 진천 한 마을에서 살고 있는 동네가 이 세상 전부인줄 알았던 아홉 살 아이. 아이에게 동네 어귀에 있는 우물은 유일한 모험의 장이었다. '밤마다 우물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는 소문은 밤 12시마다 아이를 탐험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두려움으로 첫발조차 내딛지 못하고 실패하기를 네 차례. 휘영청 보름달이 뜬 어느 밤 다섯 번째 탐험에 나선 아이는 달빛을 의지해 우물을 찾아갔다. 그렇게 찾아간 우물에는 두려워했던 아기의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고 달빛을 받은 아이의 얼굴만이 잔잔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아홉 살 아이가 또 다른 세상과 만났던 우물. 그 우물은 이제 예순 다섯 살 임충섭 화백의 작품으로 모습을 바꿔 세상과 소통한다. 우리나라보다 미국에서 더 많이 알려진 재미 설치미술가 임충섭 화백은 작품 속에서 어린 시절을 회상한다.

"그때 우물 속에서 바라본 얼굴은 내 얼굴이면서 동시에 소문 속 아기의 모습이었겠죠. 돌이켜보면 두려움의 근본을 좇고자 했던 그 행위는 내 내면에서 소용돌이치던 불교일 겁니다. 어린 시절의 이런 경험이 내 예술세계에서 하나의 양식이 되고 영양분이 됐다는 것을 이 나이가 되니까 절감합니다."

현대미술을 '마음 그림'이라고 말하는 임 화백은 "looking and drawing(보고 그리기)이 아닌 thinking and drawing(생각하고 그리기)이 맞다"며 현대미술을 정의한다. 그래서 그에겐 사유가 곧 작품이요, 작품이 곧 수행이다.

서울 삼청동 국제갤러리에서 2월 19일까지 열리는 초대전에서도 그의 수행정신을 엿볼 수 있다. 이번 전시에 선보인 작품 중에서 임 화백이 가장 불교적이라고 말하는 작품은 '부처귀'도 '결가부좌'도 아닌 '채식주의자(vegetarian)'다.

"'채식주의자'를 작업할 때는 두 달 동안 레진(resin;알코올 · 에테르에 녹는 천연수지의 일종)을 액체로 녹여 매일 아침 불공드리듯 조금씩 떨어뜨려가며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든 채식주의자는 스님의 모습이자 채식을 실천하는 불자의 모습이기도 하죠."

'부처귀'는 하얀 벽면에 하늘거리는 그림자까지 작품의 영역이다. '부처귀'와 나란히 놓인 '결가부좌'는 참선하는 임 화백의 손과 발이자 부처님이 결가부좌를 틀고 수행하는 모습이다.

손과 발만 하얗게 표현된 '결가부좌'에서 몸이 빠진 것은 동양화가 추구하는 여백의 미를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임 화백의 설명이 뒤따른다.

"우리는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 부처이고 쌀도 그 자체가 부처와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불교의 사상을 쌀이라는 소재로 표현했다"고 작품 '쌀'을 소개한 임 화백은 그래서 '쌀'은 바로 '쌀부처'라고 말한다.

나무 창호지 천연수지 등으로 작업해 온 임 화백에게 실을 중심 소재로 작업한 '소실점은 "내 작업 속에서의 다른 재료의 선택(difference media choice)"이었다.

서울대학교 미술학과에서 서양화 그것도 유화를 전공한 임 화백은 1973년 도미해 사각 캔버스의 감옥에서 과감한 탈옥을 실행한다. 그에게 설치미술은 사각에 갇혀 고통스러웠던 자신을 해탈시키는 작업이었다. "예술은 자유입니다. 불교도 자유로운 종교 아닙니까. 제가 추구하는 자유는 곧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자 견성(見性)입니다."

임 화백은 '견성'이라는 단어를 매우 좋아한다. 그에게 견성은 현실종교의 모토가 되는 말이자 자신이 추구하는 시각예술처럼 언어학적 구조를 가진 간단하면서도 불교에 미칠 수밖에 없게 하는 화두이다.

원래 임 화백의 종교는 가톨릭이었다. 그러나 도미 후 지난 30여 년 간 미국 평단은 그의 작품을 불교적이라고 평가했다.

"내안의 무엇이 불교적으로 보이는 것일까 고민하면서 달라이 라마의 법문도 듣고 불교서적들도 탐독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의 세계에 빠져들었죠."

임 화백은 작품 하는 과정을 스님이 목탁을 치며 기도하는 것에 비유한다. 그만큼 절실하고 치열하기 때문이다. 근본을 잊지 않으려고 꾸준히 불교서적도 많이 봤다. 임 화백은 자신의 이런 생활 방식을 "가장 게으른 내 신행의 편린이어서 부끄럽다"고 고백한다.

"부르주아적이고 화려한 멋쟁이 신발이 아니라 거지발싸개 같은 것을 그리는 게 예술 아니겠습니까?"라고 반문하는 임충섭 화백은 요즘 요가를 하며 육체와 정신의 건강을 챙긴다.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다.

"부처님의 가피로 조금 더 생을 이어간다면 다시 사각의 캔버스로 돌아가서 떠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반추하고 싶습니다. 생의 기점에서 나를 재발견하고 싶고,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해 불교적인 단순미를 표현하는 것으로 생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싶습니다."

글= 강지연 기자 · 사진= 박재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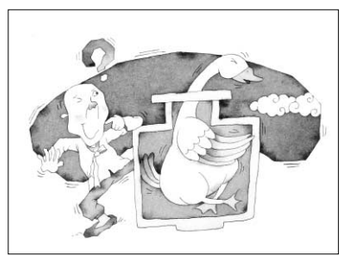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55> 병속의 새

김성동의 소설〈만다라〉는 베스트셀러일뿐 아니라 영화까지 만들어져 대박을 터뜨렸다. 그리하여 많은 이들에게 그 때(1970년대)까지 생소한 개념이던 화두를 '병속의 새'라는 표현을 빌려 대중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 공안 하나로 소설 한 편을 만들었으니 가장 긴 착어(着語:해설)라고 하겠다. 그것도 모자라 시청각교재(영화)까지 남의 손을 빌려 만들도록 했으니 공안집으로서 안이비설신의를 모두 만족시킨 불후의 해설서가 된 셈이다.

이 공안은 남전선사와 육긍대부의 선문답에서 기원한다. 육긍대부는 남전산이 소재한 지양(池陽)땅의 행정책임자인 태수 신분으로 자주 남전선사를 찾아뵈었다. 어느 날 '병속의 새'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다가 안목이 열리게 된다. 원문은 새가 아니라 거위이다.



"옛날에 이 병속에다가 거위를 한 마리 길렀는데, 점점 자라 나오지 못하게 됐다. 병을 깨뜨릴 수도 없고 거위를 죽일 수도 없으니 어떻게 해야 꺼낼 수 있겠는가?"

유리병 속에 든 거위를 어떻게 해야 거위와 병 모두 상처를 입히지 않고 꺼낼 수가 있을까? 진퇴양난이라고 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으며, 이렇게 해도 안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라 하겠다.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정치현장에서 모든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들이 저마다 각자의 목소리를 돋우면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적인 의사표시를 통해 행정관청을 압박해올 때마다 태수는 이 화두를 떠올렸을 것 같다. 저절로 참구가 되었을 것이다. 관리는 관리에게 맞는 공안이 있음을 알게 해준다.

그런 육긍대부였기에 어느 날 남전선사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

"저희 집에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어떤 때는 앉고 어떤 때는 눕습니다. 불상을 새기고자 하는데 되겠습니까?"

와불과 입불 모두 조성이 가능한 큰 바위였던 모양이다.

"그렇게 하시죠."

불상을 새겨도 좋다는 말 같은데 긴가민가 하는 표정이 아무래도 '접대성 발언'으로 느꼈던 모양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대로 물었다.

"불상을 새기면 안 되겠지요?"

"안 되겠습니다."

"???"

아니 불상을 새겨도 좋고 새기지 않아도 좋다고 한다. 도대체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알쏭달쏭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선지식이라면 일도양단해야 하거늘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다. 또 딜레마다.

염일방일(拈一放一)이라고 했든가? 하지만 하나를 얻으려면 다른 하나를 놓아야 하는게 세상이치다.

예전에 원숭이를 잡을 때 이렇게 했다고 한다. 목이 잘록한 유리 병 속에 울긋불긋한 사탕을 넣고서 그들이 다니는 숲 길목에 두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새끼 원숭이가 쪼르르 달려와 병속에 손을 넣고서 사탕을 쥐게 된다. 손을 폈을 때와는 달리 주먹을 쥔 손은 병의 좁은 목을 빠져나올 수 없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드디어 멀리서 덫을 놓은 사람들이 나타났다. 목숨이냐? 사탕이냐? 목숨을 구하려면 사탕을 놓아야 하고 사탕을 얻으려면 목숨을 버려야 한다. 그런데 어린 원숭이로서는 그 판단이 쉽지 않다. 사탕을 버리기가 아깝기 때문이다. 모든 걸 다 취하려고 하다가는 모든 걸 잃기 마련이다. 출세간적 화두해결은 그보다도 더하다. 거위도 병도 사탕도 심지어 목숨까지 버리고서 일체의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모든 걸 제대로 볼 수 있는 정안(正眼)이 열리는 법이다. 그래야 진짜 살길이 생긴다.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모든 걸 다 취하려 하다간 모두 잃기 마련
일체 선입견 벗어나야 제대로 볼 수 있는 법

'염불위빠사나' 아세요?

태국 아짠 차 선사가 주창한 수행법… 붓다의 주격인 '붓도' 염불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니 '마음챙김'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자연히 집중력은 현저히 떨어졌고, 알아차림은 '뚝! 뚝!' 끊겼다. 그러다 염불위빠사나를 해보니, 수행의 힘이 생겼다. 그간 생각조차 못했던 미세한 의식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찰나의 생멸을 꿰뚫어 보게 됐다. 일상사 속에서도 '알아차림'의 집중력은 커져만 갔다."

전경지(50 · 경북 경주)

"'붓도' 염불은 현상들의 미세한 일어남과 사라짐 틈새에서 알아차림을 더욱 생생하게 했다. 생활 속에서 고통을 느낄 때마다 '그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 찾아보는 버릇이 붙게 됐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끈질긴 망상이 일어날 때도 '붓도' 염불은 효과적이었다. '당신도 여래십호를 갖춘 붓다입니다'라고 염불하니, 망상이 쉽게 사라졌다.

이애형(51 · 천안)

● 끊임없는 마음챙김…집중력 증대 효과 탁월

'염불위빠사나'. 일반인은 물론 불교 수행자들에게 낯선 수행법이다. 지난 2004년 김열권 법사(사진)가 국내에 처음 소개하면서 불자들의 관심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현재 상주 남장사 토굴에서 정진 중인 김법사는 먼저 '염불위빠사나'에 대해 소개했다.

"태국 고승 아짠 차(Phra Ajahn Chah, 1918~1991) 선사가 개발한 수행법입니다. 태국의 수행자 70%이상이 염불위빠사나를 하고 있지요. 이 수행법은 팔리어로 붓다의 주격인 '붓도(Buddho)'를 염불합니다. 자나 깨나 '붓도'를 염불하면, 관찰대상인 몸과 마음 · 느낌 · 법 등의 사념처(四念處)를 제대로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죠. 붓다에 대한 끊임없는 마음챙김이 염불위빠사나의 핵심인 셈입니다."

김 법사는 '붓도' 염불이 염불위빠사나의 기초가 된다고 강조했다. 잘나잘나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끈질기게 관찰하면서, 미세한 몸과 마음의 흐름과 변화를 짚어내기 때문이다. 쉴 새 없이 이어지는 매순간의 변화를 '붓도' 염불로 집중하는 것이다.

김 법사는 "염불위빠사나는 집중력 증대에 뛰어난 효과를 지닌 염불수행(佛隨念)과 수행단계가 잘 밝혀져 있는 위빠사나의 장점을 접맥시킨 탁월한 수행법"이라며 "현재 태국 수행자의 대다수가 실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수영과 보트' VS '위빠사나와 염불'

염불위빠사나가 중요한 까닭은 무엇일까? 김 법사는 '사마타'와 '위빠사나'의 단점부터 말했다. 먼저 사마타(정신집중 · 止)는 깨달음까지 이르는 연결고리가 취약하며, 위빠사나(알아차림 · 觀)는 수행자 근기에 따라 집중력 배양이 더디다고 평가했다.

"염불위빠사나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마타적인 염불을 병행한 염불위빠사나 수행은 집중력이 부족한 현대인들에게 도움을 주죠. 사마타 수행에는 40가지 주제가 있는데, 염불이 우리나라 수행자들에게 잘 맞습니다. 수영에 능숙한 사람은 홀로 강을 헤엄쳐 건널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보트가 필요하죠.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위빠사나만을, 보트 탈 사람은 염불(사마타)와 위빠사나를 병행해야 하죠. 염불이 보트인 셈입니다."

김 법사는 무엇보다도 염불위빠사나가 수행자들에게 신심을 길러주고, '내 마음이 부처'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한다고 강조했다. 염불위빠사나가 '내 마음이 부처 자리에 있고, 부처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이다.



망상 일면 즉각 알아차리고
더 빠르고 크게 '붓도' 염불하며
망상의 원인 살펴 마음집중

● '실상염불'이 염불위빠사나의 완성

그럼, 염불위빠사나는 기존의 염불과 위빠사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부처님은 의식의 흐름을 못 보면, 못 깨닫는다고 했습니다. 위빠사나는 흐름의 생멸을 알아차리는 수행법이고, 염불은 그 흐름에 집중하는 수행입니다."

김 법사는 이어 염불위빠사나와 염불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염불에는 칭명(稱名: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염불), 관상(觀想:부처님의 공덕과 모습을 관하는 염불), 실상(實相:본래불성을 깨닫는 염불) 등이 있습니다. 먼저 타력적인 칭명염불은 수행의 입장에서 보면 사마타적입니다. 관상염불은 위빠사나적이고, 실상염불은 깨치고 나서 하는 것으로 위빠사나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회청반조(回聽反照)'의 '붓도' 염불

염불위빠사나의 핵심인 '붓도' 염불. 어떻게 하는 것일까? 우선 김 법사는 '붓도'를 입으로 소리 내어 염불하고, 그 소리를 자신의 귀로 들을 것을 주문했다. 다분히 〈능엄경〉의 '이근원통(耳根圓通)' 원리를 닮았다.

"'붓도' 소리가 '귀뿌리'(耳根)와 부딪치면 소리를 듣는 '귀의 의식'(耳識)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감각, 소리의 크기, 길이 등의 특징과 마음의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순간, 곧장 관찰해야 합니다."

'붓도' 염불을 할 때 망상이 일어나면, 즉각 망상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그리고 이후 망상에 신경 쓰지 말고 '붓도'를 더 빠르게, 크게 소리 내어 염불하든가 마음속으로 염불을 해 망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살펴봐야 한다. 또 망상을 일으키는 마음과 '붓도'를 염불하는 마음을 동시에 관찰해 어느 쪽이 강한지, 둘 사이의 공통점은 무엇인지도 살펴야 하고, 그 다음에 '붓도'를 염불하는 마음 쪽으로 집중시켜야 한다.

● 일상에서 잘 할 수 있는 법?

김 법사는 '붓도' 염불법 5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입으로 '붓도' 소리 내어 귀로 들으면서 하는 방법이외 △소리 내어 외든, 마음속으로 염불하든 '붓도'를 일으키는 마음 보기 △'붓도' 염불하면서 호흡을 관찰하거나 경행하기 △경행 시 발의 감촉과 이와 연계된 느낌, 인식, 반응 보기 △앞의 3가지 방법을 통한 감정과 마음상태의 변화를 관하기 △'붓도' 염불하면서 여래십호(부처님의 10가지 이름) 하나하나 떠올리며 공덕을 찬탄하기 등을 설명했다.

'붓도' 대신 다른 명호를 염불해도 무관하다. '붓도' 대신 '아미타불'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옴마니반메훔' 등을 염불해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염송하는 자체가 정신집중의 수행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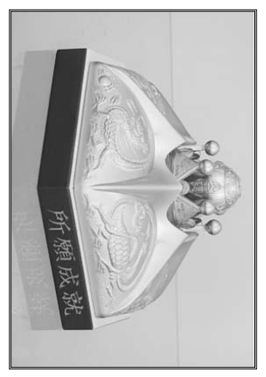
글 · 사진=김철우 기자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법인) 어린이집 원장 모집 공고
어린이집을 운영하실 원장님을 모십니다
채용인원 및 근무지
● 인원 : 1명 ● 근무지 : 서울 강남 지역
응시자격
● 아동관련학과를 전공하고 해당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만 35세 ~ 50세 미만인 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한 스님이나 재가자
● 보육시설 시설장의 자격을 구비한 자
전형방법
●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접
제출서류 및 서류전형
● 제출시기 : 2006년 3월 11일(토)까지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이력서(명함판 사진 부착), 자기소개서(A4 3매 내외)
최종학력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주민등록증,
신행증명서, 수계증사본 등
● 제 출 처 : (우) 100~716,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봉은사
● 전형시기 :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면접일정 개별 통보
문의사항
02) 3218-4813 / 3218-4821
기 타
● 자기소개서는 가족사항, 성장배경, 주요경력, 자격들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당뇨병 희소식 !!
당뇨로 고생하시는분 고통에서 벗어나십시오

본 사찰에서
극비리 전해 내려오는
비법과 본인이 기도로
얻은 비방으로 당뇨를
해결해 드립니다.
1. 당뇨수치 높은 분
2. 합병증으로 고생 하시는 분
3. 발병한지 오래되고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되시는 분.
4. 당뇨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있는 분
대한불교 해월정사
경남 마산시 성호동 73-4번지
전 화 : 055)241-0374
휴대폰 : 011-833-0374
※ 남여 행자 모집합니다.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 육氣방

◆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변하여 하시는 일들이 잘됩니다.
◆ 관재나 삼재에 시달리신분.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는분.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는분. 사주가 안좋으신
분들은 명당육氣방 가묘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강한 명당을 만들어 주면 새 운으로 변하여 좋아지게 됩니다.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氣가 살아나면서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 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같들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덩어리 복덩어리 황금덩어리 氣가막힌 복이들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상담 이상의 상담!

고민 풀고 신심 쌓고

신행상담실 이용해 보세요



"신행상담으로 스트레스도 풀고, 신행 정보도 얻어가세요." 불자들의 사랑방, 고민 해결방 역할을 하고 있는 신행상담실. 사진은 조계사 신행상담실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

요즘 사찰을 찾으면 '신행상담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무엇을 하는 곳일까.

신행상담실은 말 그대로 교리공부, 기도, 생활수행, (불자)단체가입 등 신행활동 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곳이다.

그렇다고 단순히 '신행상담'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오는 고민을 어루만지고 치유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하는 것도 신행상담의 범주다. 불자들의 '힘든 살림살이'도 따지고 보면 신행의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불자 가정주부 최영희(가명 · 45 · 부산 괴정동)씨. '시어머니 기피증'에 걸려 있던 최씨는 기도나 해볼 심산으로 한 사찰을 찾았다. 그러다 우연히 발견한 신행상담실의 문을 두드렸다. 이후 최씨는 "신행상담실에서 조언을 해줘서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많이 호전됐다"면서 주위의 다른 불자들에게도 고민이 있을 때 신행상담실을 찾으라고 권하고 있다. 신행상담실이 재가자들의 신앙고민은 물론 생활고민까지 해결하는 '특효약'이 되고 있는 것이다.

왜 신행상담이 초보 불자는 물론 재가자들에게 중요할까?

직장인 박 과장의 사례를 들어보자.

박형식 과장(가명 · 36 · 서울 종로구 적산동)은 별명이 '투덜이'였다. 박 과장의 눈에는 직장 상사건 부하건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아서다. 그러다 우연히 박 과장은 조계사 신행상담실의 문을 두드렸다.

박 과장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것'을 주문하는 상담자의 조언에 귀가 솔깃했다. 곧장 박과장은 직장 동료들을 대할 때마다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한결같은 태도를 보이기 위해 노력했다. 100일 후, 다시 신행상담실을 찾은 박 과장의 얼굴에서는 '먹구름'이 걷혀있었다. 신행상담이 박 과장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었다.

조계사 신행상담실 윤자명(56) 총무는 "신행상담은 '신행 패턴'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기본"이라며 "상담 받는 동안 내담자가 생각을 정리하기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 후 불자로서의 마음가짐을 곧추세우는데도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신행상담은 주로 △불자로서 겪는 신행의 궁금증 △가족간 갈등 △직장에서 부딪치는 인간관계 등 다양하다. 조계사 신행상담실에서는 내담자와 전화상담을 포함, 하루 약 120여 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 고부갈등, 자녀 학업문제 등을 상담하는 가정고민이 전체의 80%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신행상담을 어떻게 받아야할까? 전문가들은 "불교상담교육을 받은 상담원이 있는 곳에서 신행상담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한다. 조계사와 불광사, 포교사단 상담팀 등과 같이 지속적인 상담원의 교육 · 재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상담실이 믿을 만하다.

신행상담을 받는 불자들의 자세도 중요하다. '자비의 전화'에서 상담봉사를 펼치고 있는 조계종 포교사단 이남숙 포교사는 "아직도 불자들이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무조건 기도를 통해 해결할 것이 아니라 신행상담에서 제시되는 방법들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상담에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신행활동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신행상담실이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찰간의 연계 및 불교상담 인프라 구축, 출가자들의 참여 등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 4명의 스님들이 신행상담 일선에 포진하고 있는 대구 법왕사(주지 실상) 신행상담실의 경우 스님들이 직접 신도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고, 신행방법을 제시하면서 사찰에 대한 신도들의 신뢰도가 높아진 좋은 사례다.

제천 무량선원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무상 스님은 "현재 사이버 신행상담 등의 영역까지 개척됐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 불자들의 참여가 적은 편"이라며 "사찰에서 신행상담실을 전면에 배치, 신도들이 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글 · 사진=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신행상담은 이곳에서

사찰상담	
능인선원 복지상담실	(02)577-5800
동산반야회 신앙상담실	(02)722-0108
불광사바라밀상담실	(02)422-6065
봉은사 봉은상담실	(02)516-5651
조계사 천수천안의전화	(02)720-7096
관음사 불교상담	(053)474-0108
법왕사 신행상담실	(053)766-3748
원각사 상담실	(062)223-3168
무량선원 상담센터	(043)646-3023
전화상담	
대불련 상담전화	(02)723-5850
마음의전화	(02)747-5787
본각사 나눔의전화	(02)654-0872
자비의전화	(02)737-7378
대구 마음의전화	(053)625-2486
대구 자비의전화	(053)753-9736
맑고향기로운전화	(062)266-0410
포교사단 상담팀	
총괄관리팀	(02)737-7588

일터가 도량입니다

"틈틈이 경전 읽고 욕심 줄여요"

퍼니처마트 차은산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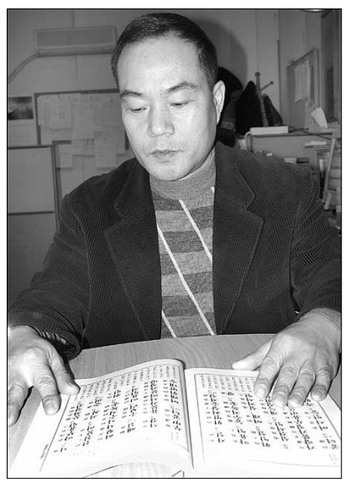
서울 문래동의 한 웨딩홀 지하 주차장. 중고 사무가구들이 두 쪽 벽면에 가득 쌓여있다. 그곳에서 꼼꼼하게 거래처에 배달할 물품을 챙기는 손놀림이 바쁘다. 그 손의 주인공은 퍼니처마트 차은산(52 · 법명 적광 · 사진) 대표.

"IMF 때 사업을 시작했으니 이제 7년째 접어들었어요. 사업은 꿈도 안 꿨는데, 어느새 '사장'이라는 자리에 있네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 '내가 리더 기질이 있을까' 고심했다는 차대표. 그렇게 겸손을 표하지만 차 대표는 이미 '퍼니처마트'를 작지만 알찬 사업체로 일궈 놨다.

차 대표의 사업에는 기본이 있다. 바로 부처님의 '정법'에 따른 경영이다. 욕심을 언제나 경계해왔다. 차 대표는 주위에서 지나친 욕심을 부리다 부도난 사업체들을 여러개 봐 왔기 때문이다. 그는 스스로 '월급 사장' 노릇을 하고 있다. 이익이 나도 회사 돈을 임의로 가져다 쓰지 않기 위해서다. '욕심' '허식'과 인연을 끊고 나니 차 대표의 얼굴에는 맑은 웃음만 머물러 있게 됐다.

사실 차 대표는 부친이 자신의 삶 터전에 교회를 지을 만큼 독실한 개신교 가정에서 자랐다. 그러다보니 어렸을 때부터 차 대표는 '그리스도 인'이었다. 그러나 20대가 되면서부터 종교의 속박에 염증을 느꼈다. 그 때 정신적 뿌리도 흔들렸고 방황이 시작됐다.



차 대표는 답을 얻고자 스스로 길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그 끝에서 '부처님 법'을 만났다. 시작은 1998년 겨울, 서울 약사사에서였다.

"부처님 법을 만나기 전에도 언제나 바르게 살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그런데 불법을 만나고 나서 알았습니다. 내 생활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요."

사업 시작 8개월 만에 만난 불법. 그 무렵, 4명 남짓 되는 직원들에게 생긴 스트레스도 없어졌다. 다혈질적인 성미가 있어 거짓말 하는 직원들에게 가끔은 자신도 모르게 화를 벌컥 내던 것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늘 긍정적으로 사고하다보니, 다른 사람의 잘못까지 '머리'보다는 '가슴'으로 느낄 줄 알게 된 것이다.

이제 아침마다 108배를 하고 1000번 이상 '관세음보살' 등의 정근을 한다는 차 대표. 사무실에서도 틈만 나면 경전을 읽는다. 이렇게 만들어진 마음 속에서 우러난 차분한 목소리와 다정한 말투로 손님들에게 신뢰를 얻었다.

차 대표는 지난해부터 연합포교사단 단장의 길도 걷고 있다. 생활과 마음을 바꿔 차 대표의 삶을 진실하게 만든 불교를 '널리' 알리고 싶어서다. 불교에 귀의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차 대표는 열정과 진심어린 마음은 어디서든 통한다고 생각한다.

"부처님 말씀을 따르다 보면 생활 속에서 늘 환희심을 얻게 됩니다. 언제나 정법을 따르고 부처님 안에서 즐겁게 살겠습니다."

글 · 사진=김강진 기자

울산·목포·속초 등 지부 창립 계획

교사불자련 올해 화두 '조직 강화'

전국교사불자연합회(회장 신연섭, 이하 교사불자련)가 '조직 강화'를 화두로 올 한해 사업안을 마련했다.

교사불자련은 2월 6일 김제 금산사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이 같은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교사불자련은 이날 미결성 지회 · 지부 조직지원과 '불자 1분 더 모시기 운동' 전개를 통해 조직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결의했다. 특히 4월 25일 울산지회 창립법회를 시작으로 신생 교사불자회 창립을 순차적으로 이어나가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울산에 이어서는 목포 · 속초 · 울진 등에서 잇따라 지부가 창립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교사불자련은 2월6일 금산사에서 열린 정기총회를 열고 '조직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며 '교사들이 안내하고 진행하는 성지순례' 프로그램 등 더욱 더 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또한 2007년, 창립 10주년에 맞춰 '(가제) 교사불자회가 걸어온 길' 편람을 제작, 배포할 것을 논의했다. 편람에는 지금까지 교사불자회 각 지부 · 지회가 진행해온 사업과 남긴 발자취를 기록할 예정이다.

재정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안도 내놓았다. 교사불자회의 열악한 재무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교사들이 안내하고 진행하는 성지순례' 프로그램을 곧 개설, 올 상반기 안에 시범운영을 거친 후 상설화 할 예정이다.

교사불자연합회 신연섭(63 · 법명 무아) 회장은 "조직 강화와 동료교사 및 청소년 포교는 우리의 사명"이라며 "교사불자련의 내실화를 통해 올 추진 목표들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강진 기자

(사)한국불교금강선원 학생모집 안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한국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연구과정(대학원)

발심을 하고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시간상 제약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자를 위해 **한국불교 통신대학**에서는 수시로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통신교육은 각자의 근기와 환경에 맞추어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이 수립되어 있어 시간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 통신대학에서는 통신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에 알맞은 교재가 준비되어 있고, 각종 **통신지도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과정으로 경학. 율학. 논학. 선학. 밀교 등 대학원 연구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통신교육비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으며, 교재비만 각자가 부담합니다.

구 분	불교통신대학	불교통신대학원
모집기간	수 시	수 시
수업년한	2년(4학기/각 6개월)	경.율.논.선.밀교 각1년
수업방법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 (년 2회 합숙 수련)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 (년 2회 합숙 수련)
전형방법	서류전형	서류전형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3매

□ 통신대학 졸업자에게는 전법사 자격증을 수여
□ 통신대학원 졸업자에게는 법사. 포교사자격증 수여
□ 특전 : 사찰 개원 및 운영에 관한 행정 지원

줄가 수행을 희망하는 자는 나란다 삼장불학원(집체교육) 참조

나란다 삼장불학원

사미과 · 사집과 · 사교과 · 대교과

나란다 삼장불학원은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발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불교대학. 불교 교양 대학. 대학원 연구과정을 거친 법사 및 포교사를 위한 특별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 특히 출가수행을 원하거나 사찰 또는 포교당을 개설하고자 하는 불자를 환영합니다.

□ 모집학과

학 과	수업방법	교육기간	자 격
사미과	주 2일	6개월	초발심자. 출가를 원하는 불자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
사집과	주 1일	6개월	사미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사교과	주 1일	6개월	사집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대교과	주 1일	6개월	사교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불교대학. 교양대학. 대학원 연구과정 이수자. 법사. 포교사

□ 원서교부 : 2006년 1월 5일 부터 □ 입학일 : 2월 27일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특 전 : 1.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2. 출가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교 수 진 : 활안(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교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통신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통신대학. 대학원 참조

불교예술대학

□ 모집인원 : 약간명
□ 수업일시 :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 7시
(수시 입학 가능)
□ 강의내용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요접바라
도량게작법, 다게작법
사방요신, 법고무
사물(북, 태징, 목탁 등) 다루는법
□ 지도교수 : 대혜스님

(사)한국불교금강선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전화 02)969-2410, 4981 / 팩스 02)964-2433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8> 선(禪)의 근본 뜻과 교(敎)의 자취

말 없음으로써 말이 없는 곳에 이르고자 함이 선(禪)이요, 말로써 말이 없는 곳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 교(敎)라고 하였다. '말 없음'이란 수단과 방편인 언어 문자를 떠나 자신이 직접 체험을 하라는 뜻이다. '말 없음'이란 '깨달음'을 뜻한다.

알음알이를 떠나서 직접 체험으로 자신의 참마음을 아는 것, 곧 깨달음을 얻으라고 하는 것이 선이다. 마음은 선(禪)의 근본 뜻이요 말은 마음을 따라가는 교(敎)의 방편이다. 비유하면 마음은 허공에 떠 있는 달이요 말은 하늘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선가귀감> 6장에서는 말한다.

是故 若人失之於口則 拈花微笑 皆是教迹 得之於心則 世間鹿言細語 皆是教外別傳禪旨

이 때문에 말에 속아 본뜻을 잃는다면 '부처님이 꽃 한 송이를 집어 들자 빙긋 웃는 가섭의 미소'조차 다 교(敎)의 자취가 되고 만다. 그러나 본뜻을 알면 세간의 거친 말이나 자잘한 말들까지도 모두 언어 문자 밖에서 법을 전하는 선(禪)의 근본 뜻이 된다.

말에 속아 본뜻을 잃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근본 마음자리에서 모든 법은 본디 말을 떠나 있고 이름을 붙일 수 없으며 생각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끝내는 평등하여 달라질 것이 없다.

그런데 이 뜻을 알지 못하고 입으로만 말을 한다거나 이름을 갖다 붙인다거나 시비 분별하는 생각으로 헤아리고 추측한다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다. 본뜻을 알지 못한다면 선(禪)에서 전법(傳法)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삼는 '부처님이 꽃 한 송이를 집어 들어 올리자 빙긋 웃는 가섭의 미소' 조차 다 교(敎)의 자취가 되어 죽은 문구가 된다.

반대로 중생의 시비 분별을 다 떨쳐서 본뜻만 알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늘 바른 법을 말하고, 땔나무 하는 아이나 소치는 늙은이가 다 깊은 이치를 논하며, 소 울음이나 닭 우는 소리까지도 빠짐없이 부처님의 법을 전한다는 소리임을 알게 된다.

옛날 마조 스님(709~788)의 법을 이은 보적 선사가 푸줏간 앞을 지나갈 때였다. 고기를 사려는 사람이 "맛있는 살점을 잘라 주시오"라고 하니, 푸줏간 주인이 "저어 손님, 이 고기 어느 부분인들 맛있지 않은 살점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스님은 이 소리에 문득 크게 깨친 바가 있었다고 한다. 이런 뜻으로 보면 세간의 거친 말 자잘한 말들까지도 모두 언어 문자 밖에서 법을 전하는 선(禪)의 근본 뜻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정리하여 <선원제전집도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一切諸法 唯依妄念而有差別 若離妄念則無一切境界之相 是故諸法 從本已來 離言說相 離名字相 離心緣相 畢竟平等 無有變異 不可破壞 是一心 故名眞如

모든 법은 오로지 헛된 생각으로 차별이 있다. 헛된 생각을 떠나면 온갖 경계로서 나타나는 모습은 없다. 이 때문에 온갖 법은 본디 말을 떠나 있고 이름을 붙일 수도 없으며 생각을 벗어나 있으므로 끝내는 평등하여 달라질 것이 없어 파괴할 수 없다. 오직 일심(一心)일 따름이니 그러므로 진여(眞如)라고 한다.

서산 스님은 말한다.

"법에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법에는 모양이 없기 때문에 마음으로 그려내지를 못한다. 말에서 머뭇거리면 본디 마음을 잃고, 본디 마음을 잃으면 '부처님이 꽃 한 송이를 집어 들자 빙긋 웃는 가섭의 미소'조차 다 말장난에 떨어져 끝내는 죽은 것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마음의 본뜻을 안 사람은 저자거리의 이야기조차 훌륭한 법담이 될 뿐만 아니라, 나무 위에서 지저귀는 제비 소리까지도 실상(實相)의 이치에 통달한 소리로 듣는다.

이 때문에 늘 참선만 하고 있던 보적 선사는 장례식장에서 슬피 우는 상주의 통곡소리에 문득 깨치고 나서는 덩실덩실 춤을 추고 기뻐했다고 한다.

임제 스님(?~867)의 법을 이은 보수 스님이 공부하러 다닐 때였다. 하루는 방장 큰스님께서 '부모님이 너를 낳기 전 너의 본래면목(本來面目)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다. 그는 머뭇거리며 대답을 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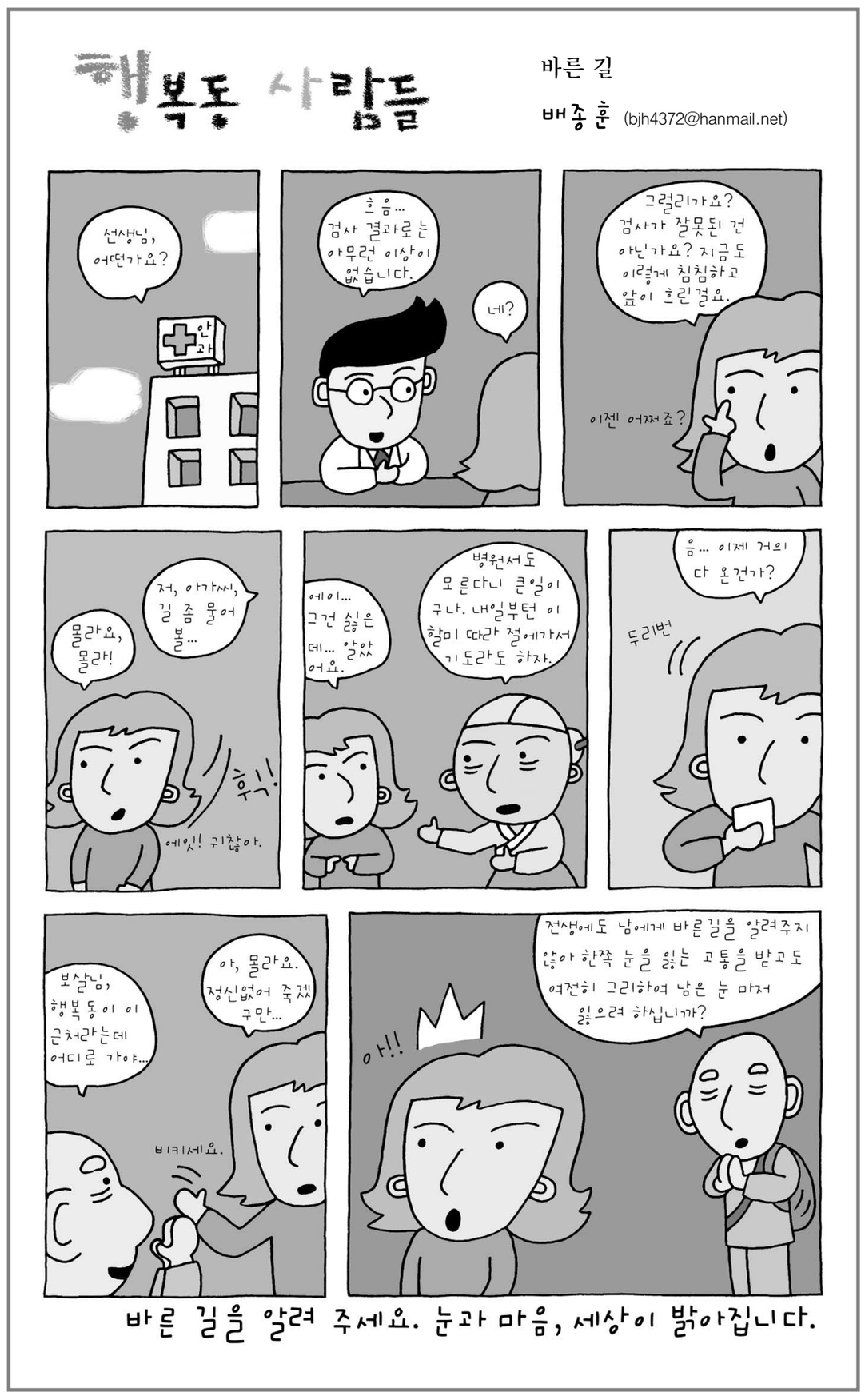
어느 날 스님이 길을 가다가 저자거리에서 주먹다짐하고 싸우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다. 스님은 싸움 끝에 '참으로 면목이 없네'라고 하는 그들의 말을 듣고 거기서 크게 깨쳤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는 선(禪)이 근본이고 교(敎)는 방편이라는 이치를 밝혀 주는 것들이다."

서산 스님은 다시 게송으로 말한다.

明珠在掌 弄去弄來
밝은 구슬 내 손안에 놓여 있으니
이리 궁글 저리 궁글 가지고 노네.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모든 법 말을 떠나 있고 평등
본뜻 알지 못하면 죽은 문구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일주문(一柱門)은 어떤 문?

사찰에 들어설 때면, 가장 먼저 만나는 문이 있지요? 바로 일주문입니다. 대부분의 불자들은 일주문 앞에서 걸음걸이와 행동거지를 경건하게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일주문은 사찰의 규모와 그 절의 스님들의 수행력, 분위기, 역사와 전통을 충분히 느끼게 하지요.

그럼 왜 일주문을 세웠을까요? 먼저 일주(一柱)는 '일심(一心)'을 상징합니다. 일심으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라는 가르침인 겁니다. 그래서 불자든 비불자든 일주문을 통해 절집에 들어오면,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차별 없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만날 수 있는 거지요.

일주문은 어떤 구조로 돼 있을까요? 말 그대로 기둥이 한 줄로 서 있습니다. 또 거의가 다포(多包)형식의 맞배지붕을 하고 있죠. 자세히 뜯어보면, 기둥이 유달리 굵습니다. 엄청난 지붕무게를 버텨야 하기 때문이죠. 물론 현판도 있습니다. 대개 절이 위치한 산 이름을 함께 병기하죠. 영축산 통도사, 금정산 범어사, 가야산 해인사 등이란 말이 생각나지요?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 강의 (83)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29강 : 보살마하살은 누구인가

보살, '자비 샤워' 틀어주는 사람들

대승은 보살을 새로운 인간상으로 내세웠다. 그와 더불어 성문과 연각의 이승(二乘)은 소승의 길로 낮춰 평가되었다. <반야경> 가운데 하나는 이 둘의 차이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성문의 길과 연각(벽지불)의 수레에 속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수련하는가.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오직 나의 자아만을 나는 길들일 것이다. 오직 나의 자아만을 나는 평화롭게 할 것이다. 오직 나의 자아만을 나는 니르바나로 이끌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유익한 기반(善根)을 닦는다. 보살은 그러나, 그렇게 수련해서는 안된다. 보살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지니고 유익한 기반을 닦아 나가야한다. 나는 나의 자아를 진여(眞如)에 머물게 할 것이다. 아울러, 다른 모든 생명을 또한 진여에 머물게 하여, 헤일 수 없이 많은 존재를 니르바나로 이끌 것이다." (콘즈, '불교, 그 핵심과 발전')

"성불하십시오" 라는 인사말

소승은 해탈로 이르는 '지혜'를 최고의 덕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보살은 그것과 더불어, 아니 그것보다 더욱 더 '자비'가 더 큰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홀로 깨달아 해탈하겠다는 것은 지독히 이기적인 것이고, 그것은 불교가 지향한 목표인 무아에 어쩌면 가장 크게 반하는 태도일 수도 있다. 결국, 진정한 무아(無我)는 타자를 향해 나의 모든 것을 비우고 바치는 것이라야 한다! 이것이 역설이다.

최고의 깨달음, 즉 아뇩다라삼먁삼보리는 이 역설적 마음가짐을 가질 때 기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붓다는 수보리에게, "보살은 일체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서원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영웅적 발원을 발보리심(發菩提心), 혹은 발심(發心)이라고 했다. 이를테면, 종교적 회심에 해당한다.

세상에! 이를 자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진정 이 보살의 서원을 자기 것으로 품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루 중 얼마나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자신이 없다.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의 무게를 버거워한다. 이 세상 목숨 하나 붙이고 사는 것이 팍팍하기 이를데 없다. 오죽하면 고해(苦海)라 하겠는가. 이 고통의 무게를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내 인생은 접고, 다른 생명을 위해 목숨을 바치라니….

나는 불교가 이 이름을 함부로 써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불교는 지금 너무 인플레되어 있다. 사람을 만나면, "성불하라"고 말하고, 아무에게나 "보살님"이라고 부른다. 이름이 실상에 대한 착각과 오해를 증폭시킨다는 것은 불교의 근본 인식이다. 재사(在寺)든, 재가(在家)든 부처님을 등에 업고, 먹물의 권위에 싸여, 위선의 거드름을 피우는 사람들이, 나는 싫고 역겹다.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데, 내가 바로 그런 류의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다.

의타기의 법계총상

역시 아직 내 마음의 때와 장애가 충분히 벗겨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것을 너무 의식해도 강박이 된다. 나는 보살의 길에 아득히 까마득한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면서도, 또 한편 내 불성의 힘과 빛을 전적으로 믿는다. 이 두 길은 서로 모순되어 보인다. 그러나 내가 이즈음 분명히 깨닫는 것이 있는데, 길은 하나가 아니고 둘이거나, 아주 많다.

하나만을 고집하면 마구니 혹은 이단의 길로 떨어진다. 불교가 그래서 가장 적게 이단이고 위험도 가장 적다. 팔만 사천의 길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로 그것들은 서로 모순되고 엇갈리지만, 그러나 그게 도구인 한, 굳이 논리적이거나 체계적일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못을 박는 망치와 밥을 담는 그릇이 서로 연관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두번째 길에서 나는 불성을 믿고 마음을 편안히 여유롭게 가지려고 노력한다. 사람을 대하거나, 일을 할 때, 혹시 내가 나의 습관과 편견에 젖어, 혹은 내 이해에 너무 절박해서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실패하고 있는지를 물어본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게 하는 섭섭함이나, 작은 부당한 대우 정도는 스쳐가는 바람 정도로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명백한 악의로 나를 해친다든지,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는 사람은 응분의 벌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평화이다. 평화는 모든 것을 용서하는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신세를 생각한다. 나는 물과 불, 공기와 자연에게, 그리고 농부와 상인, 가족과 이웃의 신세를 지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나는 그런 만큼 얼마나 빚을 갚고, 나머지를 베풀고 있는지를 생각한다. 만일, 여기서 저울이 보답보다 신세 쪽으로 기운다면 그건 죄를 짓는 일이다.

그동안 너무 달라고 손을 내밀었지, 내주머니의 것을 꺼내줄 줄은 몰랐다. 그렇다. 나는 나가 아니다. 누구도 홀로 있지 않고, 서로 중중의 인연으로 엮여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밖의 관계를 통해서만, 그리고 그들에 의존해서야 비로소 존재한다. 세계는 이런 의타기(依他起)의 중중 무진한 법계(法界)의 총상(總相)이다.

보살의 발심과 여정

보살은 이런 류의 발심을, 소박한 생활공간에서의 수준이 아니라, 아주 크게, 지구적 우주적 지평 위에 세운 사람이다.

콘즈는 스즈키 다이세쯔의 <인도 대승 불교 논집(On Indian Mahayana Buddhism)>을 위해 쓴 긴 서론에서 반야부 경전에서 읽은 보살의 삶을 몇 가지 단계로 요약해 주었다.

1) 보살의 삶은 보리심, 즉 붓다의 깨달음을 얻겠다고 갈망함으로써 시작한다.

2) 그 이후, 몇 겁의 세월을 그 목표를 위한 수련, 즉 여섯 바라밀을 닦아 나간다. 6 바라밀이란, 베품(布施), 계율(持戒), 인내(忍辱), 열정(精進), 집중(禪定), 지혜(般若)이다.

3)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보살은 '지혜'와 '자비'라는 두 강력한 동기에 의해 추동된다. 지혜는 모든 존재의 공(空)함을 깨닫는 것이고, 자비는 모든 중생에게 서비스를 하겠다는 마음이다.

4) 지혜의 극치에서 모든 존재의 공함을 깨닫고 나면, 이제 순수하게 자비만이 보살을 밀고 나가는 힘이 된다. 보살은 몇 겁을 일체 중생에게 그들의 필요에 따라 이익을 샤워시켜 준다. 물론 그는 알고 있다. 일체가 공(空)함으로, 중생도 환상이고, 그들의 곤경도 환상이며, 또한 그의 도움도 환상이라는 것을.

5) 보살의 정신적 진전은 열 개의 단계로 나눈다. 화엄은 이를 십지(十地)로 정리했다. 처음 여섯 단계는 자신의 완성에, 다음 일곱째부터는 천상적 보살의 무공용행(無功用行), 즉 '인위적 노력 필요없는 실천의 삶'이 된다. 마지막 열 번째 단계에서 그는 여래가 된다.

6) 붓다를 성취할 때, 보살은 붓다의 삼신(三身), 즉 '세 개의 몸'을 실현하게 된다. 법신(法身)과 보신(報身), 그리고 화신(化身)을….

보살은 이런 점에서 마하살, 즉 '위대한 영웅들'이다. 두 개념을 붙여 보살마하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불사의경(不思議經Acintyasutra)>을 보면 그의 열망은 영웅적 스케일을 갖고 있다.

"그는 일체의 중생을 교화시키기를 갈망하며, 일체의 붓다를 섬기고 기리기를 갈망하며, 부처님 세계(佛界)의 모든 영역을 정화시키기를 갈망하며, 마음 속에 붓다의 모든 가르침 담기를 갈망하며, 모든 불계의 세세한 지식 갖기를 갈망하며, 붓다를 둘러싼 모든 집회를 파악하기를 갈망하며, 모든 생명의 생각 속으로 뛰어들어 그들의 때를 벗겨주고, 그들의 가능성을 헤아리기를 갈망한다." (콘즈, '금강경 영역(Diamond Sutra)')

■한국학중앙연구원

나를 버리니 행복이 여기에



나를 깨라! 그래야 산다
허버트 벤슨. 윌리엄 프록터 공저
학지사|1만3000원

우리는 과연 행복한가?

1월 15일부터 2월 19일까지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방영되는 KBS 1TV 6부작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마음'. 이 다큐멘터리는 마음의 원리를 이해해 스트레스와 심신의 고통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건강과 행복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다.

'마음'의 제작과정에서 자문 역할을 맡은 하버드 의과대학 내과교수인 허버트 벤슨 박사는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것이 물질이 아닌 마음의 역할에 있음을 여러 가지 예시를 통해 보여줘 화제가 되고 있다.

허버트 벤슨 교수의 마음이론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책 <나를 깨라! 그래야 산다(The Breakout Principle)>가 최근에 발간됐다. 이 책은 동양의 지혜와 명상의 세계를 서구과학으로 분석하고 있다.


KBS 다큐 '마음' 이미지.

그렇기에 끊임없는 자기개혁을 필요로 하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보통 관습적이며 타성적인 삶에서 자신을 깨뜨려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자하는 사람들은 자기개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과 더불어 운동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음악을 듣는 등 계속적인 노력을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각각의 프로그램이 어느정도 선까지는 유용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특정영역에서 언제나 더욱 큰 변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2% 부족한 아쉬운 상태가 지속된다. 그래서 중요한 순간 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피상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근본적인 자조 원리임을 알게 된다.

허버트 벤슨 박사와 공저자인 윌리엄 프록터(작가)는 현대인에게 만병통치격의 자기개혁 프로그램으로 브레이크아웃의 원리를 자신있게 소개한다.

브레이크아웃은 이전부터 지속되어 오던 정신적 패턴, 다시 말해 심한 스트레스나 정서적 외상과 충격까지도 완전히 깨부숴지고, 새로운 마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리는 강력한 심신충격을 말한다.

새로운 마음의 세계가 주는 유익함은 보다 왕성한 활동성과 더욱 향상된 창의성, 작업생산성 증대, 최상의 운동 수행력, 영성의 개발등 최상의 전문성을 발휘하게 해준다.

또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이에 따른 이완반응이 보여 주는 건강상의 이점까지 브레이크아웃의 반응은 최신의 과학적 훈련과도 통한다.

창의성과 생산성 장애, 평균 이하인 운동수행력, 건강 악화, 영성의 위축은 성가신 불안과 스트레스에 관련된 정서적 부담 또는 반복적 강박성 등은 모두 해결되지 못한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사고 패턴에서 시작된다. 하나의 새로운 원리를 통해 이러한 사고패턴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

이러한 과거의 부정적 사고패턴을 끊어버리기 위해 내면의 등불이라는 스위치를 켤 수 있도록 학습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을 변혁시킬 수 있는 브레이크아웃의 원리를 작동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은 자아각성의 체험, 명상적 체험, 나아가 영성적 체험에 이르는 방대한 영역에 이르는 과정을 뇌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서술한 획기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따라서 타성적 삶을 타파하여 새로운 삶의 지평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서 무나 큰 도움이 될 실용서다.

특히 초월적 경험이나 영성적 경험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흥미진진한 내용을 통하여 그동안 신비의 영역에 머물러 있던 종교적 체험을 보다 굳건한 과학적 믿음의 힘으로 바꾸게 하는 지침서가 될 것이다.

브레이크아웃을 통해 만성적 스트레스에 기인한 온갖 종류의 정신신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

흔들림 없이 확고하고 완벽하며, 움직임이 힘들지 않고 부드럽고 생각이 극단적으로 투명해지는 신비한 마음의 상태를 경험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KBS 다큐멘터리 '마음' 제작 자문한
하버드大 벤슨 교수의 '마음이론'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에게
내면 밝히는 자기개혁프로그램 제시

신비 영역에 머물던 종교적 체험
과학적으로 설명해 흥미 끌어

네티즌 강추

당신도 끌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 더난출판, 이민규 지음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를 발간한 아주대 이민규 교수는 심리학 박사이자 임상심리 전문가이다.

그는 독자들이 현란한 전문용어의 소용돌이속에 빠져서 허우적 되지 않도록 아주 섬세하게 글을 썼다. 심리학에서 사용되는 전문적인 용어들을 자연스럽고 친절하게 설명해 더 멋진 책으로 만들고 있다.

대게 이런 류의 책들이 '이렇게 당신을 바꿔라' '당신도 바뀔수 있다' '왜 이렇게 하지 않는가'라는 투로 책을 읽는 독자를 밀어 붙이고 닥달하는 투가 많다. 하지만 이 책은 마치 그냥 아는 친구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꾸며 우선 거부감이 들지 않게 해놓았다.

특히나 이책은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법한, 공감할 수 있는 일상적이고도 보편적인 예들을 들어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돌아보게 하고 끌리는 사람과 등을 돌리게 하는 사람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각각의 주제의 단락 끝부분에 마련된 '스탑 앤 띵크~'를 통해 책을 읽는 독자가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양한 대안들을 찾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멋진 미덕을 갖추고 있다. (scullyfox, book.naver.com)

일상의 진솔함 묻어나는 맑고 고운 시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북스토리, 이수인 지음

시는 느끼는 것으로 족하고,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서평'은 충분하다. 시는 감상의 대상이지, 비평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어설프게 '시상'이 어쩌니, '시어'가 저쩌니 하는 것은 시에 대한 모욕이다. 시는 시인의 점유물이다. 제 3자가 개입할 틈이 없는 시인만의 권한이다. 그 절대의 권한으로 쓴 시를 독자는 감상만하면 되는 것이다.

'서평' 대신 감상을 말한다면, 이수인 시인의 언어는 일반 시인들이 얽매어져 있는 시성과 시 문법에 대한 집요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그래서 시가 더 진솔하게 우리의 마음에 와 닿고, 현실감이라는 측면에서 느낌이 편하다.

그리고 시인은 시인다운(?) 시를 써야 한다는 오해로 몽환적인 언어적 구사와 감성적인 시어의 나열을 벗어난 시로 우리의 마음을 한결 윤택하게 해주고 있다.

한 독자의 감상으로 그렇게 느꼈다. (박창근, booktopia.com)

책속의 밑줄긋기



○… 기생충의 백미는 비인간적이라는 점이다. 그런 비인간성은 기생충이 다른 행성에서 날아와서 우리를 노예로 삼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오랫동안 이 행성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물론 기생충도 인류와 같은 숙주를 만난 적이 없다. 인간은 의약품이나 예전에 그 어떤 동물들도 가지지 못한 하수 설비 따위를 가지고서 기생충과 맞서 싸울 수 있다.

인간은 주위 환경 또한 바꾸어 놓았다. 수십억 년 동안의 찬란한 성공을 뒤로 한 채, 기생충은 이제 인간이 만든 세상에서 살아가야만 한다. 숲은 점차 줄어들고, 도시는 팽창하며, 눈표범은 사라지고 양계장은 번성하는 그런 세상에서. 그러나 기생충은 그들의 적응력 덕분에 잘 지내고 있다.

우리는 콘도르와 여우 원숭이가 사라지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그들의 멸종은 인류가 지구를 얼마나 망쳐왔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누구도 기생충의 멸종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검은 코뿔소에 기생하는 진드기들은 아마도 21세기에 자신의 숙주와 함께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인류가 생존하는 동안에는 일반 기생충이 사라질 위험은 없다. 그들 대부분은 인류가 아마 모두 사라진 후에도 여전히 여기에 존재할 것이다.

기생충은 인간이 만든 세상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지만, 반대로 인간 또한 그렇다. 기생충은 인간이 의존하며 살아가는 생태계를 구성하고 숙주의 유전자를 수십억 년 동안 조각하여 왔다. -<기생충 제국> 300~301쪽, 칼 짐머 지음, 궁리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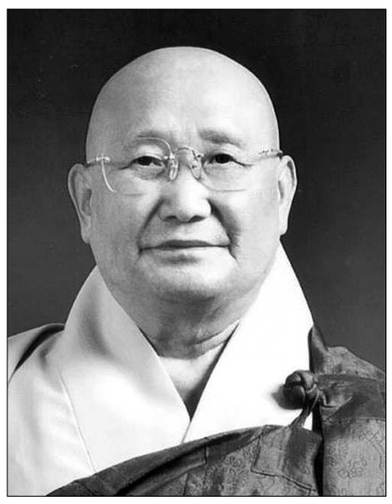
과일의 왕 두리안
동안거를 맞이하여
올해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선방 공양하시는 스님께는
가격을 할인 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십시오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양원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소중만 인연을 위만 성성 고품격 상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 조청
♣ 山寺조청 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山寺조청 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입니다.
♣ 山寺조청 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옻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옻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山寺 약도라지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국민건강을 생각하며 100% 천연으로 만들었습니다
山寺조청 웰빙 자연당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반찬 만드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1100g×2병 = 18,000원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물엿 대신 산사조청 웰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용사
054)372-3166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바로보인의 책을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 조계사
진강 대선사님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억겁의 무명을 일깨우는 통쾌한 禪법문!
바로보인 전등록 5권
바로보인 무문관
바로보인 벽암록
바로보인 천부경
바로보인 금강경
바로보인 신심명
바로보인 환단고기 5권
바로보인 증도가
바로보인 반야심경
영원한현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0권 중 2권까지)
바로보인 선문염송 (30권 중 7권까지)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 2권 출간!!!>
선(禪)을 수행하는 분들이 기다렸던
선 수행 문답집. 계덕아 사무친 경지에 대한
이렇게 밀밀한 점검과, 오후보림에 대한
이토록 구체적인 수행법 제시와, 최초의 무명과
우주생성의 원리까지 온전하게 통달하여
날날이 설한 이러한 법문은 여태까지 없었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바로보인

현대해상책임보험 3억가입 복용100일후 발병시 300% 배상
중 풍
귀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풍(風)의 치료법은 아직 확립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풍(風)! 예방이 제일입니다.
단 3회 복용에 평생 뇌졸증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예로부터 전래되어온 체질개선요법에 의한 뇌졸증 예방 식품요법을 10여년전부터 실험하여 많는 분들께 복용시켜왔고 이와같은 식품요법을 실행하신 분들은 아직 단 한분도 발병한 사실이 없음을 확신하여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 이런 증상이 뇌졸증(중풍)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즉, 갑작스러운(두통),(마비),(저림),(심한 현기증),(구토), (눈의이상)등이 나타나면, 뇌졸증(중풍)의 위험 신호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관계기관에서 제조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인체에 유해한 불법 건강식품이나 다단계판매, 허위과장 광고 등 위법판매행위를 않습니다.
※ 1box에 3회분이 들어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선물로 최고 인기 식품입니다.
본 식품요법(一人 3회복용)이 귀하를 지켜드릴 것입니다.
"폴시노"는 뇌졸증 예방요법의 식품입니다.
본 식품요법은 일본의 규슈가고시마현 구니와께서 지방에서 시작되어(게이쇼엔)양로원의 여러노인들이 비법을 증언하고 일본내에서 선풍적인 유행을 하였습니다. 이미 수만명의 사람들이 실험하였고, 일본 의학회와 국내 학회에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사용하신분은 한사람도 뇌졸증으로 쓰러진 사람이 없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 취급점 모집 및 상담문의 : 02)3437-8282

벽안의 제자 길러낸 禪의 힘





숭산 스님의 선학강좌 숭산 스님 지음 | 이른아침 펴냄 | 1만5000원

40년전 숭산 스님이 쓴 최초 선 백과사전
열반 1주기 맞춰 현대적으로 손질해 발간

영어를 제대로 할 줄 모르던 숭산 스님(사진). 외국에서 공부하고 영어에 능통했던 스님들도 못했던 괄목할만한 해외포교 성과와 수많은 벽안의 제자를 길러낸 힘은? 서양의 지성인들을 단박에 굴복시킨 숭산 스님의 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새삼 궁금해지는 이 질문에 해답을 주는 책이 최근 나왔다.

문자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문자로 선을 해설하고, 명쾌하면서도 조리정연하게 설명한 내용이 들어있는 <숭산 스님의 선학강좌>는 1966년 간행한 최초의 선 백과사전이다.

숭산 스님 1주기를 기해 현대에 맞게 고쳐 새롭게 펴낸 이 책에는 선에 대해 체계적이면서 심도있게 풀어낸 내용이 담겨있다.

또 선의 발달과 전통등 선의 근본에서 선의 좌선 및 참구법, 선을 둘러싼 궁금증과 자기당착으로 보이는 모든 모순들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그렇다면 숭산 스님이 <선학강좌>에서 말하는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마음'이다. 마음의 근원과 본선 그리고 장차 나아갈 바를 정확히 깨우칠 수 있다면 누구나 해탈하여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사상이 바로 불교의 근본 원리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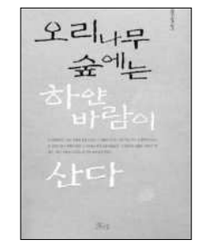
스님은 이처럼 마음의 문제를 가장 핵심으로 하는 불교사상에 입각하되, 몸과 마음에 더 익숙한 현대인들도 쉽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인간의 마음을 조명한다는 측면에서 누구에게나 쉽고 실질적인 교훈을 전해 준다.

스님이 가질 수 있었던 선의 힘, 그 흔들리지 않는 본질적인 깨우침의 실상을 목격하고 싶다면 <숭산스님의 선학강좌>가 좋은 안내자다. 아무리 어렵고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에 부딪치더라도 단박에 모든 것을 깨쳐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선의 참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숭산 스님의 제자인 성광 스님(화계사 주지)은 발간사를 통해 "스님이 만사에 막힘이 없었던 것은 참선의 힘이었다. 선을 닦는 제방납자나 선에 관심을 가진 초심자들에게 귀감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숭산 스님은 1927년 평남 순천에서 태어나 1947년 충남 마곡사로 발심출가하여 행원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스님은 1949년 예산 수덕사에서 고봉 대선사로부터 전법게를 받았으며, 1972년 미국 프로비던스의 재미 홍법원 개설을 시작으로 전 세계 30여국에 120여 선원을 설립했다. 스님은 생전에 '세계 4대 생불'로 추앙받았으며, 84년 세계평화상을 수상했다. 스님은 2004년 11월 30일 서울 화계사 염화실에서 원적에 들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오리나무 숲에는 하얀 바람이 산다
서연 지음
호미 | 10000원

'도시인의 몸을 버리고 농부의 몸을 선택함으로써 삶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고 싶다.' <오리나무 숲에는 하얀 바람이 분다>는 홍화농사를 지으며 평창강변에서 살아가는 서연(前 방송국 PD)씨의 농사일기다.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에 '농막에 불을 켜고'라는 제목으로 2년간 연재된 32편이 실려있다.

서씨는 이 책을 통해 진정한 귀농이란 무엇이며, 그땅으로의 귀환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체험과 사색을 통하여 말하고 있다.

농사를 통해 사색한 노동과 자연, 자유, 직관, 생명, 무위, 여타의 명상 등 인간의 근원적 존재방식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또 자연속에서 만난 동식물과 농작물의 성장 및 생태이야기등 숭고한 자연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아름답고 지순한 문체로 기록하고 있다.

있는 그대로 어여쁜 땅이여 사람이여

책을 들여다보면 첫째 묶음에서는 귀농하여 만나게된 농작물과 야생초의 성장과 생태를 깊이 있게 관찰한 내용이 들어있다. 둘째 묶음은 '흐름'에 관한 필자의 생각을 편지글 형식으로 옮겨 적은 '은자의 법문, 흐름을 다르라' '노동선과 불교의 세계관' 흐름과 놓음 그리고 느림 '등에 대한 내용이 실렸다.

주제에 맞는 일화와 인용문을 활용한 세 번째 묶음은 삶의 존재 방식에 대한 필자의 사색이 담긴 산책같은 글모음이 돋보인다. 해주선사와 무위당 장일순, 해월 최시형의 일화를 비롯하여 불가의 이야기, 선화, 민담과 근대의 선승 경허등의 일화가 알맞게 소개돼 있다.

마지막 네 번째 묶음은 잎으로 필자가 사색할 선이나 명상의 원리를 다룰때 천착하게 될 기본적인 방향이 제시된 '소설의 시점과 명상의 원리'라는 주제의 들머리에 해당하는 글들이다.

자연과 인간을 사색하는 농부의 붓길을 따라가다보면 그가 찾은 실존적 교유를 경험할 수 있다. 또 지은이는 이책을 통해 진정한 '나'는 무엇이며, 그 '참나'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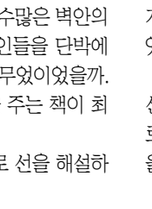
새로나온 책

불교가 없었다면 나는?



■ **문암한가집**(도허 스님 지음, 문암사)= '불교에서 가장 좋은 점이 무었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남이 날 잘 꾸짖어주고 평가한다는 점이다. 그것이 나에겐 영약이란점 바로 그것이 없었다면 나는 오늘날 떳떳치 못했을 것이다.' 대구시 달성군 문암사 주지 도허 스님(前 조계종 종회의원)이 수행하며 틈틈이 쓴 시와 글을 묶어 <문암한가집>을 발간했다. <문암한가집>에는 스님이 일타스님의 열반에 충격을 받고 지은 '나의 화두', 아침공양을 하다 상좌가 생각나 지은 '홀연히 생각나', 숨은 도인 지월 스님을 추모한 '현세에 어떤이가 대도사였나'등 137편이 실려있다.

20대 예수의 삶 설명



■ **오 메시아? NO!**(문화영 지음, 아루이)= 명상수련가이며 작가인 문화영씨가 호흡수련을 통해 파장의 원리를 활용, 예수와 대화한 내용을 100문 100답으로 엮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우주의 근본은 사랑이란 메시지를 전달해준다. 예수의 결혼설 자손설 등으로 화제를 모은 <다빈치코드>가 절반만 맞다고 주장하는 저자는 성경에 누락된 20대 예수의 삶을 설명한다. 동쪽으로 가며 세상공부를 하다 인도에까지 다다랐고 불교가 이미 자리잡고 있던 인도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는 것이다.

지혜로운 인생 열어주는 삶의 나침반

젊은이 눈높이에 맞춰 주제 내용 선별해 풀이

"길고, 짧고, 넓은 것과 좁음, 높고, 낮음이 다 사람의 정신과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의 <채근담>에 나오는 이 말은 우리가 복잡 다단한 현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에 필요한 '삶의 나침반'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만해 한용운 스님이 1917년 저술한 <한용운 채근담 정선강의>를 현대에 맞게 고쳐 쓴 <한용운 채근담-마음의 사색>이 나왔다.

명나라 홍응명의 '채근담'을 한용운 스님이 풀이하고 성각 스님이 옮긴 이 책은 다른 고전과 달리 그 뜻이 쉽고 명쾌하여 우리가 일상속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적절한 마음가짐과 몸가짐에 대한 충고이자 안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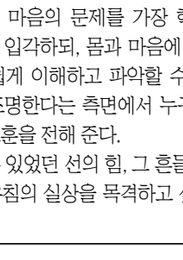
그래서 나무 뿌리(菜根, 채근)를 씹어 먹듯 담담하게 이야기(譚, 담) 할 수있다면 누구나 자기 삶을 편안하게 영위 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채근담>은 동양 최고의 지혜서로 꼽힌다.

또한 채근담에는 역경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지혜, 인간관계에 대한 현명한 판단, 세간과 출세간을 넘나드는 자유로운 정신 등에 관한 경구들이 함축적으로 표현돼 있다. 일생을 불꽃같은 열정으로 살다 간 독립지사 한용운 스님의 해설이 이 책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준다.

각종 관계로 얽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냉철한 통찰과 수신의 덕목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채근담은 원래 유교 · 불교 · 도교를 골고루 바탕으로 한 책인데 한용운 스님이 집필하다보니 불교 색채가 짙게 나온다.



만해 한용운 스님



한용운 채근담
한용운 지음
성각 스님 옮김
부글북스 | 1만1000원

특히 '탐욕은 엷애라' '남의 원망을 사지말라' '정신을 집중하라' '원한을 잊으라' '남을 탓하지 말라' '자유자재하라' '입은 마음의 문이다' '마음을 비워라' '집착을 놓아라'등 한용운 스님의 삶에 대한 명철한 철학이 돋보인다.

스님은 채근담을 통해 세파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신조와 자연을 벗삼아 살아가는 즐거움을 말하고 있지만 일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폐쇄된 시대를 살아가는 깊은 고뇌가 느껴지고, 또한 인생에 대한 달관이 엿보인다.

책의 내용은 1부 마음의 사색 <수성, 자기를 지키기 위해 심신을 수양하고 성찰>, 2부 지혜의 연못 <응수, 일체의 대상과 접촉하고 대응>, 3부 거울 속의 나 <평의, 사람과 사람간의 올바른 토론을 통해 나를 키운다>로 되어 있다.

이어 4부 시간의 여유 <한적, 여유로운 생각이 사람을 키운다>, 5부 삶의 고통을 이기는 법 <개론, 산다는 것은 하나의 고통, 그것은 욕망때문이다>등 다섯편으로 나뉘어 실려있다.

번역한 성각 스님(원각선원장)은 "오늘날 젊은이들이 공감하는 내용을 가려 뽑아 현대어법에 맞게 풀이를 했다"며 "읽는 사람들이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불필요한 내용들은 삭제를 하고, 의역도 과감하게 했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yosiamun.com 추천도서

· 깨달음에 이르는 길	지영사, 총카파, 4만3000원
· 금강경(깨달음에는 길이 없다)	운주사, 김광하, 9000원
· 신들의 땅에서 찾은 행복 한 줌	바움, 문윤정, 1만원
· 간화선(조계종 수행의 길)	조계종출판사, 편집부, 1만5000원
· 달라이 라마의 반야심경	무우수, 달라이 라마, 8500원

도서주문 (02)2004-8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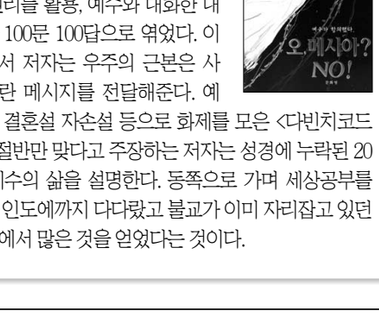
랜덤하우스중앙 RANDOM HOUSE JOONGANG 펼치면 보이는 새로운 세상 www.randombooks.co.kr

구입문의 02-3705-0108 |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우담바라』의 작가 남지심이 그려낸
청화 큰스님 일대기!

장좌불와, 하루 한 끼, 토굴 수행, 칼날처럼 치열했던 청화스님의 40년 구도의 길

청화 큰스님은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다가 가신 도인道人이다. 자리에 눕지 않는 장좌 불와의 수행을 평생 지켜왔던 청화 큰스님. 그는 도道의 실체를 증명한 우리 시대의 선승이자 스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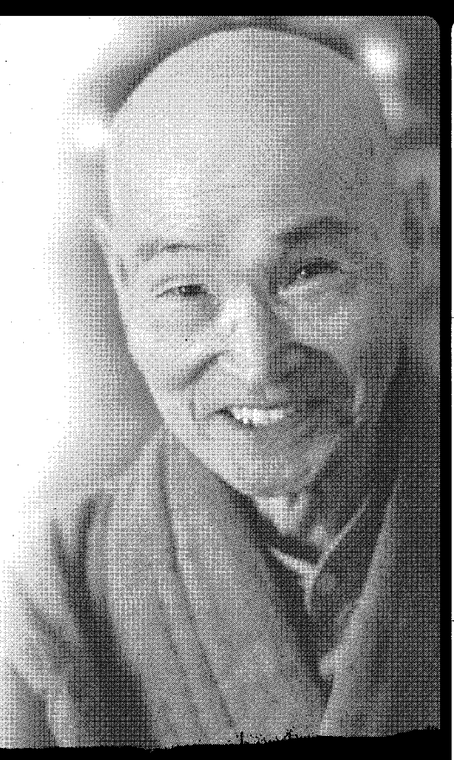
청화 큰스님의 일대기를 다큐멘터리 소설로 재구성한 뛰어난 소설. 베스트셀러 『우담바라』의 작가 남지심씨가 '전설적 수행승'이 아닌 '인간적 구도자'로서의 스님을 되살렸다. – 중앙일보

장좌불와, 토굴 수행을 하며 당대의 선승으로 꼽힌 청화스님(1924~2003)의 일대기. 신동으로 주목받던 청화스님의 어린 시절부터 출가 이후의 칼날 같던 구도의 길을 생생하게 전한다. – 경향신문

청화 큰스님의 족적은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도 성불을 할 수 있다는 살낱같은 기대가 허물어지지 않음을 증명한다. – 서울경제신문

남지심 장편소설 청화 큰스님 1·2

남지심 지음 | 전2권 | 신국판 | 각권 8,500원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샘물 같은 이야기

매 순간 행복하게, 매 순간 후회없이 사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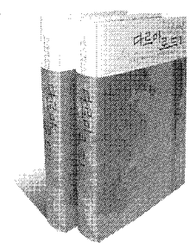


마음 밖으로 걸어가라

정목 스님 지음 | 225쪽 | 값 9,800원

언론과 불교계가 격찬한 최고의 불교 성지 순례기!

진리의 길을 따라 퍼져나간 2,500년 불교 역사의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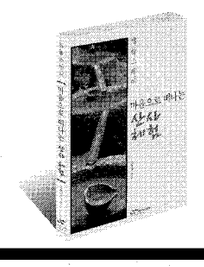


다르마로드 1·2

조병활 지음 | 각권 400페이지 내외 | 각권 값 32,000원

고즈넉한 정취가 있는 산사로의 여행

전국 21개 사찰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완벽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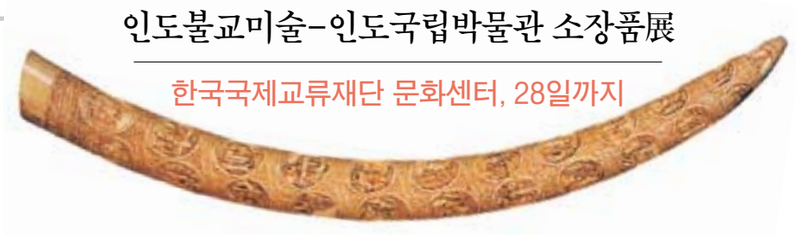


마음으로 떠나는 산사체험

유청상 지음 | 265쪽 | 값 12,000원

인도불교미술-인도국립박물관 소장품展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 28일까지



불상은 언제부터 만들었을까?

석조 부조물 등 걸작 51점 전시
진품 유물 시대 · 지역별로 선봬
인도불교미술사 흐름 엿볼 기회



4세기 마투라 · 쿠샨-굽타시대의 불두



2~3세기 간다라 양식의 불입상.

기원전 2세기부터 20세기까지 2200여 년간 인도 대륙에서 꽃핀 불교미술 걸작 51점이 서울나들이에 나섰다. 인도 초기 불교의 불탑 부조, 간다라 불상, 사르나트 불상, 후기 밀교의 보살상 등 인도국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 51점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1월 18일~2월 28일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권인혁) 문화센터(02-3789-5600)에서 전시 중인 '인도불교미술-인도국립박물관 소장품전'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을 보여주는 석조 부조물, 불상 불탑, 의식구 등 다양한 진품 유물이 시대별 지역별로 선보인다. 전시장은 불교미술의 시원(始原), 불상의 탄생과 흥륭, 고전기의 불교미술, 새로운 신 다양한 형상, 경전화의 세계, 남아 있는 전통 등 총 6개 섹션으로 구성됐다.

객원 큐레이터로 전시에 참가한 이주형 교수(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는 "불교나 인도 미술에 전문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이들뿐 아니라 인도 문화에 관심을 가진 일반인들도 인도 불교 미술사의 흐름을 흥미롭게 둘러보며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를 공동 주최한 인도국립박물관 K.K.차크라바티 관장은 "간다라 불교미술품을 통해 인도와 한국을 잇는 공통의 사상, 특히 해동고승전 왕오천축국전 삼국유사 등을 양국의 학자들이 공동 연구해 양국의 문화가 어떻게 영향을 주고 꽃피웠는지 살펴야한다"고 전시회의 의의와 양국 문화교류의 의미를 설명했다.

전시장을 찾기 전 인도불교미술에 대한 '기본기'를 익히는 것은 필수사항이다.

▲ 불교미술의 시원(始原)

불교미술은 탑과 사원 등의 부조에서 시작된다. 산치대탑 등 탑과 사원벽에 새겨진 부조들가운데 전시장에서는 '바르후트 불탑의 울타리 부조'를 만날 수 있다. 이 부조들은 석가모니 부처의 과거생을 설한 본생담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의 현생을 조각한 불전도 등이 주류이다.

기원전 1~2세기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바르후트 불탑은 1873년 알렉산더 커닝햄이 발견했다. 발견 당시 탑의 돔은 모두 사라지고 울타리의 남동쪽 4분의 1만이 남아있었다고 한다. 이 석재들은 원래 모습대로 복원돼 캘커타의 인도박물관에 전시돼있다.

▲ 불상의 탄생과 흥륭

우리가 불상을 유물로 보게 되는 것은 기원후 1세기경이다. 당시 간다라와 마투라에서 처음으로 불상이 만들어졌다.

인더스 강 상류에 자리 잡은 간다라의 문화는 인도 본토의 문화와 달리 이란과 서양고전문화가 영향을 미쳤다. 이 곳에서 헬레니즘 미술양식과 불교가 만나 간다라 양식이 탄생했다.



19세기 라다크에서 불교의식에 사용된 라마의 보관.

간다라 지역과 거의 비슷하게 불상이 제작되기 시작한 마투라가 조각의 중심지로 떠오른 것은 기원전 2세기. 불교조각은 기원후 1세기에 모습을 드러냈다. 마투라의 석조 조각은 적색 사암을 사용해 다른 지역과 확연히 구분된다.

전시에서는 간다라 탁실라 칼라완 사원지에서 출토된 1~3세기 작품 '마야 부인의 꿈' '붓다의 탄생' '학교에 가는 태자' '불전 장면' 등의 부조들이 눈길을 끈다. 2~3세기에 제작된 불입상, 채색된 불좌상 등 간다라 양식의 불상과 불두 불좌상 등 마투라 출토 불상들이 선보인다.

▲ 고전기의 불교미술

굽타 왕조가 지배한 기원후 320~550년은 인도 문명의 각 부문에서 완성이 이루어졌다. 당시 세계 어느 곳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물질적인 번영과 함께 문화적인 황금기였다.

장엄하고 우아한 마투라와 사르나트 불상, 아잔타 석굴의 화려한 채색벽화는 이 시대를 대표하는 불교미술이다. 이 시기에 제작된 사르나트의 다양한 불입상과 마투라 불상, 거기에 포스트 굽타시대에 나타난 오늘날 불상 형태와 유사한 불좌상이 전시장에 배치됐다.

▲ 새로운 신 다양한 형상

굽타시대 이래 점차 흥기한 밀교는 7세기에 이르러 본격적인 체계를 갖췄다. 이 시기는 밀교의 복잡한 도상들이 불교미술에 다양하게 반영된 때이기도 하다.

4~6세기 초기 밀교는 석가모니불을 주존으로 삼으며 관음신앙이 유행했다. 중기 밀교에서는 주존으로 마하비로자나가 등장하고 만다라를 수행에 사용했다. 8세기에 성립한 후기 밀교는 탄트라 불교라 불린다.

동인도 팔라시대의 불좌상 보관불좌상, 도리천에서 내려오는 붓다, 관음보살좌상, 스와트와 카슈미르의 관음보살상 등 다양한 상호와 양식의 불상들이 시대의 특성을 드러낸다.

▲ 경전화의 세계

이 코너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을 남긴 경전 필사본 가운데 네팔에 남아 있는 <팔천송반야경> 필사본과 다섯 수호여신경의 모음집인 <판차락샤> 필사본 등이 선보인다. <판차락샤> 필사본은 11세기 작업부터 17세기까지 세 종류의 필사본이 들어왔다. 13~14세기 <판차락샤> 필사본에 따르면 다섯 여신은 모두 색깔로 구분된다. 흰색은 마하프라티사라, 파란색은 마하사하스라프라마르다니, 노란색은 마하마유리, 초록색은 마하시타바티, 빨간색은 마하만트라누사리니이다.

▲ 남아 있는 전통

살아있는 종교미술로서 그 명맥이 끊긴 인도불교미술의 생명과는 달리 그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불교미술의 맥락이 이어지고 있다.

전시에 선보인 라다크에 남아 있는 19세기 보관은 티베트계 라마승이 불교의식 때 쓰던 것이다. 밀교 의식에서 라마가 장신구로 쓰던 펜던트와 38개의 산호와 76개의 마노구슬로 만들어진 염주, 붓다를 비슈누신의 아홉 번째 화신으로 간주했던 힌두교도들이 의식용 수레에 붙였던 불좌상, 불전을 새긴 상아 장식 등이 남아 있는 인도불교미술의 전통을 잇고 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11세기 동인도 팔라시대에 조성된 보관불좌상.



티베트 밀교의식에서 라마가 사용한 장신구.



인도 비하르에서 10세기에 제작된 팔대보살 부조.



네팔에서 제작된 <팔천송반야경> 필사본.

법회 참석 대중의 일체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 교보재

법요집 · 기초교리집 괘도 특별한정 보급!!

정기법회, 수련대회, 불교대학, 불교학교 등
법당에 걸어 비치만하셔도 법회의
원활한 진행은 물론 신도님들의
불교기초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법요집
- 삼귀의
- 찬양합니다
- 반야심경
- 입정
- 청법가
- 법문
- 정근
- 발원 및 축원
- 사홍서원
- 산회가
- 기타찬불가

● 기초교리
1. 불교란?
2. 부처란?
3. 대승과 소승의 차이
4. 사찰에서 쓰는 도구
5. 사찰경내 예법
6. 합장과 반배
7. 고두례
8. 예불문
9. 삼보
10. 삼귀의
11. 삼법인
12. 삼업
13. 삼학
14. 신도오계
15. 사성제
16. 사섭법
17. 십이인연
18. 육바라밀
19. 팔정도
20. 보왕삼매론

· 특별보급가 : 140,000원 (한정수량판매)
40쪽, 아이보리색 레자크지

괘도를 구매하시는 모든분께 고승열전도서 - 용성큰스님 운허큰스님 (정가16,000원) 2권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사은품은 선착순 100분께만 드립니다.)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주문전화 02-2004-8218~9
Mahamall.co.kr 02-732-1520

山蔘으로 효력을 못보셨다구요?!

蔓蔘(만삼)을 권합니다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심 산골의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겐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 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 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 없고 성질이 평하여 체질에 관계없이 男女老少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건강식품이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 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 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 기관지가 좋아졌다.
- 만성위염이 나았다.
- 사지무력증이 나았다.
- 천식이 떨어졌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임파선이 나았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변비가 나았다.
- 혈색이 좋아졌다.
- 기력이 좋아졌다.
- 백혈병이 나았다.
- 아프던 무릎관절이 안 아프다.
- 손발이 저리고 시린 것이 없어졌다.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마음으로 염가에 드리고자 합니다.
(생물 : 시중가 10㎏당 40만 원을 20만 원에 드리겠사오며, 단, 10㎏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 사은행사 :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감사드리는 마음을 담았습니다.(100분 한정)

~~● 1Box(60포 - 20만원)~~ 1Box(60포 : 15만원)
~~● 2Box(120포 - 35만원)~~ 2Box(120포 : 25만원)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563-8292 / H · P : 011-9242-8292
홈페이지 www.mansam.net
● 계좌번호 : 농협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하기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불확실한 시대의 평생직업! 자격취득을 위한 절호의 기회!

무료역학사 양성 특별강좌

귀의 상보하옵고 항상 좋은 만남이 되게 하소서!
금번 본원에서는 신도확보 및 포교의 일환으로 동양학 연구회의 자문과 강사진의 지원을 받아 역학사 자격취득을 위한 특별 무료강좌를 아래와 같이 개설코자 합니다.

무료역학사 양성 특별강좌

- 과 목 : 1.불교기초교리 및 예절, 동양철학 기초 (특별반, 일반인 대상)
2.전통명리학, 음택, 양택, 육효, 상담비법, 비방 (전문자격 취득반 대상)
- 개 강 : 2006년 2월 24일
- 일 정 : 매주 수 · 금요일 오후반 1~3시 저녁반 7~9시
- 기 간 : 특별반 1개월, 전문 자격반 5개월
- 자 격 : 불교 및 동양철학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학력 남여 년령 제한없음)
- 장 소 : 지하철 이수역(4,7호선 2번출구) 국민은행 뒷건물 4층(덕원정사)
- 특 전 : 우수자 본회 정회원 및 학술위원 위촉, 전문반 이수시 전원 취업보장, 전문상담실 개설시 전폭지원.
- 접수 : ☎ 02)533-6258, 1577-4940
- 접수기간 : 수시접수

※특히 사업기반이나 경험이 없고 직업이 없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주최 : 덕원정사 02)595-4167
지원 : 동양학 연구회



도원 스님은 새벽 · 사시 · 저녁예불과 10시간의 경전독송과 좌선으로 하루를 채운다. 힘드시지 않느냐는 질문에 스님은 "중의 할 일이 이것말고 또 있는가" 하신다.



관세음보살상 앞에서 '나무관세음보살'을 염송하고 있다.



도원 스님은 하루 세번 예불때마다 석탑을 돌며 12분의 아미타부처님 명호를 세번씩 왼다.



도원 스님이 한암 스님 밑에서 공부하던 시절 경전을 필사해 놓은 노트.

"사람 도리 하면 족하지"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도원 스님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예불 · 경전 · 독송 · 좌선으로 하루
"잘 사는 방법 묻는 이 없고
복만 달라고 하니 어리석은 일"

"스님, 덕담 한 말씀만 듣고 가겠습니다."

"나는 할 말이 없어요. 말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말할 줄도 몰라요."

무작정 뵙기로 작정하고 파계사 대비암을 오를 때만 해도 도원 스님께서 이렇게 완강히 취재를 거부하실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몇 말씀이라도 들어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간곡하게 청했다.

"경을 알고 싶으면 강사를 찾아가고 율을 알고 싶으면 율사를 찾아가면 되지 나한테 무슨 말을 들으려 하시오. 부처님 말씀에 알지 못하면서 말하면 죄가 된다고 했어요. 내가 나를 아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젊고 훌륭한 스님들 많이 있는데, 나이 80 먹은 노인한테 무슨 말을 들으려고…"

도원 스님 상좌로 스님을 모시고 있는 대비암 주지 법준 스님도 "멀리서 왔는데 몇 말씀 해 주시지요"하며 거들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간신히 사진 몇 장 정도는 찍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스님과 마주 앉았다.

현재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으로 원로회의 의장을 지낸 도원 스님. 도원 스님이 언론과의 접촉을 끊은 것은 2004년 3월, 3년간의 원로회의 의장직을 그만두면서부터다.

원칙과 소신이 뚜렷한 원로로 존경받고 있는 도원 스님. 하지만 그만큼 실망도 크셨던 것일까. 스님의 첫마디에서 그런 느낌이 들었다.

"파계사에 온지 30년 됐습니다. 주지를 23년간 하고 대비암에 올라온 지도 꼭 10년 됐어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찾아온 사람에게 나름대로 포교를 한다고 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요. 전혀 변함이 없어. 법화경이나 금강경을 묻는 신도도 없고, 잘사는 방법을 묻는 신도 하나 없습니다. 법문할 때 혼을 내도 복만 달라고 하니 말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지. 종단도 종단대로 걱정이 많고…."

겨울 초입에 든 감기 기운이 아직도 남아있어서인지 이따금씩 스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사실 스님은 요즘 그리 건강하지 않다.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신경을 써야 할 상태라고 법준 스님이 귀띔한다.

하지만 예불과 하루 10시간 이상의 기도는 단 한 차례도 거르지 않으신다고 한다.

"다 우리 스님네들 잘못입니다. 우리 국민성은 어디로 갔고 도덕성은 어디로 갔습니까. 내가 잘못했고 우리 스님들이 포교를 잘 못했기 때문입니다. 종단은 종단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걱정거리가 많으니…."

감자기 말씀을 하시다말고 이제 할 얘기 없다며 일어서시더니 가사를 수하신다. 저녁예불 시간이 된 것이다. 처소를 나선 스님은 법당 앞 석탑을 한 바퀴 돌고 난 후 석탑을 향해 절을 하시기를 세 차례 반복하더니, 법당 옆 대웅보전 앞에서 몇 차례 절을 하신 뒤 10여분 동안 정근을 하시고는 다시 법당으로 돌아와 예불을 올리셨다.

스님의 하루는 새벽 4시데 저녁예불 때와 똑같은 방식의 새벽예불로 시작된다. 오전 11시 사시예불까지 합쳐 하루 세 번의 예불을 빠짐없이 올린다.

탑을 돌 때는 염주를 돌리면서 <무량수경>에 나오는 12분의 아미타부처님 명호를 세 번씩 왼다. 그리고 요사채 옆 관세음보살상 앞에서는 나무관세음보살을 108번 염송한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1~2시간 가량 정근을 하신다.

스님은 새벽 · 사시 · 저녁 예불을 마치고 나면 어김없이 좌선을 하거나 경전을 읽으신다. 좌선과 독경하는 시간만도 10시간 정도나 된다. 거의 하루 종일을 예불과 경전독송과 좌선으로 보내고 계신 셈이다. 이따금 찾아오는 손님을 만나기는 하지만 인사를 받는 정도에 그친다.

여의치 않은 건강에 무리가 아니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스님은 "중의 할 일이 이것 말고 또 있는가" 하신다.

스님의 방은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다. 이런저런 장식품이 없어서인지 깨끗한 느낌이 더해졌다. 깔끔하고 소탈한 성격대로 스님은 꾸미는 것을 싫어하신다. 애지중지 하는 것도 없다. 있다면 하루 종일 스님 손을 떠나지 않는 염주 정도다.

다시 스님과 마주 앉았다. 인간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여쭈었다.

스님은 '사람 사이의 도리'를 강조하셨다.

"상대가 진심을 몰라준다고,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서운해 할 것 없습니다. 감동시켜 보겠다는 그 마음부터 버려야 합니다. 그저 도리만 다하면 됩니다. 누가 알아주길 바라면서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집착을 버리세요."

법준 스님이 도원 스님 몰래 도원 스님께서 젊었을 때 공부하셨던 공책 20여 권을 내보이셨다.

옛날 공책에 깨알 같은 글씨들이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빼곡하게 적혀있다. <화엄경> 등 각종 경전을 사경한 것이다. 상원사에서 한암 스님을 모시고 공부하던 당시 작성된 노트들이다.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 한자도 놓치지 않고 공부하려 했던 스님의 열의가 느껴졌다.

대비암은 노란 잔디로 겨울옷을 입고 있었다. 적당한 규모에 깔끔하고 온화한 법당 앞마당은 편안함을 느끼게 한다. 간간히 찬바람이 지나가는 법당 마루에 걸터앉으면 하늘과 땅 중간쯤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대비암은 스님을 닮았고, 스님은 대비암을 닮았다. 드러내놓지는 않지만 깊이 우러나는 사람 냄새가 대비암 구석구석에서 묻어난다.

도원 스님은 지금도 손수 삭발을 하신다. 도량 구석구석의 잡풀을 뽑고 이곳저곳 어루만지시는 일도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면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지금은 나이가 있으셔서 그렇지는 못하지만 손수 속옷을 빨아 입으셨던 도원 스님은 여전히 검소하고 소탈하다.

법준 스님은 도원 스님께 저녁 문안을 여쭙고 난 뒤 이런 말을 했다.

"노장님 모시고 사는 건 복이지요. 부처님 모시고 산다고 생각해요. 우리(상좌들)는 모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30년 뒤에 우리도 저런 모습이 될까' 하고요."

글=한명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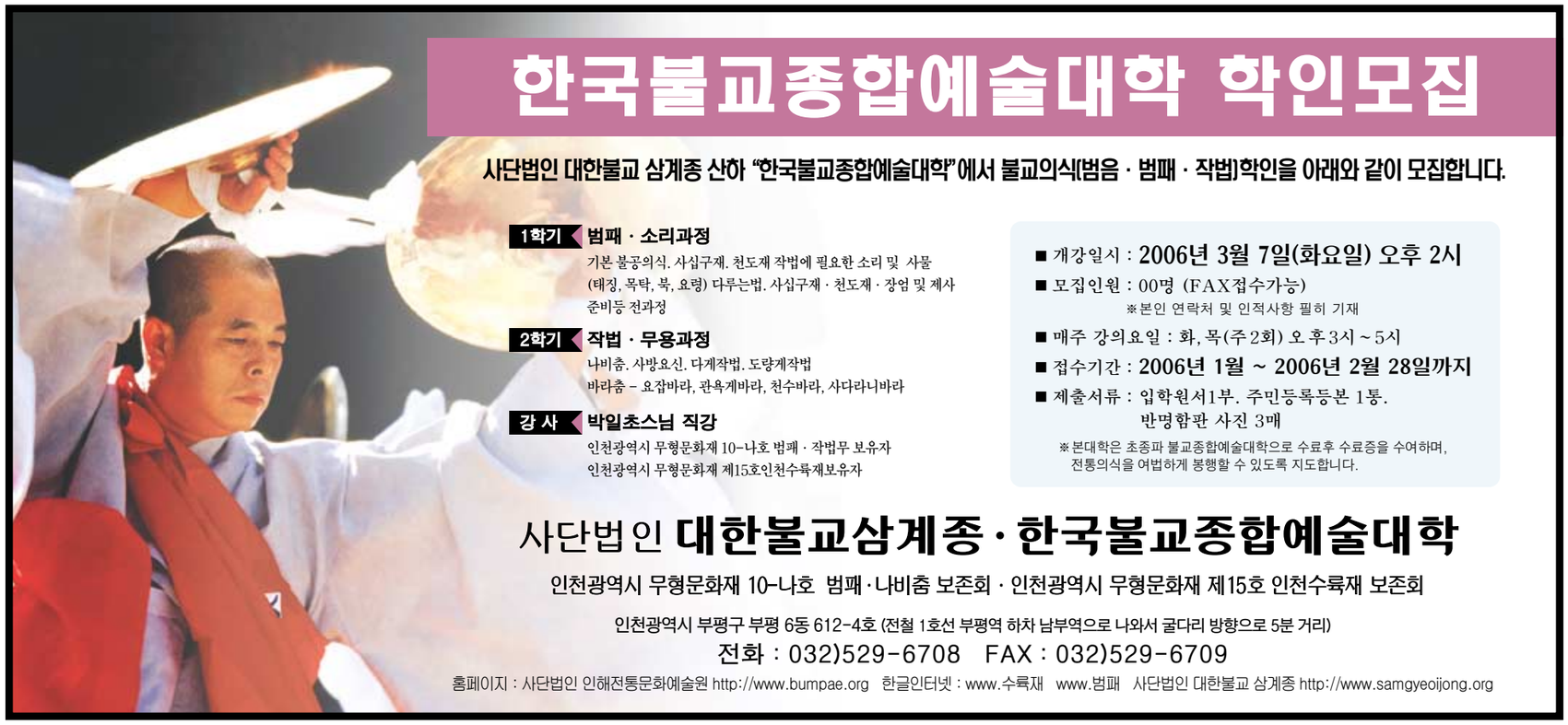
강직 · 소탈…신도대상 경전 강의

도원 스님은 1928년 경북 영천에서 태어나 41년에 파계사에서 고송 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51년에 동산 스님을 은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이후 월정사와 파계사 주지를 거쳐 학교법인 능인학원 이사장과 조계종 선관위원장 및 중앙종회의원, 동국학원 이사를 지내는 등 종단의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그 후 1997년부터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으로 활동했으며, 2002년부터 2004년 3월까지 원로회의 의장을 역임했다. 현재 원로의원으로 있으면서 파계사 대비암에서 10년째 주석해오고 있다.

강직하고 소탈한 성품으로 존경을 받고 있으며, 지금도 신도들을 대상으로 경전 강의를 하고 있을 정도로 신도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다.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 학인모집

사단법인 대한불교 삼계종 산하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에서 불교의식(범음 · 범패 · 작법)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학기 범패 · 소리과정
기본 불공의식. 사십구재. 천도재 작법에 필요한 소리 및 사물(태징, 목탁, 북, 요령) 다루는법. 사십구재 · 천도재 · 장엄 및 제사 준비등 전과정

2학기 작법 · 무용과정
나비춤. 사방요신. 다게작법. 도량게작법
바라춤 - 요잡바라, 관욕게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강 사 박일초스님 직강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작법무 보유자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5호인천수륙재보유자

■ 개강일시 : 2006년 3월 7일(화요일) 오후 2시
■ 모집인원 : 00명 (FAX접수가능)
※본인 연락처 및 인적사항 필히 기재
■ 매주 강의요일 : 화, 목(주2회) 오후3시 ~ 5시
■ 접수기간 : 2006년 1월 ~ 2006년 2월 28일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1부.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본대학은 초종파 불교종합예술대학으로 수료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삼계종 ·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나비춤 보존회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5호 인천수륙재 보존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 6동 612-4호 (전철 1호선 부평역 하차 남부역으로 나와서 굴다리 방향으로 5분 거리)
전화 : 032)529-6708 FAX : 032)529-6709
홈페이지 : 사단법인 인해전통문화예술원 http://www.bumpae.org 한글인터넷 : www.수륙재 www.범패 사단법인 대한불교 삼계종 http://www.samgyeoijong.org

집착해서 무얼 얻는가

도원 스님의 가르침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집착에 얽매이게 됩니다. 어떤 이는 집착하는 자신을 경계하면서도 순간순간 그 경계심을 놓치며 집착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 뜻대로 따라주길 바라는데, 이것도 큰 집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집착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집착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새겨봐야 합니다. 집착하게 되면 결국 자기 마음의 골만 깊어집니다. 그래서 선지식들은 집착하는 그 마음을 놓아버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나무관세음보살을 자꾸 불러보세요.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수시로 그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관세음보살을 부르라 이 말입니다. 집착이 깊어지면 병이 됩니다. 그 때는 상대가 변해도 변한 줄 모릅니다. 상대가 따라주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해서 원망하면 집착을 벗을 수 없습니다. 이유없이, 조건없이 이해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더 좋은 방법은 내가 먼저 이해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그만큼 못해주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가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사람이 모여 살면 반드시 양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싸움이 됩니다. 나한테 안 맞아도 양보할 줄 알아야 화합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죄 가운데 가장 나쁜 죄가 화합해서 잘사는 대중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욕심없이 사람을 대해야 하는데, 욕심을 갖고 대하니까 제대로 안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저마다 욕심을 부린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보면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웃을 생각하지도 않고,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든 알 바 없다는 식이에요. 대가도 없는데 굳이 희생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참음은 대가없는 참음이 돼야 해요. 극기라는 말은 자기 마음을 스스로 조정할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화를 삭이고 표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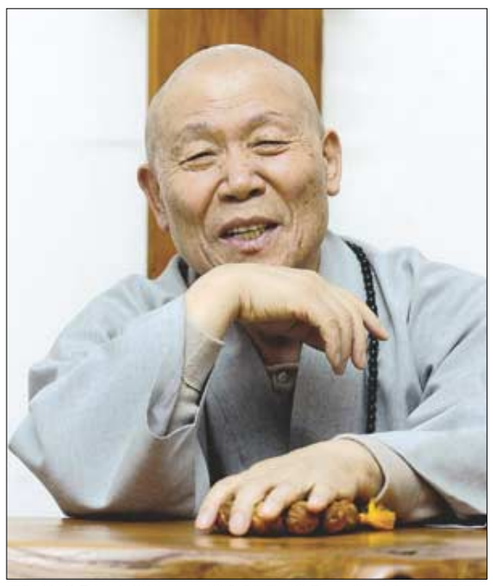
생각해보세요. 신경질 부린다고 무엇이 달라집니까. 신경질 부리는 순간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노력한 대가만큼 받아서 산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설혹 대가보다도 덜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복을 저축하는 것이니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생각입니다. 복은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것입니다. 오늘 업을 지으면 내일 그 결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운명을 개척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복을 잘 지어서 그 결과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인(因)을 짓지 않고 어떻게 좋은 과(果)를 바라겠습니까. 좋은 인을 짓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과 행동을 착하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복이 바탕이 돼야 합니다. 복력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남을 원망하는 마음은 자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데 세상에 벌어질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내가 있음으로해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모두가 자기가 지은 업에 의한 것이니, 좋고 나쁨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 업으로 여기고 그 업을 녹일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매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능히 참는 것을 보살심이라 하고, 참지 못하면 중생심인 것입니다. 그냥 참는 것하고 욕된 것을 참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욕된 것을 참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까지도 능히 참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욕입니다. 그리고 인욕은 하심할줄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경계에 부닥치면 가르침을 잊고 본성이 드러나기 쉽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챙겨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나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남의 힘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늘 땅 물 불 공기의 힘으로 살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나를 살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니, 그 은혜가 막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마움을 몰라요. 왜 자연재해가 많아졌겠습니까. 아끼고 돌봐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도원 스님은 집착에서 벗어나 보살심을 일으키고 복을 짓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람도 마찬가집니다. 사람 인(人)자는 서로 더불어 의지하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더불어 살아야 하는 것이 사람인데 혼자만 잘 살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 광활한 천지 속에 나 혼자 있다고 해봐야 살 수 없습니다. 이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 보면 고맙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에게 고마운 생각을 갖는다면 불평할 게 없지요.

이웃 있기에 내가 있으니 고마움 알아야

타인 원망말고 조건없이 이해하고 용서를

내 생각과 행동이 남에게 어떤 피해가 가는가를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교육으로 이것을 극복해야 하는데, 요즘은 상급학교 진학하는 데만 온 신경을 쓰느라 인성교육은 무시하고 있어요. 그러니 인성이 메마르고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법당에서 법문을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였다가 법문이 끝나고 공양간에 가면 딴 행동을 합니다. 불과 몇 분도 안돼서 법문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던 것조차 잊어버립니다. 그럴 바에야 법문을 왜 듣습니까. 선지식들의 가르침을 왜 들으려 합니까.

법문이 너무 흔합니다. 어려운 속에서도 법문을 들으려는 마음이 일어나야 진짜 법문이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좋은 말을 해준다고 해서 법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이 들은 대로 따르려고 노력해야 법문인 것입니다. 사경을 왜 합니까. 사경을 하면 공덕이 되고 공부가 된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경을 하면서 온갖 욕심이 머리 속에 꽉 차 있으면 공덕이 되고 공부가 되겠습니까. 법문이 되고 안 되고는 말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리=한명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52>



놓친 기차는 아름답지 않다 (2)

"당신은 누구십니까?"

부처님이 종종 사람들에게 받은 질문입니다.

아마 제일 먼저 이런 질문을 받은 때는 보리수 아래에서 세상으로 걸어 나오던 그날일 것입니다. 우파가라는 남자가 길을 가다가 막 깨달음을 이룬 부처님을 만났는데 너무나도 맑고 편안하고 담담한 모습에 자기도 모르게 합장을 하고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먹고 사느라 안달복달 애면글면 제 속을 태워서 표정이 일그러지고 어두운데 당신은 대체 어떤 사람에게 좋은 말씀을 들어서 그리도 평화로워 보입니까?"

"나는 번뇌라고 하는 원수를 지혜의 칼로 항복시키고, 괴로움에 빠진 사람들을 구제하려는 붓다입니다."

우파가는 '나는 붓다'라는 부처님의 대답에 이렇게 대꾸합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이만. 나는 지금 바쁜 일이 있어서…."(불소행찬)

만약 그가 바쁜 일 모두 접어두고 대체 뭘 깨달았기에 붓다라고 하는지를 자세하게 물었다면 그의 삶은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가장 '따끈따끈한' 깨달음의 소식을 챙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숨돌릴 겨를조차 없이 '바쁘다' 외치는 당신

가장 시급한 일이 뭔지 깊이 생각해 보셨나요

우파가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도 있긴 합니다.

어떤 80세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평생을 쓰고도 남을 큰 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인색하고 완고하였습니다. 게다가 집을 증축하느라 여념이 없었지요. 평생의 역작이라도 만들어내려는 듯 노익장을 과시하며 어마어마한 대저택의 공사를 손수 지휘 감독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가만히 살펴보시다 이 노인의 수명이 그날 하루뿐인 걸 알아차리셨습니다. 얼른 달려가셨지요.

"노인장,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이 집은 누가 살려고 이렇게 화려하게 짓고 있습니까?"

노인은 자랑스럽게 대답하였습니다.

"앞 사랑채에는 손님을 대접하고 뒤채 별당에는 내가 살고 자식들이며 하인들도 방 하나씩 주어야 하고…."

"내가 오늘 생사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리고 싶은데 잠깐 일을 멈추고 여기 앉아 내 말을 좀 듣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지금 바빠서…. 다음에 오시오."

그런 노인에게 부처님은 생사에 관한 시를 읊었습니다만 노인은 성가시기만 해서 그저 "잘 알았으니 다음에 오시오."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까래가 떨어져 노인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법구비유경>

우파가와 노인, 이 두 사람은 똑같이 '바쁘다'고 말합니다. 진짜로 가장 바쁘고 급한 일이 대체 뭘까요? 그것부터 한번 곰곰이 생각해볼 일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아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 그리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힘들다', '괴롭다'라는 말은 무수하게 쏟아내는데 정작 왜 힘들고 괴로운지를 차분히 알아볼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무엇인가를 이루어 그 힘들고 괴로운 순간을 모면해 볼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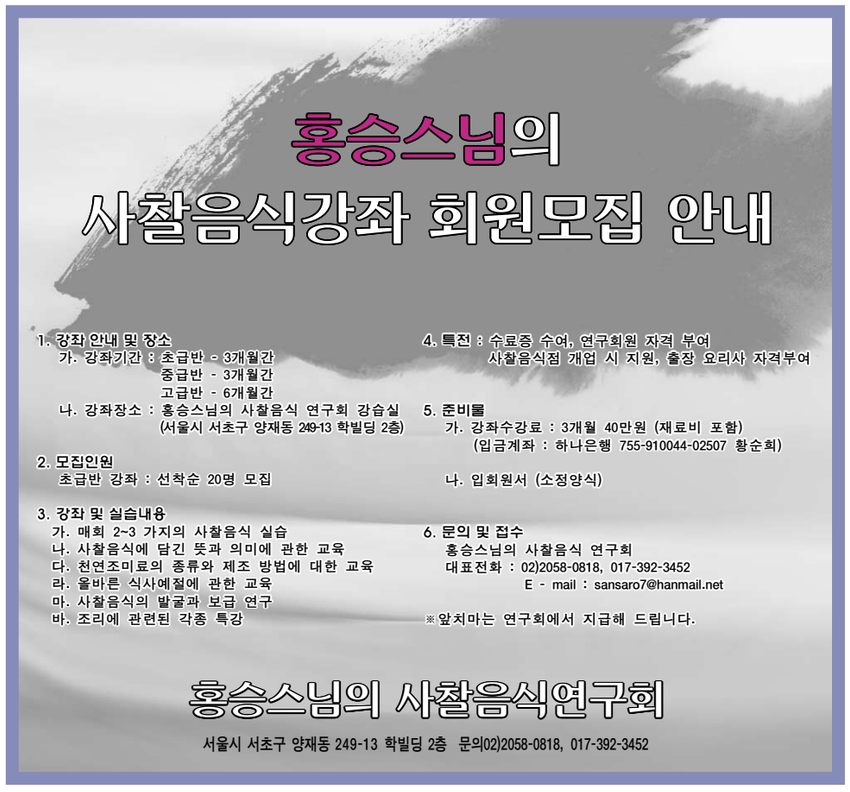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려는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자기는 지금 여기에 생존해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확인시키려는 마음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시키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왜 불안할까요? 왜 인간은 매순간순간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한 것일까요?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되어버릴까 두려워서 말입니다.

부처님은 '왜 인간은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가'에서부터 사색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 이유를 냉철하게 따져 들어갔더니 열두 번째 단계에서 '어리석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음은 다른 것에 대한 어리석음이 아니라 자신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요, 그 어리석음이란 것은 바로 내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도 아울러 밝혀낸 분입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중생들 하나하나에게 들어 있음을 깨달은 분입니다. 그것을 알고 나서 그 열두 단계의 이유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세상으로 걸음을 놓으신 분인데 우파가와 노인은 그걸 놓치고 만 것입니다. 행복의 땅으로 가는 기차를 말입니다. 어찌 애석하다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계속)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궁합이 맞아야 맛난다"

차와 다구에도 궁합이 있어요

'장맛은 뚝배기'라는 말이 있다. 차와 다구에도 서로의 맛과 멋을 살려주는 '궁합'이 있다. 보이차를 자사호에, 홍차를 도자차호에 우려마시는 것은 차의 특징을 가장 잘 살려주는 다구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 청담동에 문을 연 중국차 전문점 천재향(대표 이우정)의 티소믈리에 박수연 점장(31)에게 백차, 화차, 대만 오룡차, 보이차에 각각 어울리는 다구와 간편 다법을 배워본다.

▷ 백차는 유리다관





백호은침, 백목단 등 찻잎이 바늘처럼 뾰족한 모양의 백차(白茶)는 우릴 때 차호 밑으로 가라앉으며 꼿꼿이 선다. 이러한 차의 특징을 가장 잘 살필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리다관이다. 다관에 물을 반 정도 붓고 찻잎을 넣은 후 다시 뜨거운 물을 붓는 중투법(中投法)으로 우리는 것이 좋으며 찻잎이 천천히 밑으로 떨어지므로 5분 정도 기다리며 감상한다.





1. 유리다관에 뜨거운 물을 반쯤 붓는다.
2. 찻잎을 넣는다.
3. 찻잎 위로 뜨거운 물을 붓는다.
4. 백차는 다관 밑으로 떨어져 꼿꼿이 설 때, 공예차는 꽃이 다 피면 충분히 우러난 것이므로 찻잔에 따른다.

▷ 화차는 개완배









쟈스민차 등을 비롯한 화차(花茶)는 뚜껑이 넓은 개완배(蓋碗杯)를 이용해 우리면 개완배 뚜껑으로 꽃향기를 음미할 수 있다. 사기로 만들어진 개완배는 차의 향과 맛을 잘 흡수하지 않으므로 다양한 화차를 우려 마시는데 적합하다. 사용법은 간편하지만 열전도율이 높아 손을 델 우려가 있으므로 조심히 다뤄야 한다.

1. 뜨거운 물을 개완과 찻잔에 부어 예열시킨 후 따라 버린다.
2. 차를 개완에 넣고 뜨거운 물을 따른다.
3. 찻잎이 잘 우러나도록 개완을 잡고 좌우로 살짝 돌린다. 이때 개완 뚜껑을 이용해 거품을 살짝 걷어내도 된다.
4. 찻물이 우러나면 엄지와 중지로 잔의 입구를 잡고 검지로 윗부분을 누른 후 차를 마신다. 손님에게 낼 때는 찻잔에 따라 낸다.

▷ 대만 오룡차는 문향배









철관음이나 동정오룡 등과 같이 향기가 좋은 차는 문향배(聞香杯)를 사용하면 그 향을 더욱 깊이 음미할 수 있다. 문향배는 대만에서 개발된 것으로, 차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길쭉하게 생긴 잔을 말한다. 문향배에 담긴 차를 찻잔에 천천히 따르고 문향배를 손으로 감싸 쥔 뒤 향을 맡는다.

1. 다호(찻주전자)에 물을 붓고 그 물을 다시 다배(찻잔)에 부어 예열시킨다.
2. 다호에 차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우린다.
3. 첫 번째 우린 물로 문향배를 예열시킨다.
4. 다시 다호에 물을 붓고 문향배에 담긴 첫 번째 우린 찻물을 다호 위에 부어준다.
5. 찻물이 우러나면 문향배에 차를 따르고 다배에 엎어 손님에게 낸다.

▷ 보이차는 자사호









자사호란 중국 강소성 의흥지방에서 나는 독특한 흙으로 만든 차호를 말한다. 자사호는 표면에 미세한 구멍이 많아 공기가 잘 통하므로 차 맛을 뛰어나게 하고 향을 빼앗지 않으며 찻물을 고온으로 유지시켜준다. 보이차는 뜨거운 물로 우려야 제 맛이 나므로 물이 빨리 식는 사기나 유리 재질의 다호 대신 자사호를 이용한다.

1. 뜨거운 물을 다호와 다해(숙우), 다배에 부어 예열을 시킨 후 따라 버린다.
2. 찻잎을 다호에 넣고 뜨거운 물을 따른다. 찻잎이 충분히 적셔지면 찻물을 다해와 다배에 부어 차향이 스미도록 한다.
3. 다호에 다시 뜨거운 물을 부어 차를 우린다. 이때 첫 번째 우린 찻물은 다호 위에 부어준다.
4. 두 번째 우려낸 차를 거름망을 둔 다해에 부은 후 찻잔에 따라낸다.

글=여수령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瑞榮普洱
진년보이 · 진년오룡 · 철관음 · 오룡차
대흥포 · 화차 · 인삼오룡 外 40여가지의 茶
보이차 전문점
■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짱유화 교수의 보이차 이야기



5. 보이차의 수송길-다마고도



다마고도를 따라 북경으로 가는 행렬.

중국인들은 흔히 길을 가리켜 '마로(馬路)' 즉 말이 다니는 길이라고 한다. 하긴 옛날 교통수단은 모두 말로 이루어졌으니 그러한 단어도 나올 법도 하다. 보이차의 운송도 이러한 '말길'을 이용해 이루어졌다.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보이차의 운송길이 보이차가 뜨자 덩달아 유명세를 타고 있다.

15년 전 운남대학 무치홍(木霽弘) 교수 일행은 최초로 이 길을 답사했다. 아니 차라리 탐험이라 말해야 옳은 듯싶다. 그들이 답사한 길은 운남에서 출발해 티베트까지 가는 산길이었는데, 너무나 장엄할 뿐만 아니라 극도로 험악하기도 했다. 어느 산길은 목숨을 내놓아야 비로소 지나갈 수 있는 길도 있다고 한다.

이름조차 없던 이 길이 무치홍 교수에 의해 '다마고도(茶馬古道)'라 명명됐고, 불과 15년이란 짧은 세월 사이에 이젠 다마고도를 모르고선 차를 안다고 행세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명해진 것이다.

지금까지 발견된 자료에 의하면 보이차 운송길 즉 다마고도는 6개가 있다고 한다. 이 길들은 대부분 청나라 때 보이차 상점들이 즐비한 이무(易武)에서 출발해 곤명(昆明)을 거쳐 북경으로 간다. 보이차를 조공하는 길을 가리켜 '보이관마대도(普洱官馬大道)'라고 한다. 작년 중국운남공산당청년단은 120필의 말에 보이차를 가득 실어 이 길을 8개월간 걸어 북경에 도착했다. 실로 166년 만에 재현한 조공의 길이었다.

다마고도 중 가장 험한 길은 역시 티베트로 가는 길이다. 이 길 역시 이무에서 출발해 하관(下關)과 샹그리라(香格里拉)를 거쳐 티베트에 도착하는데, '보이관장다마대도(普洱關藏茶馬大道)'라고 한다. 보이병차의 무게가 왜 편당이 357g이고, 왜 한 통이 7개여야 하며 왜 12통을 한 대바구니에 담아야 하는지의 의문은 모두 여기서 해답을 얻을 수가 있다.

티베트로 가는 보이차 운송 말은 사실 대부분 당나귀와 노새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이 말보다 몸집은 작지만 체질이 강하고 거친 먹이를 잘 먹으며, 지구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말, 당나귀, 노새(이하 말로 지칭함)가 하루 걸 수 있는 길이 60km라고 한다. 이에 대부분 60km마다 하나의 마역(馬驛)이 있다고 한다. 말 한 필이 부담할 수 있는 화물의 무게는 60kg이다. 즉 화물의 무게가 60kg을 넘지 않아야 비로소 하루 60km를 갈 수 있다는 얘기다.

북경으로 향하는 보이차 운송길 6개 발견
다마고도 재현하며 병차 무게 등 의문 풀려

이런 조건들을 모두 헤아려 만들어진 것이 보이차의 무게 즉 357g이다. 357g×7편이면 한 통이 2.5kg이 된다. 2.5kg씩 12통이면 한 대광주리가 되는데, 이것이 30kg으로 말의 양쪽에 대광주리 각각 하나씩을 실으면 정확히 60kg이 된다. 이것이 보이차의 무게가 왜 357g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다.

예로부터 보이차는 대부분 동남아로 수출됐다. 운남의 접경나라인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이 주 대상국이었다. 보이차는 이 나라들을 거쳐 태국, 홍콩, 마카오까지 이르렀다.

작년 '다마고도 북경조공 만리길'의 성공은 많은 상인들에게 부를 안겨주었다. 이에 더 없이 좋은 돈벌이를 놓칠 리 없는 상인들이 어느 길이든 어느 곳이든 보이차를 말에 실고 '다마고도의 재현'이라는 명분을 달고 상혼을 발휘하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금년만 해도 운남에서 3개의 각기 다른 다마고도의 재현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한다. 티베트를 거쳐 이탈리아의 로마로, 복건(福建)에서 바다 건너 타이완으로 그리고 북경과 북한을 건너 한국으로 온다는 계획도 있다고 한다. '다마수도(茶馬水道)'라는 명칭도 이제 멀지 않아 생길 것 같다.

■ 한서대학교

밀납양초 (Bee's Candle) 2006年 新製品
삼보귀의 하옵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 전문 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 개발중 이번에 밀납양초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래 있는 양초외 행사용, 기도용 주문제조 판매)
양초가 연소되면서 나는 향만이 천연 향 입니다. 국내외에서는 밀납양초 약쑥향양초 등이 있습니다.



천연약쑥향 양초의 특징
① 일반양초보다 연소시간이 40%이상 길어진다.
② 실내에 배어있는 악취를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③ 천연쑥향이 양초가 연소되면서 은은히 실내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머리를 맑게하여 진취적 사고를 솟아나게 합니다.
천연약쑥향 양초 (발명특허 122357호)
국내 산천에 자생하는 약쑥에서 추출한 향이 첨가된 발명품

• 밀납초 전사지 반야심경 1호 59中 × 18cm 연소시간 約 72시간
• 밀납초 전사지 반야심경 3호 47中 × 14cm 연소시간 約 30시간
• 밀납초 전사지 반야심경 4호 47中 × 9.5cm 연소시간 約 24시간
• 약쑥향양초 1호(돈타대) 5.6中 × 27cm 연소시간 約 100시간
• 약쑥향양초 2호(밀대) 4.6中 × 25cm 연소시간 約 40시간
• 약쑥향양초 3호(돈타대) 3.4中 × 22.5cm 연소시간 約 2시간
• 금강경 7개 세트 59中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밀납초의 특징
① 그을음이 없습니다. ② 연소 시간이 일반양초보다 2배이상 길어집니다.
③ 연소되면서 벌꿀향이 은은히 실내를 가득채워 실내공기를 정화 시킵니다.
④ 지금까지 양초에서 발생하는 내음새 그을음을 한꺼번에 해결하였습니다.
⑤ 토종벌집에서 추출한 밀납이니 순수한 우리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생각하시어 양초도 선별하여 사용하시고 기도하실때는 반드시 밀납양초를 이용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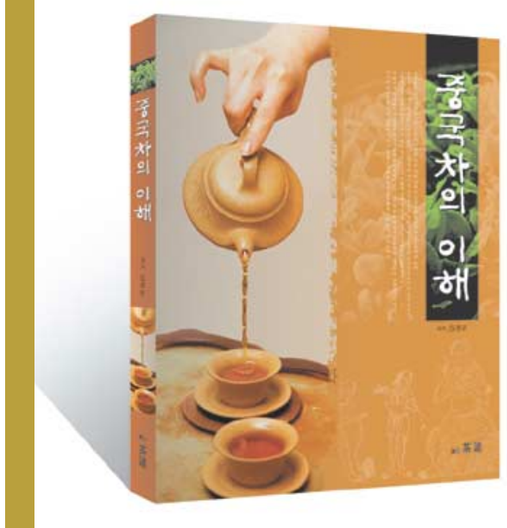


• 1호 59中 × 18cm 연소시간 約 72시간 以上 • 2호 59中 × 13cm 연소시간 約 50시간 以上
• 3호 47中 × 14cm 연소시간 約 30시간 以上 • 4호 47中 × 9.5cm 연소시간 約 24시간 以上
• 밀납초 받침대 1호~4호까지 사용 • pc컵초 7시간 以上 • 선물용 세트(1~4호 밀납초 받침대)

※ 팩스로 주소 보내주시면 견본이나 팜플렛 보내드리겠습니다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드디어 발간되었습니다.
중국차의 이해!
차문화가 급속하게 보급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우리 국내는 상당부분 중국차가 보급되어져 있다.
또한 우리가 중국을 여행 하면서 차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선물을 받아 집에는 한두 종류의 중국차는 누구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선물을 받았으나 이 차가 무슨 차인지 어떻게 우려 마시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 책에서 소개되는 내용들은 필자가 현장을 직접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내용을 정리 하여 중국차가 만들어지는 과정
자사호 제작과정 차를 판매하는 시장 등을 소개하여 쉽게 중국차를 이해 할수 있는 책이다.



중국차가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 알고 싶으세요?
자사호(紫沙壺)에 대해 알고 싶다고요?
중국차 우리기에 대해 알고 싶다고요?
중국차의 이해를 보시면 이 모두를 알 수 있습니다.
중국차의 현장을
현재 진행형으로 생생하게 기록한 중국차 지침서

컬러(183×235), 288페이지
가격 : 24,000원
저자 : 김경우

구입문의 : 월간 다도 Tel : 02)722-7777

나트륨 섭취 반으로 줄이세요



한국인, WHO 1일 권장량의 2배 섭취

저염 소금, 저염도 김치, 음식 소금량 측정기…. 올해 들어 소금 섭취를 줄여주는 아이디어 상품이 쏟아지고 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소금 섭취량은 좀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음식은 짭짤해야 제 맛"이라는 인식과 장류·절임·찌개류가 주를 이루는 식습관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최근 특별팀을 구성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나트륨 섭취기준을 만들기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가공식품 전체에 나트륨 함유량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소금의 주성분을 이루는 나트륨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적게 먹을 수 있는지 알아본다.

▷ 얼마나 먹고 있나?

소금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나트륨(Na, 영명 Sodium)은 우리 몸의 수분량을 조절하는 중요한 영양소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세계보건기구(WHO)의 1일 권장량(2000㎎)의 2배를 웃도는 4900㎎ 섭취하고 있다고 한다(2001년 한국인 국민건강·영양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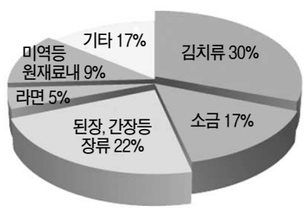
이는 식품의약품안정청과 한국영양학회에서 정한 성인 1일 나트륨 섭취 제한량인 3450㎎ 보다도 훨씬 많은 양이다.

만성적인 나트륨 과잉 섭취는 혈액과 체액의 일정한 염도를 교란시켜 고혈압, 신장병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위점막에 영향을 줘 위축성 위염과 위산 감소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심장병이나 뇌졸중, 골다공증,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특히 나트륨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

장류와 김치·장아찌 등의 절임식품이 발달한 우리의 식생활에서는 조금만 방심해도 필요 이상의 나트륨을 섭취할 수 있다. 특히 김치(10조각에 1000㎎) 김치찌개(1인분 950㎎) 자반고등어(1토막 1500㎎) 칼국수(1인분 2900㎎) 등에 많은 양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소금만 덜 먹는다고 나트륨 섭취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라면, 즉석우동, 햄, 소시지 등의 완전조리식품과 통조림을 비롯해 빵, 치즈, 토마토주스, 캔 커피 등에도 적지 않은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피자, 햄버거 등의 패스트푸드도 예외는 아니다.

■나트륨, 어떤 음식에서 많이 섭취할까



※한국인 국민건강·영양조사 (2001년 보건복지부) 1인 1일 평균 섭취량 자료

장류 절임 찌개류, 인스턴트음식에 많아

과잉섭취시 고혈압·신장병·위암 유발

■소금 종류 알고 쓰세요

● 굵은소금: 바닷물을 증발시켜 소금의 간수만 빼낸 천일염을 말한다. 무기질과 수분의 양이 많지만 불순물 함유량이 높아 식용으로 바로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우리나라에서는 배추를 절이거나 장류 담을 때, 생선을 절일 때 사용한다. 천일염은 물에 한 번 씻어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 볶음소금: 천일염에 물을 부어 간수와 불순물을 제거한 후 고온에서 볶아낸 조리용 소금이다. 짠맛이 강하지 않아 무침이나 생채 등에 사용한다. 염도가 낮고 부드러우며 색깔은 약간 거무스름하다.

● 구운소금: 천일염을 고온에서 장시간 구운 것으로 유해물질이 제거된다. 단, 굽는 과정에서 일정 온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유해물질은 제거되지 않고 미네랄만 제거되므로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한다.

● 꽃소금: 천일염을 물에 녹인 뒤 100~200℃ 솥에서 끓여 불순물을 제거한 후 수분을 증발시켜 만든 소금. 염도가 낮으며 각종 반찬, 국 찌개 등에 쓰인다.

● 맛소금: 염화나트륨만 추출한 순도 높은 정제염에 조미료 성분인 글루타민산 나트륨(MSG)을 겉에 입힌 소금이다.

▷ 이렇게 줄여요

① **집에서-**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입맛을 바꾸는 것이다. 물론 어릴 때부터 짜게 먹는 습관이 밴 사람이 입맛을 바꾸기란 쉽지 않다. 처음에는 싱거운 음식을 먹으면 '맛이 없다'고 느끼지만 2주 정도만 지나면 입맛이 바뀌게 된다.

음식을 할 때는 소금 고추장 등의 양념 대신 고춧가루, 후추, 마늘, 생강, 양파, 겨자, 식초 등으로 맛을 낸다. 소금을 사용할 때에는 조리가 완전히 끝난 후 넣어 간을 맞추고, 가능한 정제염이 아닌 천연 소금을 사용한다. 국의 간을 맞출 때 소금 대신 간장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 화학조미료는 가능한 사용을 자제한다.

가공식품(라면, 즉석국 등)을 조리할 때는 스프의 양을 조금 줄여서 넣고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먹는다. 또한 햄이나 어묵 등은 끓는 물에 한 번 데치고 케첩, 버터, 마요네즈 등에 담긴 '숨은 나트륨'도 가능한 줄여 나간다.

국에 밥을 말아 먹으면 국물까지 다 먹게 돼 나트륨 섭취도 그만큼 늘어난다. 국이나 찌개는 건더기만 건져 먹고 국물은 남긴다. 오래 두고 먹는 젓갈이나 장아찌 등의 짠 밑반찬도 나트륨의 주공급원이다. 밑반찬 양을 줄이고 신선한 야채로 만든 반찬은 많이 먹는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만큼이나 칼륨 섭취를 늘이는 것도 중요하다. 칼륨은 나트륨 흡수를 조절하고 심장질환, 발작 등을 막아주는 영양소다. 시금치, 표고버섯, 마늘, 쑥갓 등 신선한 야채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고구마 속의 칼륨은 체내의 과도한 염분을 체외로 배출시켜 고혈압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② **외식할 때-** 식당에서는 화학조미료와 소금을 많이 사용해 맛을 내므로 가급적이면 외식을 삼간다. 부득이하게 외식을 할 경우 '싱겁게 해달라'고 주문한다.

찌개나 전골은 건더기 위주로 먹고 갈비탕이나 설렁탕 등에는 추가로 소금을 넣지 않는다. 피클은 일반 오이보다 소금 함량이 200배나 많으므로 적게 먹는다. 수프 대신 마요네즈 등을 뿌리지 않은 샐러드를, 조린 음식 대신 찐 음식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부득이 짠 음식을 먹게 됐다면 물을 많이 마셔 위장 속 소금의 농도를 낮춰 준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도움말=식품의약품안전청

5000원으로 만드는 사찰음식 〈6〉

오렌지 소스-산사에서 맛보는 색다른 소스



'샐러드'라고 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나물'을 꼽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서양의 음식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신선한 야채를 날것으로 먹는 것을 샐러드라고 부르고 있고 거기에는 또 소스가 곁들여지게 마련입니다.

사찰 음식을 공부하는 저로서는 이런 샐러드 문화에 조금 속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고유 나물과 음식 문화가 식탁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하고요. 절 친딸같이 아껴주시는 스님 한 분은 이런 고민을 하는 저에게 "수입품이면 어때. 그 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 올 때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을 것이고, 외국 사람도 아주 소중하게 농사지었을 거야. 그러니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먹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렌지를 까서 제 입에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오렌지 껍질이 버려지는 것을 보고 '뭐 만들 것이 없을까' 궁리하다 만들어 낸 것이 오렌지 소스입니다.

오렌지는 수입품이라 껍질에 농약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이런 잔류 농약을 없애기 위해서는 베이킹소다를 탄 물에 여러 번 세척하고 흐르는 물에 헹궈야 합니다. 그렇게 농약을 제거한 오렌지 껍질과 무채썬 것, 사과, 상추 등과 버무려 간편하게 샐러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오렌지 등 감귤류의 껍질에는 비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소화도 도와준다고 하니 맛과 영양도 함께 챙길 수 있겠죠?

오렌지 샐러드를 만들고 난 후 저는 '이 음식이 만들어지기까지 수고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자(計功多少 量被來處)'는 스님의 가르침을 더욱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은 이 글을 부엌에 붙여 두고 그 뜻을 새기며 음식을 만드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음식을 만든 사람의 정성을 생각하게 돼 항상 건강을 유지할 만큼의 적당량만 먹도록 노력하고, 남은 음식이 버려지지 않도록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만들고 먹는 것을 생활 속의 수행으로 이어가는 많은 불자님께 '나무관세음보살'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만드는 법





〈오렌지 소스〉 재료: 오렌지 1개, 오렌지주스 1컵, 설탕 1큰술, 전분물 1큰술

① 오렌지는 소다 물로 여러 번 세척해 껍질만 아주 가늘게 채 썬다.

② 오렌지주스 1컵에 설탕을 넣고 끓이다가 끓어오르면 전분물을 넣어 농도를 맞춰준다.

③ 한번 끓고 난 후 오렌지 껍질 채를 넣어 불을 끄고 식혀준다.

※맛내기 포인트: 오렌지 소스는 즉석으로 버무려 먹는 나물과 각종 샐러드, 해산물 요리에 어울린다.

▶다음 주에는 냉이전과 표고버섯구이를 만들어 봅니다.

■ 박상혜(사찰음식연구가)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새해를 맞이 하시어 부처님의 가피로,
불자님의 가정에 더 큰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백년가약
사랑스런 자녀의 혼인을 현대에서....
2006년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밀어주신 은혜,
보은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합장

위치안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2)2677-5442
소연구원 : 032)345-5411
휴대폰 : 011) 288-2944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 기초과정
● 전문가과정 ❶ 맥진반 ❷ 사암침술반 ❸ 즉효요법반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실습 위주 강좌
▶ 개강 : 2006. 3. 6
월·화반, 수·목반(주·야간반 : 3개월 완성)
토·일 전문가 과정
※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주말반 수시접수
명리전문가과정 정통풍수강좌
사 암 침 술 학 회
● 서 울 : 종로 3가 국민은행 4층(지하철1호선 1번 출구)
문의 : 02)747-9136. 011-307-2975
● 부 산 : 부산시 진구 전포동 부전동지하철 8번출구
문의 : 051)804-8571. 018-312-7110

퇴행성 관절염
〈신물질 충격 요법〉
약사 나경환 지음
지긋지긋한 관절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관절, 허리 근육이 굳어있거나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몸이 뻣뻣하신 분, 고혈압, 심근경색, 뇌혈전, 동맥경화, 고지혈증, 불면증, 만성두통, 정맥류, 손 발저림, 혈액순환장애로 고생하시는 스님과 불자님들께 희소식을 전합니다
※ 전화주시면 책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주문전화 02)3436-3206
도서출판 건강한 세상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불화 속의 명장면 (3)

日 고베 다나카家 소장 '비로자나불도'

졸고 웃고 노래하는 표정의 화엄



일본 고베 다나카가(家)소장 비로자나불도(毘盧遮那佛圖)의 부분.

생생한 표현력과 조선 특유의 유머스런 터치 십분 발휘

'일즉다 다즉일' 원리 · 연기사상 · 상호공존 법칙 화폭에 담아

비로자나 · 석가모니는 '불이동체' 암시하는 귀중한 사례

고려회화 특징인 섬세한 금선묘 합리적 단축법 등 지켜져

약 6년 전 일본 고베시립박물관에서 "한국불화로 보이는 작품이 창고에서 발견됐다"라는 연락이 와서 조사를 나갔습니다. 개인소장가가 기탁한 이 작품은 일본 가마쿠라시대 작품으로 분류돼 있고 고베시유형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는 것. 촬영채비를 하고 한걸음에 달려가 보니, 지금껏 보지 못했던 참으로도 독특한 형식의 거폭(세로1m96㎝, 가로1m33㎝) 불화였는데, 틀림없는 한국불화입니다. 화면 정중앙의 방형 구획 안에는 여래를 중심으로 한 군상이 있고, 이 구획 밖으로는 참으로 무수하게 많은 작은 부처님 좌상이 깨알같이 가득 그려져 있었습니다. 중심 여래의 육계주에서는 광명의 빛줄기가 소용돌이치며 퍼져나가고 있고 지권인의 수인을 결하고 있어, 이 주존이 모든 부처의 근본불인 비로자나불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비로자나와 그 협시를 포함한 성중의 둘레에는 상서로운 기(氣)의 구름이 물씬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협시군중의 구성을 살펴보니 비로자나불 좌우로 먼저 문수와 보현보살 · 그 외 6대 보살 · 사천왕 · 십대제자 · 팔부중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선시대를 관통하여 풍미한 영산회상도의 석가모니를 보좌하는 협시군중과 같은 구성 요소입니다. 본 작품은 비로자나와 석가모니는 결국 불이(不二) 동체라는 도상학적 암시를 나타낸 귀중한 사례로 판명됩니다.

방형의 중심군 주변의 약 일만 구(종 84열 · 횡 95구)에 달하는 작은 부처는, 녹색 광배에 붉은색 납의를 감아 둘렀는데, 보통 천불 삼천불 또는 만불 등 무수한 부처님을 표현할 때 즐겨 쓰는 소략한 형식으로 취하며 넓은 화면을 촘촘히 메우고 있습니다.

작품의 윗부분 약 40㎝ 폭은 보완 수리를 하였고, 주존불의 천개 및 보살 등 부분에 2 · 3차례 걸쳐 보채를 가한 흔적이 남아있어, 이 불화의 순탄치 않았던 역사 장난기가 가득 감돌아 조선 특유의 유머러스한 터치가 십분 발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고려와 조선적 특징이 복합적으로 간취되는 이 불화는 일단 고려말기 작품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림 ②

그런데 이 불화 속의 비로자나와 무수한 부처님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화엄경> '여래현상품'의 게송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부처님의 몸 온 법계에 가득하시니/ 간 데마다 중생 앞에 나타나시며/ 인연 따라 골고루 나아가지만/ 언제나 보리좌에 계시고/ 여래의 하나하나 털구멍마다 온 세계의 티끌 수만큼의 부처 계시고 (중략) 모든 세계 국토의 티끌 수처럼/ 구름같이 몸을 나투어 가득하시고/ 중생들을 위하여 광명 놓으며/ 자비의 법비를 내리시네'

<화엄경>의 교주인 비로자나(Vairocana)는 바로 '광명의 부처'인데, 그 무량한 빛을 일체 세간에 두루 비추어 어둠을 물리치고 만물을 생성시키는 신비한 힘 그 자체입니다. 시공간에 가득한 법력은 각양각색의 중생의 번뇌에 응답하고 세상을 밝힙니다. 즉 '우주에 가득한 여래'라는 것은 '우주에 가득한 빛'과도 마찬가지이며/ 그대의 친구들이나 그대 자신의 영지가 그렇게 되어도 마찬가지다/ 어느 사람의 죽음도 나를 감소시키나니/ 그 이유는 나는 인류 속에 포함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지 알고자 사람을 보내지 마라/ 종은 바로 그대를 위하여 울린다

강소연(일향한국미술사연구원 연구원)



그림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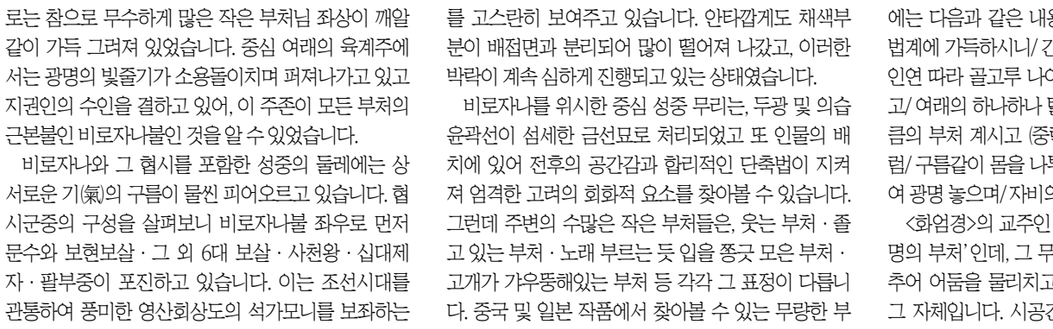
그림 ③

그림1-삼천대천세계의 티끌 수만큼 무한한 부처. 그림2-법계에 가득한 무량한 부처. 그림3-유머러스한 표현의 작은 여래.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등불을 밝혀 무명에서 벗어나소서

봉축행사연등 농협 053-01-265785 / 국민은행 006-01-0785-361
우체국 010041-01-012219 ㈜현대불교신문사



※장식용 수술은 별도

공단등 23Cm(大) /18cm(中) /15cm(小)
색상 : 황금,연분홍,진분홍,오렌지,노랑,오색,흰색(영가등)

연꽃등 6cm : 1BOX 20개입/8cm : 1BOX 16개입
색상 : 보라,연두,연분홍,진분홍,주황,흰색(영가)



만월등 32cm × 32cm
색상 : 분홍,빨강,파랑,노랑,초록,흰색(영가),오색등

유등 (流燈) ※ 주문제작가능
제작기간 : 15~20일 전면인쇄가능

캐릭터 청사초롱
고급본염인쇄

마하몰 고객센터 02)732-1520 (02)2004-8218~9

동산불교대학(2년)

불교장례문화학과 신입생 모 집

장례지도사 양성

1. 개설취지

장례문화학과는 불교의 생사관에 대한 철학적 인식을 바탕으로 장묘문화, 상장의례, 장묘제도, 장의와 관련된 직무등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교육, 연구하게 됩니다. 장례는 단순히 사후처리가 아니라 가장 종교적인 의식행위 중 하나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불자여러분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2. 교과목

과 정	과 목	
1 년	· 장례학개론 · 상장례민속학/역사 · 종교와 불교 · 실습	· 법의학 · 장묘관련법규 · 장사법위주 · 실습
2 년	· 공중보건학 · 장례식장경영론 · 환경과 풍수지리 · 실습	· 시신위생처리및 관리학 · 현행장묘제도의제반적고찰 · 불교정토학 · 실습

3. 개강일시

2006년 3월 7일(화) 오후7시

※특전:2년과정 수료후 불교장례지도사 수여

동산불교대학원(3년)

범본 금강경 대강좌

초기 대승경전의 산스크리트본 원전강독

1. 개설취지

초기대승경전중 반야부의 핵심인 반야심경, 금강경을 산스크리트원전 해석을 통하여 대승사상의 새로운 이해와 반야지혜를 증득하여 사회정의구현을 실천할 불교지도자 경전강독과정입니다.



최봉수 교수

2. 교과목

과 정	과 목	교 수
근본불교학과 (목)	금강경(Ⅰ),금강경(Ⅱ)	최봉수교수
불교학과 (월,화)	화엄경 (2)	활안 스님
	유식삼십송(2)	묘주 스님

3. 개강일시

2006년 3월 9일(목) 오후4시

※특전:3년과정 수료후 전법사 수여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대학원

본대학 사무국 ☎ 02)732-1206~8 / 팩스 02)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sanbud.net



은혜를 갚는 마음 끝간 데 없이 계속돼야

(지난 호에 이어서)

▲사회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스님: 예. 괜찮습니다.

▲질문자1: 질문을 드리기 전에 스님께서 미리 아시고 해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여러 법형제님들을 대신해서 스님께 질문드릴 수 있는 행운을 가진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대대로 불교를 종교로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불교를 숭상하면서 자라 왔습니다. 전에 근무하던 직장이 현재는 청주에 소재하고 있는데, 직장을 그만두고도 10년 동안 법당에 다녔습니다. 3년 전부터 본원에 인연이 돼서 스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 천도재를 이곳에서 올렸고, 또 대학에 들어가는 아이가 있어서 백일기도 발원을 올려 전기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모두 스님의 해은(海恩)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천도재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여러 신도님들이 계십니다. 천도재를 올렸는데도 촛불재니, 또는 조상을 위한 백종(百種)이니 이러한 여러 행사가 있는데, 이 행사에 왜 계속 참여해야 하는지, 또는 참여해야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인지 그것이 의문이 됩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합니다.

▲스님: 우리가 왜 밥을 먹고 또 밥을 먹습니까? 아침 먹었으면 됐지 점심 저녁까지 먹고, 그 이튿날은 또 왜 먹습니까? 보십시오. 아침 쇳송에 부모의 은혜를 갚고, 국왕의 은혜를 갚고, 만물의 은혜를 갚고 모든 생물의 은혜를 다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듯이 낳아서 길러서 이렇게 성장시켜 놓은 부모입니다. 그러면은 그 부모가 낳아서 기르느라고, 이 도리를 잘 배우지도 못한 채 그냥 허덕지덕 허덕지덕 하다가 돌아가셨다 이겁니다. 이 도리를 알고 돌아가신 분들이 지금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천도를 시킨다는 것은 조상들이 다시 짐승으로 태어나지 말고, 현재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무죄 석방이 되게끔 하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같이 살았으면 개로 태어나야 하고 독사같이 살았으면 독사로 태어나야 할 텐데, 그것을 무마시켜서 바로 다시금 인도환생하라고 천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또 뭐가 따르느냐?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도리를 만나서 공부하면서 부처님과 한자리를 하시게 해 드리기 위한, 그 은혜를 갚고 묵은 빚을 갚는 그런 것이 즉, 재(齋)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어린애를 낳아 놓기만 하면 다 사회인이 됩니까? 길러서 가르치고, 가르쳐서 다 정상으로 만들어 놔야만이 그게 어른입니다, 이제. 그럴 때까지는 해야죠. 그러다 보면 또 끝이 나요. 그러곤 또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했던 것이 또 부모가 돼서 끝이 나고, 자식들이 또 그렇게 해야 하고, 이렇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름해서 효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부, 증조모는 천도를 시켰는데 왜 그러냐? 윗대 조상들을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천도를 시켰다면 천도된 분들은 그만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지만, 이 세상에 다시 나와서 깨우쳐서 부처님 한자리를 했다 할지라도, 천도가 되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시기가 있고, 위에 올라가 앉아서 '아! 저놈은 참 착하구나.' 하고 내려다보는 시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뭐, 내 부모만 부모입니까? 정말 부처님 자리 한자리를 했다 할 때는 그렇게 공을 들이고 촛불재를 하고, 백종을 지내고, 사월초파일에도 등 달고 다 이렇게 조상들을 위하는 게 자기를 위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높은 자리에 가면 하나로 돌아가니까, 전부 일체제불과 더불어 일체 중생이 하나로 돌아가기 때문에 네 자식 내 자식 따질 수가 없고, 네 부모 내 부모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다면…, 지금 높은 판사로 됐다면, 내 자식들만 자식이라고 나쁜 짓을 해도 그냥 무죄로 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듯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기가 있고, 아래서 허덕거리고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시기가 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지금 천도재를 하는 것이 '우리 부모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지 말고 인도환생하여 태어나게 해 주소서.' 하는 겁니다. 또 부모가 인도환생이 된 후에도 이런 법을 알아서 정말 한자리 하도록 원하는 그 자식들의 은혜를 갚는 마음이 아주 끝간 데 없이 계속돼야 됩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밥 한 번 먹고는 어떻게 밥을 또 안 먹습니까? 지속적으로 살아야 하고, 지속적으로 배워야 하고, 지속적으로 그 뜻을 알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질문자1: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법을 공부하는 데 한 가지 야심이 있다면 그것은 견성성불인 걸로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스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는 저희들의 욕구도 모두 그와 같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스님을 따라서 배우는 저희들의 공부 목적이 결국 스님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스님께서 인연을 살펴보시기에, 저희들 가운데 장차 스님의 경지에 이를 제자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감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대중 웃음)

▲스님: 네, 그 말씀 잘 하셨어요. 우린 죽으나 사나 같은 도둑놈이듯이, 허허허…, 다 한자리로 항상 도반이 될 겁니다. 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빠르고 더딜 뿐이지, 다 됩니다. 그 뜻을 아십시오. 정말입니다. 이건 거짓이 아닙니다. 이제 됐습니까? 하하하….

▲질문자1: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참회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원효 선사의 경전 해설 『대승육정참회론』에 이르기를 "모든 죄는 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죄업은 안에도 밖에도 없으며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씀의 심오한 뜻은 알 수 없지만 저희들이 얼핏 느끼기에는 그러면 '죄업이란 없다' 그런 말로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죄업이 실재하지 않는다면 참회라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합니다.

▲스님: 그것은 한 경지에 이르렀을 때에 모든 게 불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냥 여여하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 중에서 대답할 분 안 계십니까? "모든 죄업이 불을 것도 없고, 안에도 없고 밖에도 없고 중간에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까닭이 무엇이냐는 얘깁니다. 죄업이 통틀어서 하나도 불을 자리가 없다 하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래야 얼른 한자리 하시죠?

▲신도1: (대중 가운데서) 찰나로 돌아가니까 없죠.

▲스님: 예? 하하하…. '찰나로 돌아가기 때문에 없다.' 이런 소리를 '들 아니게 공(空)해서 돌아가니까 그렇다.'고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 점보돼서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란 건 체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불을 자리가 없죠. 내가 항상 얘기하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어떤 사람이 병을 20년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얘길 듣고 여기 왔어요. 여기 와서 앉아서 "병이 그렇게 있는데…." 그러기에 내가 그냥 퍼뜩 그런 말을 해 버렸어요. "병 불을 자리가 어디 있길래, 병 내놔 봐! 고쳐 줄게." 이랬거든요. 그랬더니만 입을 딱 벌리고 생각을 하더니 그냥 나갔어요. 나가서 가는 도중에 그냥 나아 버렸어요. 그 사람도 그러한 병 때문에 10년, 20년 그냥 공부를 해 온 거죠. 좌선도 하고 뭐 별짓 다 했답니다. 그래도 그렇게 배워 왔기 때문에 말뜻을 퍼뜩 알아들은 겁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죠? 자세히 가르쳐 드리느라고 또 말하는 겁니다. 병 증세를 병원에서 아무리 뭐라고 말을 해도 그것은 이름이다, 삼재가 들었다고 하는 것도 이름이다, 가지 못한다 간다, 이사 가는 방향을 봐야 한다 하는 것도 이 모두가 관습이다. 그러니까 안에도 없고 바깥에도 없다고 하는 것은,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니까 그대로 자재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즉 말하자면, 인간은 나쁜 것도 알고 좋은 것도 아니까 그걸 가려서 생각하고 거기에다 그냥 놓고 돌아가는 것이 그대로 법이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판단을 해서 놨을 때 그대로 법이에요. 그러니까 없지요. 하하하…. 불을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까닭은 무엇인가? 바로 찰나찰나 나투어서, 바뀌어서 돌아가는 까닭이다. 어떤 거 할 때 내가 했다고 하며, 어떤 거 불었을 때 내가 나한테 불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누구나가 다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드리지는 못합니다. 허허허…. (대중 웃음) 삼세를 모르고는 이렇게 못합니다.

▲질문자1: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선원에 나오기 전인데, 불교를 숭상하다 보니까 여러 스님들을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스님 한 분께서 불법의 참뜻을 일컬어 '판치생모(板齒生毛)'라고 자주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짐작으로는 말을 여읜 경지를 나타내기 위한 방편쯤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도 가끔씩 그 말

☞30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병은 내 공부의 재료
나를 가르치기 위해 테스트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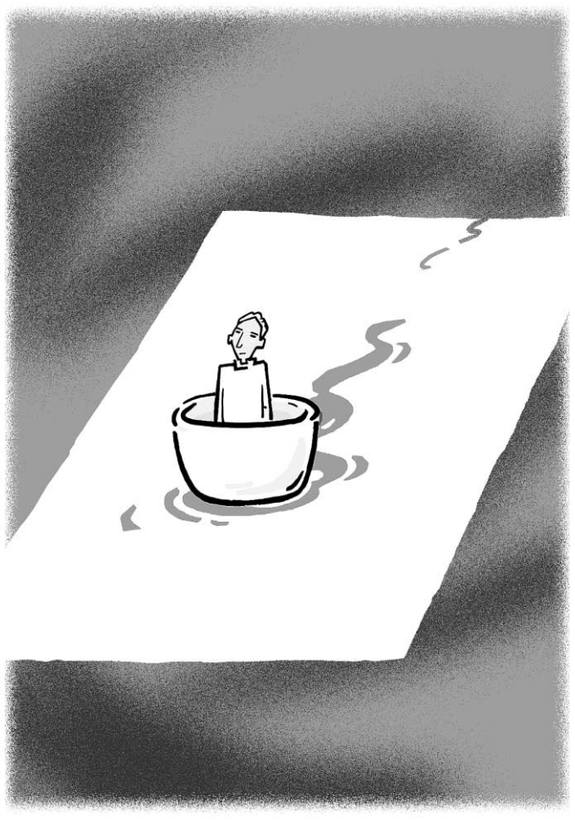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어떤 죄업도 붙을 것이 없다!
안에도 없고 밖에도 없고 중간에도 없다!

근본에다 그냥 놓고 돌아가는 것이 그대로 法

☞29면에서 계속

이 무슨 뜻인가 하고 다시 헤아려 보곤 합니다. 판치생모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 스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합니다.

▲스님: 간단합니다. 널판 같은 이빨에 털이 난 것은 무슨 까닭이냐고 물었을 겁니다. 판때기, 즉 말하자면 '이 널판지같이 생긴 이빨에 털 난 까닭이 무엇인가?' 하고 옛날에 그저 낚싯밥으로 던진 얘깁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그럼 빨리 알아들으시죠? 널 같은 이빨에 털 난 것은 무슨 까닭이냐? 그러면 지금, 이빨에 털 난 것을 말하는 건데, 어디 있는 것이 귀신 방귀씨냐고 물은 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떠한 고난이 있고 어떠한 괴로움이 있다 해서 그 괴로운 마음을 내놔서 보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달마 대사가 혜가 스님에게 "네 편안치 않은 마음을 내놔라. 그러면 내가 고쳐 줄 테니까." 이랬듯이, 뉴욕 사람이 왔을 때 "아, 병을 내놔 봐라. 내 고쳐 줄게." 했듯이. 그러면 깨달은 사람은 그 말대답을 할 것이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말대답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았나 못 깨달았나 보기 위한 방편이지요. 얼른 쉽게 말해서 박이 익었나 안 익었나 하고 바늘로 콕콕 찔러 보는 거나 똑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물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렵니까? 일러 주고 대답을 바라는 사람이 어딨나 하겠지만요. 하하하…. 어떻게 간단하게, 묘하게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신도2: (대중 가운데서) 이렇게 대답하렵니다. (손뼉 치는 소리)

▲스님: 허허허…. 이거 봐! 이거는 참고적으로 들어야 돼. 털이 난 거를 알았다 하고 봤다 할지라도 이거를 기르려면, 허! 몇 해 걸려. 하하하…. 그런데 이거를 기르려면 말이다, 그 판치생모에서 그 털 난 것을 더 먹여도 안 되고 덜 먹여도 안 되고, 그 털을 털한테다가 먹일 때 아주 조심조심해서 그대로, 나온 자리에다가 그대로, 지금 놓으라고 하듯, 더 배불리 먹여도 아니 되고, 덜 먹여도 아니 되고 잘 먹여서 둘 아니게 나투는 그 도리를 알기까지 잘 키워야 돼. 알았지? 하하하….

▲질문자1: 여러 가지 가르침 주신 거 감사합니다. 끝으로 오늘 스님께 질문을 드릴 수 있는 영광된 기회를 빌어서, 이미 오늘 법문 중에 해답이 다 나왔지만 저의 신상문제를 감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선원에 나오기 전에 제가 몸이 좀 불편해서, 그 당시 스님 친견을 하고 가르침을 받고 또 병원 치료도 받고 해서 거의 완치가 됐었는데, 한 2년이 지나고 나서 그 증세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바른 공부를 못해 가지고 그런 걸로 생각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올바른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을지, 미련하다 보니까 해답을 다 주셨는데도 해답을 좀 더 얻고 싶습니다. 스님, 가르침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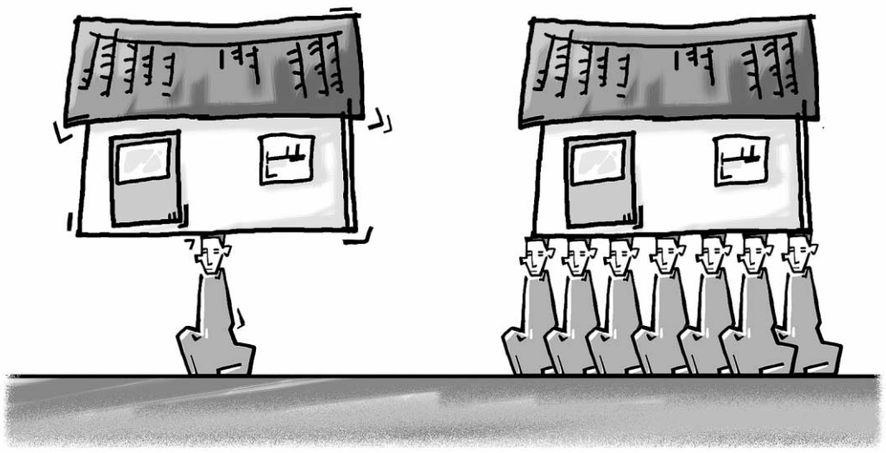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과거 자리 현재 자리가 따로 없이 그냥 자재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세요!

▲스님: 집을 지을 때 기초를 하죠? 그럴 때에 자갈하고 모래하고 양회를 쳐 넣고는 그냥 들이다지죠? 첫번부터 기초가 잘돼야 어느 집이든지 쉽게 헐어지지 않습니다. 너그럽고 지혜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만약에 병 불을 자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그 안의 모든 것이 한마음으로 돼서 들이 아닌 도리를 이 속에서 모두 알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의 사람이 그 도리를 완전히 모를 때, 집을 지을 때 기초하듯 다지고 또 다집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다시 병이 일어나면 어떠한 마음을 가질까 하고 테스트를 하는 도리를 모르십니까? 병이 아니라고 하고 체험을 하는 그런 도리가 있는가 하면요, '병에 걸릴 수가 없다. 병은 재료고 나를 가르치기 위해 바로 테스트하는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졌을 때에 '이건 이리 찔러 보고 저리 찔러 봐도 뭐 그냥 하나도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데….' 하고 불러서는 겁니다.

채찍질이라는 것은, 나를 내가 발견했을 땐 내 스승을 내가 얻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내 스승을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나를 이끌어 가는 스승을 발견해서 스승한테 채찍을 맞는 겁니다. 맞으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 그럴 때는 그런 경고도 나올 뿐만 아니라 못된 짓을 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하하…. 그냥 누(累)가 되게, 저기 나가서 그저 아무 말이나 막 하라고 그렇게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하고 그냥 함부로 해 버리나, 그렇지 않으면 믿는 반면에 '누가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 하고 다시금 돌려 놓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 지혜로움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툼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든 거를 다시금 재출발을 합니다. 재다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 기초하는 것과 같다 이겁니다. 기초를 어쭙잖게 해 놓으면 벽에 금이 가고 전부 잘못돼 가지고 나중에는 기와 인것도 그냥 잘못돼 가지고 씰그러지고 일그러지니까 전체 비가 새고 그럽니다. 그와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가 병이 안 나는 게 아닙니다. 몸을 가졌는데 어찌 아프지 않으리까?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아프다 하면 콧방귀 뀝니다. 하하하…. '네가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면서 네 몸이 아플 땐 어떻게 하겠는가?' 할 때, '허, 참! 맘대로 해라, 네 몸 네가 끌고 다니는데 누가 뭐라 하겠니? 네 몸을 네가 끌고 다니는 거니까 심부름을 시킬만 하면 그냥 끌고 가고, 이제 이런 거는 심부름도 못하겠구나 할 때는 옷을 벗기든지 맘대로 해라. 입히는 것도 벗기는 것도 너 알아서 해야지.' 그러고는 또 한 번 생각합니다. '내가 가겠다고, 옷을 벗겠다고 생각했을 때에 벗겨야지, 너 그렇잖으면 혼나!' 하하하…. (대중 웃음)

혼낸다는 거는 이렇게 상대를 두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없으니까 나를 없애고 그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두고서 나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경계가 되고, 상대가 되고 이러니까 안 되죠, 그건.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이 원자라면 원자에서 입자가, 분자가 많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라서 완성이 된다면 그것이 또 원자가 되고요. 마음이 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피가 늘어나도 늘어남이 없고, 또 많이 넣어도 두드러짐이 없다. 그러면서도 그냥 자유자재하게 내가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쥐고 있다는 결론이죠. 여러분이 마음이 밝으면 태양계도 여러분이지 딴 게 아닙니다.

▲질문자1: 여러 가르침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스님: 그래서 지금도 그 병이 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중 웃음) 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자1: 지금 스님 가르침을 받고 그런 생각이 없어야 되겠는데도, (대중 웃음) 그게 지금 안 됩니다.

▲스님: 그 왜 그렇게 질깃질깃하게 그걸 떠나질 못합니까?

▲질문자1: 이제 이 자리를 떠나면서 다 떨쳐 버리겠습니다.

▲스님: 허허, 떨쳐 버리는 게 아니라요, 용광로에다 그거를 그냥 넣으면 그것이 그냥 재생돼 버려요. 그러면 이 세상에 다시 출현이 될 때에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즉 말하자면 아까도 과거고 조금 아까도 과거니까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떠나도 지금 있었던 자리가 과거 자리가 되죠. 그러니까 과거 자리, 현재 자리가 따로 없이 그냥 자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넉넉한 마음을 가지세요.

▲질문자1: 감사합니다.

▲사회자: 오늘 법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1993년 2월 7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화당인생풀이 V2.2(동양철학)
네오헬스 V2.0 (사상체질의학)
인장성명학 V2.0 (작명)
▶특별 할인 후 : 총3장 220,000원(무료?)

동양철학 사주팔자, 궁합, 당사주, 토정비결, 점성술, 성명학, 관상, 수상, 꿈해몽 만세력제공, 사주사전기능, 방명록 상담기록, 출력기능, 상호등록
사상의학 나의 체질진단(문답형), 알기쉬운 약선요법(식품류, 약재류) 사상의학강의실, 나의건강정보, 생활속의 약선요법, 사상체질식단 등
인장성명학 개요(성명학,인장학,개운법) 성명풀이(한글,한자) 음양오행 사주풀이 작명(음양,음오행,수리<원격,형격,이격,정격>,감명결과) 상호등록

■ 그동안 3,000여장의 판매실적과 많은 분들의 입소문으로 입증된 사주풀이의 진수/ 국내최초 동양철학 사주자판기 "사주천하 특허 획득" 및 "LG산전 500여대 납품실적"
■ 주문 선착순 100명께는 왕초보도 척척푸는 "사주세상 ₩47,000원" 또는 사상체질 의학의 진수 "사상약물방제대전 ₩88,000원"을 드립니다. ★ 특별선물증정 ★

특가행사 서화당 V2.2 ₩220,000 / 네오헬스 V2.0 ₩110,000
인장성명학 ₩110,000원 총 ₩440,000원에서 -50% 할인 후
▶총3장 ₩220,000원에 본사에서 직접 공급합니다.

구입방법 1안 : 금번행사 특별가격 ₩220,000원을 입금하고 구입하는 방법
2안 : 사용중인 인터넷 회선가입을 변경하고 ₩110,000원에 구입
3안 : 사무실과 집의 인터넷을 변경 후 "무료"로 구입하는 방법

위 특가행사의 구입방법중 고객님이 필요에 따라 선택해 주시면 성심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컴퓨터 정보통신 운영 및 프로그램개발 운영사업을 하는 사회복지사 이명수입니다.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구요! 지금보다 최대 25배 빠르고 저렴한 LG파워콤(방송광고중) 또는 현재 대비 유리한 조건으로 바꿔쓰세요.
전화 한 통화로 전국에 가입 설치합니다.

입금처 : 국민은행 740901-01-310096 우체국 313049-01-003391
농 협 453050-55-002174 (예금주 : (사)한국체질의학연구재단)

(사)한국체질의학연구재단 | 감수 : 한국동양철학인협회 중앙회장 최국봉 대전대학교 철학과교수 송인창
전국대표번호 ☎ 1600-4684(사주팔자) / H·P 010-3366-3366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 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기관지천식
천연생약으로 치료한다 - 기천탕

수년간 기관지천식으로 고생하신 분은 윤량한의원 윤량원장이 개발 처방한 기천탕으로 치료하세요

기관지천식이란 천명을 수반하는 호흡곤란이 갑자기 발작적으로 일어났다가 잠시 계속된 뒤 건강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되풀이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첫째는 기관지를 둘러싸고 있는 평활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강하게 경련하여 수축되고 기관지의 내강은 좁아져 버리는 일입니다.
둘째는 기관지 안쪽의 점막이 염증으로 말미암아 비후되어서 내강이 좁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기관지 점막으로부터 점조한 끈적끈적한 분비물이 불어나서 담의 양이 많아지게 되어 기관지의 내강을 덮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윤량한의원의 윤량원장은 수년간 기관지천식으로 고생하는 환자를 위해 천연생약으로 연구 개발한 기천탕을 수백명의 환자들에게 임상결과 많은 환자가 치료됐으며 복용 환자의 증상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30일만 복용해도 80~90% 이상의 개선효과가 있었으며 환자에 따라서는 1~6개월까지 복용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관지천식을 상담하실분은 전화 및 방문하여 상담하시고, 기천탕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단, 지방은 전화상담만으로도 기천탕을 처방하여 보내드립니다.

윤량한의원 원장이 개발한 처방으로 기관지천식에서 해방되세요.
위의 천연생약으로 개발한 기천탕은 한의사와 상담후 처방됩니다.

윤량한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환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 신 환(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치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윤량한의원의 윤량원장은 수십년동안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등의 환자와 전쟁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환(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환(丸)을 5~7일만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어떤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한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관신환을 드실 분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무리가 오시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위궤양때문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시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프신 분

윤량한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참회의 눈물 (상)

이상열 (○○구치소 재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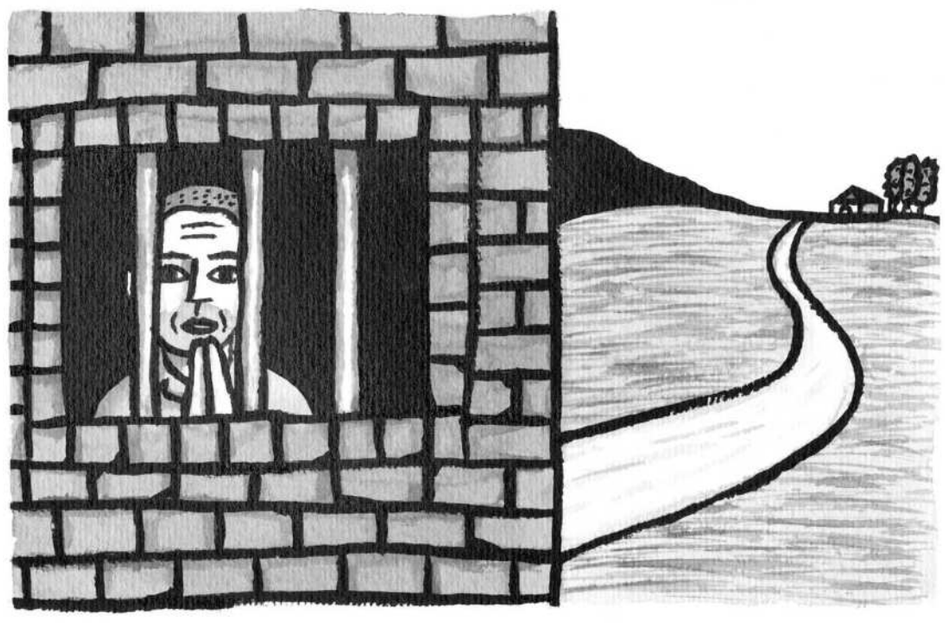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하늘과 땅의 순리를 아는 지천명의 나이를 바로 목전에 두고 지난시간을 돌아봅니다. 40여년의 삶들이 마치 한편의 흑백영화처럼 찰나 간에 흘러갑니다.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이루었고 또 무엇을 잃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는 목적 없이 살고 기준 없이 살았기에 내 마음이 마치 갈대와 같이 이 바람에도 저 바람에도 속절없이 흔들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려다 보니 어린시절부터 십 수 년 어머님을 따라 절에 다녔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처음에는 코흘리개로 아무것도 모른 채, 사찰의 고즈넉한 분위기만을 좇았습니다. 그러다 나이가 들면서 나름대로 경전도 읽고 불교 공부도 조금 하다 보니 불교를 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때의 나는 부처님을 안다고 하면서 과연 무엇이 부처님이고 무엇이 불교인지 조차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는 그저 허식과 가식으로 가득차서 부처님과는 산보다도 높고 바다보다 깊은 높은 장벽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서 그 간 몸만 여기저기로 따라다닌 꼴이니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현재 묶여있는 몸으로, 구치소에서 글을 쓰고 있지만 이곳에도 부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몸소 느꼈고, 그것을 알리고 싶은 마음에 부족하나마 펜을 들었습니다.

또 나의 글이 나와 같이 힘들고 지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다시 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광명정대한 부처님의 큰 가피를 만분의 일이나마 알리고 큰 은혜 입은 벅찬 마음을 가눌 길 없기에 글로써 큰 기쁨과 큰 가피 입음을 적고자 하나 글 솜씨 없음이 그저 한탄스럽기만 합니다.

나는 처와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둔 가정의 가장으로, 작은 운송회사를 운영했습니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행복하고 따뜻하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03년 8월경, 운영하던 사업체가 부도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때 어리석게도 나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항변도 하고 싶었지만, 죄를 지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요. 사업체가 부도 처리 되면서 밀린 임금도 갚지 못했고, 나는 부채 때문에 '사기'

사업체 부도로 임금 갚지 못해 '잘못'

구치소 내 법회 참석하며 마음 달래

경전 한줄 한줄 읽을때마다 참회 눈물

죄로까지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한 순간의 실수와 잘못은 나를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3년 6개월이라는 세월을 격리시켰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범법자가 되면서 우리 집은 그야말로 풍비박산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엎친데 덮친격으로 그렇게 똑똑하고 영민하던 큰 아들 녀석이, 빚쟁이들이 채무 채권 관계로 집으로 찾아와 날이면 날마다 행패와 난동을 부리자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자폐 증세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인데, 자식가진 부모 마음이야 다 똑같겠지만 유독, 첫째 아이라서 더욱 귀여워하고 믿음직스럽던 녀석이라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과 땅이 갈라지는 아픔을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까이 있다면 손이라도 잡고 안아라도 줄 텐데 수감된 죄인의 몸이라서 내손 하나 마음대로 못하는 마음에 하루 열두 번도 더 미칠 것 같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내 잘못을 속죄하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다른 이들을 원망하는 마음만 더욱더 커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이 허물어져서 황폐해져 갈 때쯤 우연히 이곳 구치소 불교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지푸라기 한 올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과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엇갈리게 나타났습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는 바쁜 와중에도 오셔서 불쌍하고 소외된 수감자들을 위해 봉사를 해주시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날은 구룡사에 계시는 정우 스님께서 오셨습니다. 스님의 말씀 중에 무엇이든지 부처님께 열과 성을 다해서 간절히 바란다면 노력한 만큼 부처님께서는 큰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도 무엇인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열과 성을 다하자는 생각이 스쳐지나갔습니다.

물론 그 무엇인가는 바로 나 자신과 아픈 자식, 그리고 내 가정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2월경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침 6시까지 <천수경>과 <금강경>, '예불대참회진언'을 차례로 읽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절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같이 한방에서 잠을 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렇게 하면 그분들께 피해를 주는 것 같았기에 경만 읽게 되었습니다.

수감되어 있는 죄인의 몸으로 낮에는 규정되어 있는 일을 하고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낮에 지치고 고된 몸으로 새벽 4시에 일어날 때는 의지와는 상관없이 눈꺼풀이 천근만근이나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어나서 경을 한줄한줄 읽어 가면 뜻은 고사하고 음도 제대로 다 읽기가 힘들었습니다. 많은 잡념으로 10초도 정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온갖 잡념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고 나면 몸은 더욱더 녹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인지도 모를 만큼 읽고 또 읽다보니 처음에는 잘 돌아가던 혀도 차츰차츰 굳어지면서 '어' '어' 하는 소리만 밖으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입안과 혀에는 혓바늘이 돋아서 밥도 잘못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발음은 불분명하고 시간은 더 들었지만 정신만은 점점 또렷또렷해졌습니다.

그러더니, 서서히 몸도 적응하여 가고 마음 또한 변하여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경을 읽다가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지은 온갖 잘못들과 원망, 후회들이 흐르는 눈물 속으로 참회되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 필름난방"

아직도 심야전기보일러를 생각하시고 **(난방비 50% 절감)**
전기온돌판넬을 생각하시고 **(난방비 70% 절감)**
기름보일러를 생각하시고계셨다면 **(난방비 80% 절감)**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필름난방으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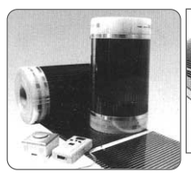
※ 사찰에는 이런점이 유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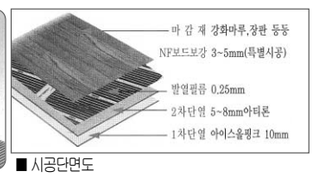
- 보일러기름을 미리 확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쓰지않던 방을 사용할때 하루전에 미리 보일러를 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본 난방은 5~6분이면 충분합니다.
- 한번 시공으로 건물수명대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보장됩니다.
- 전국 사찰 시공경험이 많은 전문시공업체로서 사찰의 현실에 맞는 시공을 보장합니다.

◆ 월간난방비 비교표 ◆

*** 실난방 평수 10평기준 *하루 10시간 사용 *** 2005 8월 기준

구 분	필름난방	심야전력	도시가스	전기판넬	L.P.G	보일러 등유
소비자 가격	64.9원/kw	34원/kw	494원/㎥	64.9원/kw	1100원/㎥	900원/ℓ
월간 난방비	38,200원	56,100원	70,150원	101,800원	136,400원	163,800원





■ 시공단면도

설치하면 좋은곳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법당, 요사채, 선방, 어린이집, 공양간 바닥과 벽 시공 가능

■ 제품 : 정품(미국칼로리규사 제품)만을 취급합니다.
■ 시공 : 전국 사찰 시공 전문 업체입니다.

FILM HEATING FLOOR WARMING

대체에너지(주)
천안 · 아산총판

041)545-5593, 010-8120-3592

2005년도 불교역사를 한눈으로 - 『현대불교신문 합본 11집』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를 지향하는 현대불교신문 2005년 합본집이 발간되었습니다.



2005년 한해 불교계가 지나온 발자취가 담겨진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은 상, 하 두권으로 나누어 불자님들께서 보다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깊이 있고 다양한 불교교리와 불교문화 관련 자료와 정보 등이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스님들께는 수행의 반려자가, 불자님들께는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구입안내

- 구성 : 상권 - 2005년 1월(507호) ~ 6월(532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하권 - 2005년 7월(533호) ~ 12월(558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 판형 : 신문원형 그대로 (40cm × 55cm)
- 절차 : 신청 → 입금확인 → 발송
- 가격 : 상하권 총 80,000원(낱권 판매 불가)
- 입금계좌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245-25-0001-461 / 농협 053-01-2360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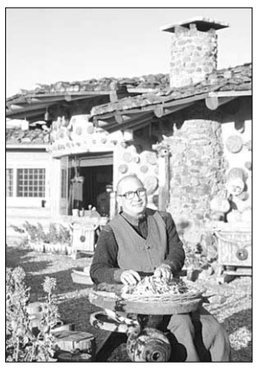
주문 및 문의

- 구성 : 전화 (02) 2004-8211, 2 팩스 02) 737-0697
  Email: cetana@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사 고객1팀
- 과년호 한정판매
  2000년~2002년 (6집~8집) : 50,000원
  2003년~2004년 (9집~10집: 상, 하권) 70,000원

※ 재고가 많지 않아 한정판매 합니다.

민간처방으로 건강식품 특허받은 명광스님

우리나라 한의학에는 예로부터 민간에서 내려오는 각종 '비방(秘方)'들이 있었다. 다행히 문헌을 통해 고증되는 비방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맥이 끊기기도 했다. 때로 민간 비방들은 과장돼 '만병통치약'으로 부풀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민중의술'은 의약의 급속한 발전으로 뒷전으로 밀려났고 제도적으로 보호되지 못해 사라졌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최근 들어 민중의술은 기존 치료법에 대한 한계와 함께 대체의약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민중의술살리기' 연합체가 조직되고 있고 지난달 중순에는 서울 · 경기연합이 출범하기도 했다.



제도적인 홀대속에서도 민중의술이 그나마 전승돼오고 있는 곳이 사찰이다. 경남 창원시 북면에 있는 명성사도 이러한 사찰 중의 하나. 이곳 명광스님(47)은 우연히 민간에서 내려오는 비방을 접하고 이를 '미삼정'이라는 약제로 재현해냈고 10여년 전인 1994년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아 상품화했다. 그 전에는 '제도권' 한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발당하는 등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그는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은 제대로 규제도 못하면서 민간에서 내려오는 처방은 여러가지 이유로 규제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스님이 미삼정을 재현하게 된 이야기는 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스님은 건강이 좋지 않아 26살 늦은 나이에 출가를 했다. 사람구실을 제대로 못할 바에는 차라리 출가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 것이다. 자신의 몸조차 가눌 수 없었던 그는 그 후 해인사에서 5년동안 병든 스님을 간호하며 지냈다. 그러던 어느날 아픈 스님을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돌아오다 그의 삶을 바꾸는 '우연한 일'을 겪게 된다.

"아픈 스님에 대해 걱정하면서 기차에서 내렸는데 한 젊은이가 말을 걸어왔어요. 대뜸 하는 말이 '아픈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비방이 우리 집에 있다. 전수할 사람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데, 생각이 있으면 찾아오라'면서 주소를 적어주었어요."

며칠 뒤 그는 쪽지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다. 경북 청도 근처의 산골집이었다. 집안에 들어서니 기차에서 만난 젊은이가 반갑게 맞아주었고 그의 부친을 소개해주었다. 나이든 부친은 처음에는 "그런 약이 없다"고 했다. 그날 이후 스님은 몇달에 걸쳐 그 집을 수차례 방문했고 결국 할아버지는 '비방'을 건네면서 말했다. "이를 전수할 사람이 없어 고민했는데, 스님에게 비방을 전해드릴 수 있어 다행입니다. 부디 이 비방대로 약을 만들어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구해주세요. 돈이 있는 사람에게는 돈을 받고, 형편이 안좋은 사람에게는 그냥 주도록 하십시오. 그게 제가 대가없이 드리는 뜻입니다."

명광스님은 빛 바랜 종이에 적혀 있는 그 비방을 가지고 와 4개월여동안 약초를 섞어가며 환(丸)으로 만들어 '미삼정'이라 이름붙였다. 한의사가 아니어서 약으로 팔 수 없었던 스님은 이를 대중화하기 위해 고심끝에 94년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았다. 이어 동국대 생리학연구소 김철호 박사의 약효실험을 거쳐 특허를 공동신청해 3년 만인 지난달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받았다. 특허받은 약효는 항종양과 간염억제, 면역증강 활성 및 당뇨병 치료 분야.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의과대 제55병원 재활의인 이익관씨는 "미삼정은 특히 면역증강과 함께 고혈압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민간요법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대체의약의 한 분야로 발전시키고 있는 게 요즘 추세"라며 "한국의 경우 수많은 비방들이 정통의학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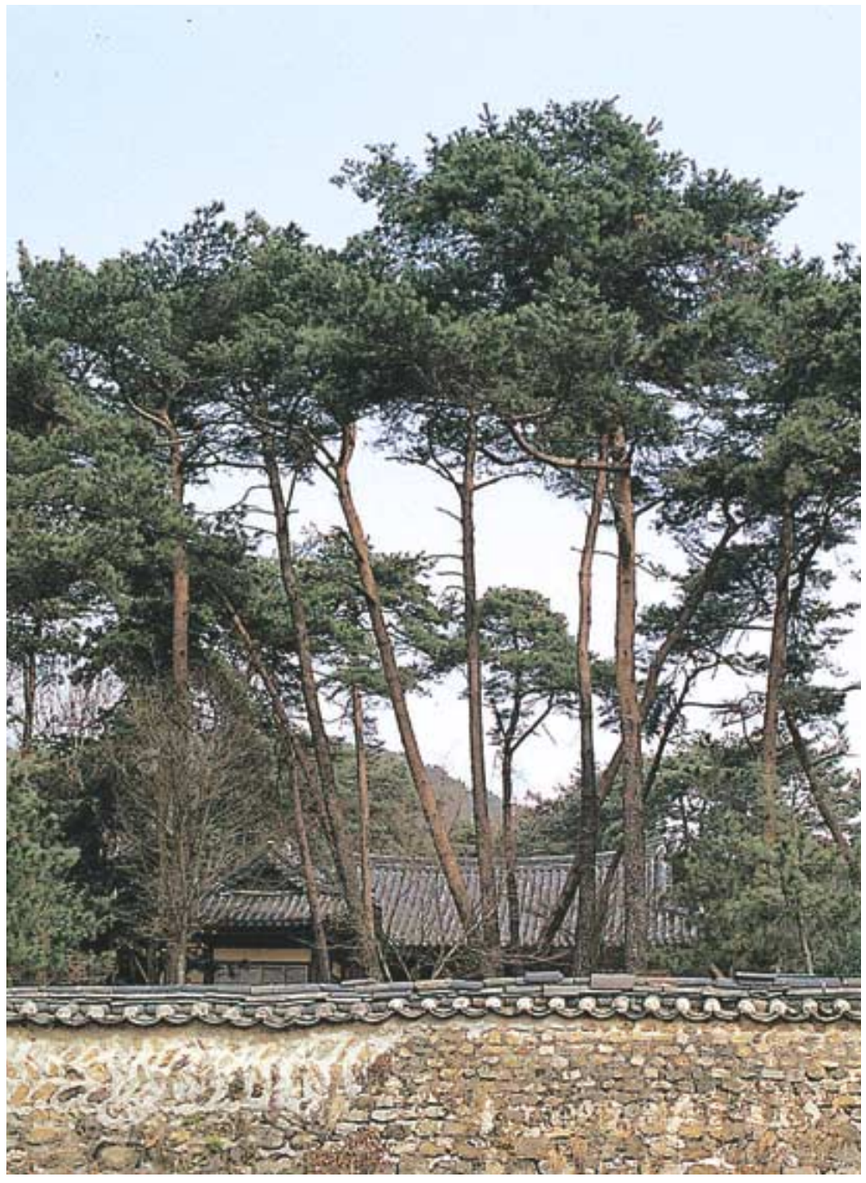
스님은 "약이란 그 자체가 효능을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용하는 이의 마음가짐"이라며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약에 의존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턱대고 약을 맹신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다"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맥이 끊길 뻔한 전통민간요법 중 하나를 되살린 것에 보람을 느낀다"는 스님은 "앞으로 민중의술살리기 단체가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면 더욱 많은 민간의술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명광스님 H.P 011-525-0718
공장 055)298-5911, 299-0921

※ 전국대리점 모집

선원 주변 노송 청안한 맛 가득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54) 수원 성황산 용주사


용주사 선원의 담장 너머 노송은 납자들의 수행을 외호하는 팔부신장처럼 선원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다.

주변 택지개발지구 지정에 생태계 위협

유교 지상주의와 배불(排佛)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조선시대에 창건 · 중창된 사찰 가운데 상당수가 조선 왕실과 인연을 맺고 있다. 조계종 2교구 본사인 용주사(龍珠寺)와 25교구본사 봉선사도 그 중 하나다.

용주사의 전신은 신라 하대 창건된 갈양사(葛陽寺)라고 한다. 한동안 기록에서조차 사라졌던 갈양사가 역사에 새로 등장한 것은 조선 정조 때의 일. 정조는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지금 서울 배봉산으로부터 화성 화산으로 옮기고, 갈양사 옛 터에다 용주사를 새로 창건했다.

용주사의 뒷산은 '화산(花山)'이라고 불리지만 갈양사 창건 당시부터 '성황산(成皇山)'으로 불렸다. 용주사 동종에 새겨진 '成皇山 後身 花山 葛陽寺 龍珠寺(성황산 후신 화산 갈양사 용주사)'라는 명문이 이를 고증한다. 융건릉이 자리한 화산은 용주사와는 2㎞나 떨어져 있다.

용주사가 들어선 성황산은 지역개발로 난도질을 당해서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최근에는 용주사와 융건릉을 포함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면서 풍전등화 상태에 놓여있다. 특히, 생태축으로 반드시 살려두어야 할 용주사와 융건릉 사이 2㎞ 구간이 택지와 공공시설지역으로 개발되면 성황산의 생태계 보전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찰의 수행환경은 자연환경적 요인 외에 인위적 요인으로도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개발주최측이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왕실 원찰로 가람배치 전통서 벗어나

용주사는 왕실의 원찰로 창건되었기 때문에 가람배치가 전통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일주문을 따로 세우지 않은 것부터가 다르다.

연풍교를 건너 진입로 좌우의 넓은 공간에는 소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오리나무 등등이 인공식재되어 있는데, 그 중 훤칠하게 잘 자란 오리나무 다섯 그루가 단연 눈에 띈다.

용주사의 전각들은 경사가 느린 성황산 자락에 앉았다. 경내는 경사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편안한 4개의 석단으로 구분지어 있는데, 삼문-천보루-대웅보전-시방칠등각(칠성각) 등의 공간이 그것이다.

좌우에 긴 줄행랑을 거느린 삼문은 왕실이나 사대부의 건축에서 볼 수 있는 양식이다. 누각 건물인 천보루(天保樓)와 좌우의 행랑에 이어진 나유타료(那由他寮)와 만수리실(曼殊利室) 역시 왕실이나 사대부 건축에서나 볼 수 있는 ㅁ자형의 건축물이다. 누각을 받치고 있는 사다리꼴 기둥돌은 경복궁 경회루의 기둥돌을 그대로 축소해놓은 듯하다.

마당 동쪽 개울가에는 샘이 마른 옛 수각(水閣)이 자리하고 있다. 막돌 기둥이 투박하나마 질박스럽게 지붕을 떠받치고 있다. 물을 쓰는 수각에 돌로 기둥을 세운 것은 생태적 지혜이다.

대웅보전 주변 전돌 깔아 친환경적

대웅보전 둘레에는 전돌이 깔렸다. 전돌은 점토를 네모나게 구운 것으로, 예전에는 건물 내부에 마루 대신 깔기도 했다. 현재 경복궁 근정전을 비롯해 주요 궁궐의 정전 내부에도 깔려 있고, 칠갑산 상대웅전을 비롯해 몇 곳의 고찰에도 내부에 전돌이 깔려 있다. 전각 둘레에 전돌을 깔면 흙바닥이나 시멘트바닥보다 친환경적이다.

대웅보전 석축 아래에 2백여년 전 정조가 심었다는 천연기념물 회양목 한 그루가 서 있다. 지난 2002년도에 고령으로 열반에 든 후 천연기념물에서 해제되었다. 지금은 방부처리되어 고사목으로 보존되고 있다.


전통 가람배치 양식을 벗어난 용주사 경내 진입로.


일주문 열할을 하는 용주사 입구 숲에서는 훤칠하게 자란 오리나무가 단연 눈길을 끈다.


다듬지 않은 돌로 기둥을 세운 용주사 수각.


성황산 터줏대감 오색딱다구리.


용주사는 화재에 대비해 대웅보전 옆에 연못을 조성해 놓았다.

회양목은 상록 관목으로, 석회암 지질을 좋아한다. 맹아율이 높아서 가지치기를 통해 둥근 수형을 만들어 조경수로 삼거나 촘촘히 심어서 생울타리로 삼기도 한다.

30년 안팎 소나무들 숲 허파 기능

경내 담장 너머 숲속은 선원 영역이다. 선원 주변은 눈맛 좋은 노송들로 그득하다. 연륜을 느끼게 하는 노송음삼(老松蔭森)은 포행길에 나선 수좌(首座)들처럼 청안해 보인다.

선원을 저만큼 비켜서 고즈넉한 소나무 숲길이 정상으로 이어져 있다. 선방 수좌들이 즐겨 포행을 다니는 길이다. 선원 위쪽으로는 수령이 30년 안팎인 소나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소나무 숲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신선한 공기이다.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소모하는 산소의 양은 30년생 소나무 5그루가 하루 동안 만들어내는 산소의 양과 같다고 한다. 이 소나무 숲은 용주사의 허파와도 같다.

성황산은 인접한 화산에 비해 생태계가 튼실하지 못하다. 동식물의 종류와 개체수도 현저히 떨어진다. 화산과는 달리 오랜 기간 동안 숲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마을사람들의 무단출입과 무분별한 화목 채취도 큰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고, 성황산의 북사면에 개발된 골프장은 지금도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갈양사 추청 습지 생태 비오톱(Biotop)

성황산은 산체(山體)가 작아서 이렇다 할 골짜기가 발달하지 못했다. 다만, 동쪽으로 도랑 규모의 개울이 흐르고 있는데, 개울을 거슬러 올라가면 선원 위쪽으로 습지가 있다.

옛 갈양사 터로 추정되는 이 습지는 성황산의 생태 비오톱(Biotop)이다. 소나무만큼이나 보전 가치가 있는 성황산의 자연생태적 거점이다.

성황산의 조류상은 다양성에 비해 개체수가 적은 편이다. 딱따구리류, 박새류, 참새류를 비롯하여 직박구리, 붉은머리오목눈이, 멧비둘기, 멧새, 굴뚝새, 어치, 꿩 등의 텃새들이 관찰되고 있다.

맹금류로는 말똥가리와 황조롱이가 용주사 앞 농경지에서 관찰됐다. 그러나 태안 3지구가 개발되면 식생의 변화와 함께 조류의 다양성도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멧토끼와 고라니가 성황산에서 발견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두 종류 모두 보지 못했다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다. 조사기간 중에 그들의 배설물이나 족적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 그들이 융건능 쪽으로 몸을 숨긴 것으로 보인다.

성황산은 야생동물들이 살기에는 열악한 환경이다. 군부대처럼 높은 철책이 성황산을 에워싸고 있기 때문이다. 이 철책은 밤낮없이 드나드는 등산객들로부터 수행환경을 지키기 위해 용주사에서 설치한 것이다. 모양새는 좋지 않지만, 숲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다만, 야생동물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골프장 경계쪽은 적당 구간의 철책을 걷어내고 생태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그들에 대한 대우일 것이다.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등표 위치 높이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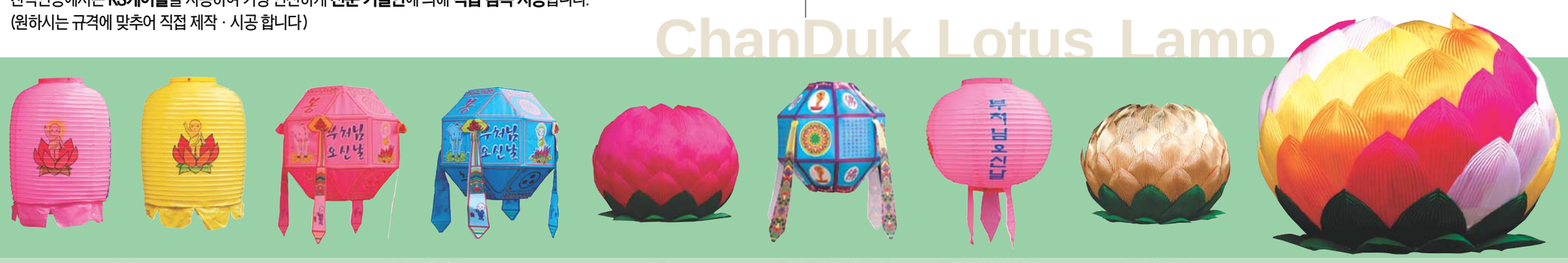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 합니다)

등 | 불 | 로 | 전 | 하 | 는 | 자 | 비 | 광 | 명

찬 덕 연 등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저희 찬덕연등과 임직원을 성심껏 키워주신 사부대중께 감사드리며 이에 보답하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찬덕연등은 전통의 미와 현대의 감각을 잘 조화시켜 한국을 대표하며, 세계속에 우리 불교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소명을 갖고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ChanDuk Lotus Lamp


종 등 | 팔각봉축접등 | 공단등 | 팔각조립등(반야심경) | 주름등(만월봉축등) | 공단황금등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 연등, 카다로그 요청시 발송해 드립니다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사찰명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약 30일이 소요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주름등, 종등)